| SRI-기획-2018-23 |

수원 미술 아카이브 구축전략 연구

A Study for the Establishment of SIMA Art Archive

최지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연구진

연구책임자 최지연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이정수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위촉연구원)

연구 자문위원

김달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관장)
김종길 (경기도미술관 학예팀 수석큐레이터)
류민주 (부산시립미술관 미술정보센터 아키비스트)
류한승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아키비스트)
박상애 (백남준아트센터 학예팀 아키비스트)
박주석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진희 (부산시립미술관 학예연구팀 큐레이터)
신은영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학예연구팀 큐레이터)
이채영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학예연구팀 큐레이터)
임정은 (삼성미술관 리움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아키비스트)

ⓒ 2018 수원시정연구원

발 행 인 이재은
발 행 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 쇄 2018년 11월 30일
발 행 2018년 11월 30일
I S B N 979-11-89160-53-1 (9360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최지연. 2018.「수원 미술 아카이브 구축전략 연구」.

비매품

국문요약

1. 연구의 개요

■ 본 연구를 통해 수원미술 아카이브 구축의 명확한 지향점과 범위, 체계를 설정하고 수원시의 시각예술 정보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 관리 · 보존하는데 기틀을 제공하여 수원미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수원미술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함

○ 수원미술 아카이브의 비전 및 목표 제시, 아카이브 구축 원칙과 필수적 제반여건 제시

○ 수원미술 아카이브의 초기 콜렉션 수집 전략 제시

○ 수집된 시각예술 정보자료의 등록관리 및 분류체계 설정, 아카이빙 방법 제시

○ 시각예술 정보자료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디지털화 방안 제시

2. 미술 아카이브 관련 이론적 배경

■ 아카이브의 기본적인 의미는 영구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물 혹은 기록보관소를 뜻함

○ ① 영구보존자료를 선별, 수집하여 보존하는 장소 '기관'이며 ② 그러한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영구보존의 가치를 인정받아 선별된 '보존자료'(김달진, 2012)임

○ 아카이브는 또한, 보존 자료의 선별과 평가 그리고 보존에 대한 책임, 보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행위나 작업의 일정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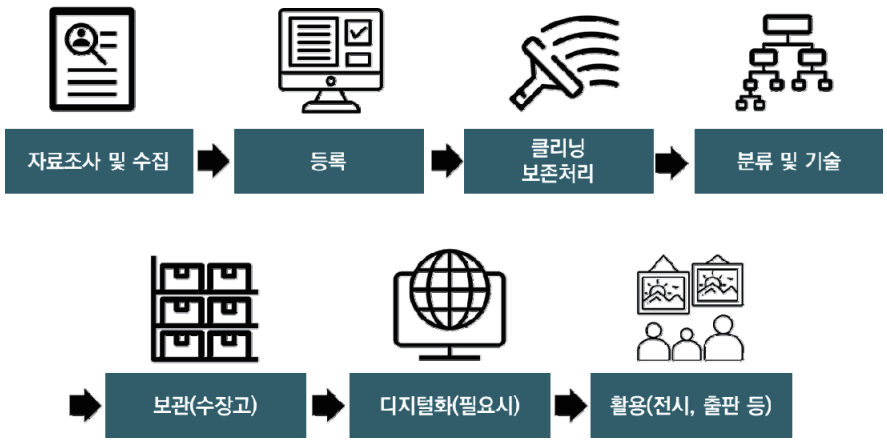
■ 미술 아카이브는 개인 및 미술관련 조직이 수행하는 미술활동의 과정에서 생산되어 관리하는 기록으로서 미술의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예술적, 학문적 자료에 대한 아카이브(김달진, 2012)

○ 미술 아카이브란 미술사 측면에서 정보적 가치와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는 각종 미술 관련 기록물을 매체에 구분없이 수집, 평가, 분류, 보존하여 문화공공성의 차원에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시민과 연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임

○ 보다 구체적으로 미술 아카이브 컬렉션의 품목을 나열하면, 개인이나 기관이 생성한 문서류(서신, 일기, 행사 관련 서류, 스크랩북, 회의록 등), 사진류(사진, 네거티브필

름, 슬라이드 등), 그래픽류(초청장, 포스터, 도면, 프로그램, 스케치북 등), 오디오/비디오류, 사물류(상패, 기념품, 소품 등)등임

- 미술 아카이브는 연구와 학술적 기능, 교육적 역할,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의 역할,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만드는데 필요한 원천 재료를 제공하는 기능, 미술관련 기관 및 제도의 투명한 경영과 책임행정을 유도하는 기능 등을 수행함
  - 미술 아카이브는 미술 활동에 대한 다각적 이해를 돕는 기초적인 자료를 작용하므로 지역미술 연구의 토대로 기능함
  - 미술 아카이브의 구축은 '예술과 사회'에 대한 지역에서의 능동적 개입과 창작 활동임
- 미술 아카이브는 준작품적 성격, 작품과의 밀접한 연관성 및 다양한 매체로 구성된 컬렉션임
  - 생산 맥락과 관련하여 창작행위의 과정과 결과로 생산된 기록 : 창작자나 창작 집단이 사용한 도구를 비롯하여 드로잉, 스케치 등 그 과정 기록 및 작품 그 자체, 그리고 창작자 등의 생애와 관련된 기록
  - 미술 관련 조직의 활동 과정과 결과로 생산된 기록 : 작품 등이 전시를 위한 목적으로 이동하거나 대여 혹은 판매되었을 때 생산되는 각종 과정 기록과 활동 기록
  - 연구활동을 통해 생산된 기록 : 작품, 창작자, 창작집단에 대한 연구 및 비평 활동을 통해 생산된 기록
- 아카이브 구축을 작업은 먼저 자료 조사 및 수집을 시작으로 자료의 등록과 클리닝, 보존처리 작업을 거쳐 자료의 목록화와 기술, 자료의 보관(수장고), 디지털화(필요시), 자료의 활용(열람, 전시, 출판 등) 단계로 나눌 수 있음



3. 국내외 미술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사례

■ 해외 미술 아카이브 사례

기관	개 요	소재	개관
Smithsonian Institute Archive for American Art	• 미국 시각예술 역사 자료의 보존과 기록 • 2천만 개가 넘은 개인 및 기관 기록물, 구술사 콜렉션 •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아카이브 기획전, 출판 등	미국 워싱턴 디씨	1954
Tate Library and Archive	• 1900년 이후 영국 미술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 • 900명 이상의 작가 콜렉션, 미술관 역사 기록물 등 • 테이트의 전시, 교육, 소장품에 관한 학술 연구 프로젝트, 다양한 주제의 컨퍼런스, 심포지엄, 강연 등	영국 런던	1970
Asia Art Archive	• 최근의 아시아 예술에 대한 자료 수집 • 책, 전시도록, 시청각 자료, 인터뷰 자료, 개인 아카이브 등 34,000여 점의 온·오프라인 자료 • 장단기 리서치 프로젝트와 이어지는 국제 규모 심포지엄, 출판 사업 등	홍콩	2000

○ 대규모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여건 마련 : 미술 연구자 및 아카이브 운영 프로세스 단계별 전문가 다수 배치를 통한 운영 전문화

○ 자료를 수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생산'하는 활동 병행 : 리서치 프로젝트를 통해 자료 수집 및 생산(구술사 프로젝트 등)

○ 과거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 못지않게 현재의 활동에 대한 것을 자료화 : 현재 전시나 활동에 대한 자료 수립 및 기관의 활동 자체에 대한 자료 보존

○ 아카이브를 공공자산으로 인식 : 자료를 축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료의 활용, 접근성 증진이나 서비스 등을 모색

○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다양한 활용 : 자료를 이용한 기획전시, 연구, 학술행사 등을 통해 공유하고 발전

○ 디지털 및 온라인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 : 디지털 원본과 관련정보를 연계하여 서비스함으로써 미술관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자 함

○ 모 기관의 역사를 도큐멘테이션하기 위해 연구 및 업무 활동을 펼친 직원들의 기록을 관리한 활동에도 적극적임

■ 국내 미술 아카이브 현황

기관	개 요	조직	소재	개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	• 예술기록·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 연극, 무용, 음악 등 공연예술과 시각예술분야의 도서, 인쇄, 영상, 음향 및 실물자료 등 수집, 보존	국립	서울	1979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아카이브	• 아시아 48개국의 전통 음악, 무용, 연희, 건축, 공연, 사진 및 예술품에 이르는 문화자원(컬렉션 및 아이템)을 조사·수집·관리·보존 • 아시아의 인문·사회·예술 분야의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진 〈전문주제 콜렉션〉, 개인이 기증한 자료의 〈개인 콜렉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과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록 자료들을 수집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콜렉션〉	국립	광주	2014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미술연구센터 서울 디지털정보실	• 한국 및 아시아 근현대 미술의 이해와 연구를 위한 미술자료의 관리·보존, 연구 활동 지원, 미술정보 서비스 등 • 한국 근현대미술가들의 스케치, 드로잉, 작가노트, 사진, 편지, 브로슈어 등 미술자료 및 미술관의 주요활동(전시, 교육, 연구 등)과 관련되어 생산된 자료, 비디오 아티스트의 영상 아카이브 등	국립	경기	2013 2014
부산시립미술관 미술정보센터	• 부산의 1세대 판화가이며 교사이자, 미술 이론가인 이용길 선생의 기증으로 10톤 트럭 1대 분의 부산지역 미술 자료 확보 • 1945년 해방 직후 부산 미술관련 자료, 기사 스크랩 100여권, 미술 서적 1만여권 등 • 최근에서야 담당 아키비스트가 채용되어 자료 정리 과정에 있음	공립	부산	2007
백남준아트센터 라이브러리 &아카이브	• 백남준과 그의 작품세계에 대한 자료, NJP아트센터의 역사적 기록과 활동 자료 보존 • 서신과 사진, 전시 자료, 오브제 등의 백남준의 동료 아티스트나 엔지니어, 지인의 원자료콜렉션, 비디오 아카이브콜렉션(2,285종)	공립	경기	2008
삼성미술관 리움 한국미술기록보존소	• 평론가 이구열의 4만여 건의 자료를 인수하여 구성 • 전시 팜플릿, 초대장, 서신, 사진, 작품도판, 신문/잡지 기사 등 작가별 자료, 미술관련 단체와 단체전 자료,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 등	사립	서울	1999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 미술자료수집가 김달진 소장콜렉션 •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한국 근현대미술분야의 단행본과 정기간행물, 화집, 학회지, 학위논문, 전시도록 및 팜플릿, 작가파일, 보도자료, 영상자료 등	사립	서울	2007

○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미술 아카이브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음
- 국립현대미술관조차도 미술 아카이브를 구축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상황임
- 2010년부터 구축 논의, 2013년 미술연구센터 개소, 2014년 폐가식 열람 서비스 시작, 현재까지도 수증 받은 자료가 다 분류-기술 작업 진행 중에 있음

○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의 경우 아카이브에 대한 선도적 인식이 있었던 개인에 의한 아카이브를 구축함

○ 백남준아트센터는 공립기관으로서는 특수하게 구축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주로, 열정있는 개인 콜렉터들의 대량의 자료 기증으로 인해 미술 아카이브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구열 선생의 기증으로 콜렉션이 형성된 리움미술관의 한국미술기록보존소
- 이용길 선생의 기증으로 부산지역 미술 아카이브 구축 중인 부산시립미술관

○ 지역공립미술관은 지역 미술의 정체성 수립을 위해 아카이브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아카이브 전시에 그침

○ 현재로서는 자료실과 아카이브 개념을 혼용하고 있으며 전문 아키비스트 채용도 미진한 상황임

○ 즉, 현재 상황에서는 미술 아카이브에 대한 이해를 지역 사회에 공유하는 것이 절실함
- '비시장성'을 띄는 아카이브에 대한 이해
- 활용 가능한 역사성을 갖기까지 아카이브에 대한 장기적 관점 필요

○ 수원미술 아카이브의 체계적 구축은 지역 미술 아카이브의 선도적 구축을 의미함
- 지역 단위 특히,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역 미술사 아카이브의 지위를 점유할 수 있음
- 이는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의 특성화 방안이 될 수 있음

4. 수원미술 아카이브 구축 관련 현황

■ 현재까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 소장한 미술 자료의 경우 대부분 원본을 확보하되, 상황에 따라 디지털 이미지 형태로 수집함

■ 수증(기증)을 주요 수집방법으로 운영하되 내부학예직 인력의 연구조사, 발굴, 전시를 통한 구술채록과 같은 적극적 자료생산을 병행하고 있음

■ 수원미술 자료수집 현황

구분	① 구술채록	② 영상자료	③ 해제문	④ 신문기사	⑤ 사진 (도판 외)	⑥ 각종 전시자료	⑦ 각종 인쇄자료	⑧ 기타
계	4	15	125	1,709	156	170	137	-

■ 수원미술 관련 도서류 수집 현황

구분	① 단행본	② 학회자료	③ 전시도록 (1)	④ 전시도록 (2)	⑤ 특수도서	⑥ 기타
계	41	11	127	147	85	27

■ 수원 지역작가 및 유족 구술채록

구분	나영균(1929-)	김학두(1924-)	홍승인(1939-)	윤재상(1940-)
	나혜석 유족	원로미술인 (서양화)	원로미술인 (도예)	원로미술인 (서양화)
촬영 분량	90분	94분	93분	125분
음성 채록문	177매 (200자 원고지 기준)	201매	195매	236매
수집 자료	영상, 사진, 나혜석 관련 증언 등	영상, 사진, 도판 등	잡지류, 사진, 도판 등	사진류

■ 공간 현황

위치	실명	면적(㎡)	면적(평)
지하 1층	수장전실	194.94㎡	59평
	수장고(회화)	272.44㎡	82평
	수장고(조각)	297.80㎡	90평
	기록물실(문서고)	63.16㎡	19평
	창고(도서보관)	32.38㎡	10평
지상 2층	라이브러리	110.47㎡	33평

■ 근·현대 수원미술사

○ 해방 전 수원 지역에서의 미술활동은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나혜석과 30년대 민족주의의 시각에서 미술평론과 창작활동을 통해 두각을 보였던 홍득순, 장윤천, 한재남 등을 들 수 있음

○ 광복 이후 수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작가로 김학두, 이영일, 이승영, 이수덕, 안찬주, 박기환, 권대균, 김교선, 홍승인, 윤재상, 김인겸, 이필윤, 오인환 등을 들 수 있음

○ 이후 1964년 3월 22일 〈미술협회 수원지구회〉가 결성

- 6-70년대 불모지와도 다름없었던 수원의 화단을 이끌었던 〈미협〉의 활동은 그러나 본격적인 의미의 미술활동이라고 보기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음
- 하지만 미술환경이 전무하던 당시의 수원화단에 있어 유일한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지대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지역단위 '미협' 활동은 그 고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60년대 이후 지역미술 활동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함

○ 수원미술은 60년대 활동을 전개했던 세대들과 그 다음 세대라 할 수 있는 70년대 말에 활동했던 세대 간의 간극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깊었다고 말할 수 있음

○ 70년대 말 이후 수원 지역 미술 소집단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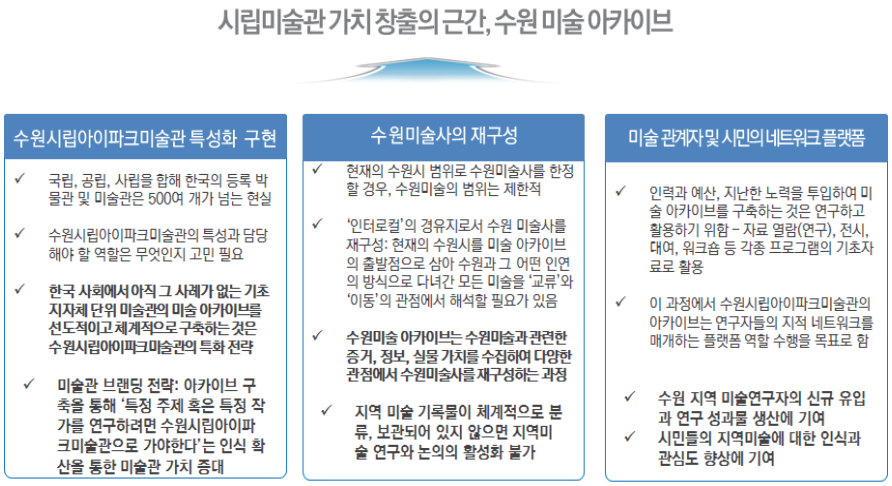
- 경기청년작가회(경기청년미술인회)
- 포인트, 시점시점
- 시작회
- 경기현대작가회, 경기구상작가회
- 일구팔이일이회
- 성묵회
- 새벽

○ 90년대 이후 수원 지역 미술 소집단 활동

- 수원미술인협회
- 컴아트 그룹
- 슈룹
- 옴니버스, 독립작가연구회

5. 수원미술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 수원미술 아카이브 비전과 목표



■ 아카이브 구축 원칙

○ 지역 사회와의 미술 아카이브에 대한 이해 공유

○ 체계적 운영을 위한 규정과 업무지침 마련

○ 관련 전문인력 필수 배치

○ 특정 콜렉션의 집중적 수집

○ 자료의 기술이 충분한 아카이브 구축

■ 수원미술 아카이브 제반여건

○ 인력: 수원미술 담당 학예 인력 1인

- 수원미술 담당 학예 인력 1인이 관련 전시 기획과 병행하며 수원 미술 자료를 체계적 수집, 분류, 보관, 활용하기에는 역부족

○ 공간: 미술관 여유 공간 부족

- 수원 미술 자료의 체계적 수립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는 수장고, 아카이브 작업공간, 임시수장실, 서비스공간이 필요
- 현재까지 수집한 2,000여 점의 미술 자료도 문서고(19평), 창고(10평) 공간에 임시 보관

○ 수원미술 자료의 수집은 부분적이며 간헐적 자료 수집에 그치고 있음

- 수원 미술 관련 전시 개최 시에 수증 받는 작가의 일부 자료와 연간 2건 진행하는 구술채록 시 수증 받는 작가의 일부 자료

- 특정 주제 혹은 특정 작가를 포괄하여 대표적인 콜렉션을 구성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

○ 자료 수집 관리에 대한 종합 체계와 규정 미비

- 기증자가 기관을 신뢰하고 기증할 수 있는 미술자료 아카이브 체계 미비
- 수집, 등록, 분류, 기술, 보관, 활용에 대한 운영 규정과 지침 미비: 기관 차원의 논의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미술 아카이브에 대한 이해의 전반적인 확산과 미술사와 기록학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지닌 인력을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함

○ 수원미술 아카이브 최소 필요인력을 아키비스트 1명, 수원 미술 연구자 1명 등 총 2명을 제시함

○ 또한, 수원미술 아카이브 최소 필요 공간으로 수장고 35평, 작업공간 20평을 제시하고 자료 열람 등의 서비스 공간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의 라이브러리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 특정 콜렉션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자료의 기술이 충실한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함

○ 수원미술 아카이브는 타 기관 사례와 같이 대량의 자료 확보를 통해 구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콜렉션 중심의 아카이브 구축전략을 수립하여 수원미술사의 연구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를 기준으로 우선수집대상을 선정해야 함

○ 우선수집대상의 콜렉션 구축을 시작으로 해당 주제 관련 대상으로 확장해나가야 함

○ 활동 시기별 수집 전략을 통해 근대 시기 희귀 자료와 70년대 중후반 이후 활동하게 이뤄온 지역 기반 소그룹 활동 자료를 우선수집대상으로 상정함

■ 본 연구에서는 근대시기 희귀 자료 우선수집대상으로 나혜석과 홍득순 관련 기록물을, 지역 기반 소그룹 활동 우선 수집대상으로 〈컴아트〉와 〈슈룹〉, 〈우리그림(이억배)〉 관련 기록물을 제안함

○ 이들의 발생 가능한 예상 기록물과, 현재 해당 기록이 소장되어 있을 잠재적인 소장처 추정 결과를 제시함

■ 수원미술 아카이브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1.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미술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정 2.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미술아카이브 업무지침 수립을 제시함

주제어: 수원 미술, 지역 미술, 아카이브, 미술 아카이브, 기록, 연구, 미술관 특성화

차 례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1. 연구의 범위 ····· 6
2. 연구의 방법 ····· 7

제2장 미술 아카이브 관련 이론적 배경 ····· 9

제1절 미술 아카이브 개념 ····· 11
1. 아카이브의 기본 개념 ····· 11
2. 미술 아카이브의 개념과 특징 ····· 12
3. 미술 아카이브의 가치와 의미 ····· 15
제2절 미술 아카이브 프로세스 ····· 18
1. 미술 아카이브 수집대상 ····· 18
2. 아카이브 작업 흐름도 ····· 19

제3장 국내외 미술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사례 ····· 27

제1절 해외 미술 아카이브 사례 ····· 29
1. Smithsonian Institute Archive for American Art (미국) ····· 29
2. Tate Library and Archive (영국) ····· 30
3. Asia Art Archive (홍콩) ····· 32
4. 시사점 ····· 34
제2절 국내 미술 아카이브 현황 ····· 35
제3절 국내 미술 아카이브 현장조사 ····· 37
1.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 37
2. 부산시립미술관 미술정보센터 ····· 40
3. 삼성미술관 한국미술기록보존소 ····· 42

4.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 44
5. 백남준아트센터 ····· 46
제4절 시사점 ····· 48

제4장 수원미술 아카이브 구축 관련 현황 ····· 49

제1절 수원 미술 자료수집 현황 ····· 51
1.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집자료 현황 ····· 51
2. 자료수집 방법 ····· 53
3. 연구논문집 〈수원미술연구〉 발간 ····· 54
제2절 아카이브 구축 관련 제반여건 ····· 55
1.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공간 현황 ····· 55
제3절 근·현대 수원미술사 개괄 ····· 58
1. 해방 전 수원 지역 미술활동 ····· 58
2. 광복 이후 수원 지역 미술활동 ····· 59
3. 70년대 말 이후 수원 지역 미술 소집단 활동 ····· 60

제5장 수원미술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 89

제1절 아카이브 구축 비전 및 목표 ····· 91
1. 수원미술 아카이브의 비전(안) ····· 91
2. 수원미술 아카이브의 목표 ····· 91
제2절 아카이브 구축 원칙과 필요요건 ····· 94
1. 수원미술 아카이브 구축 원칙 ····· 94
2. 수원미술 아카이브 구축 요건 ····· 98
제3절 수원미술 자료수집 전략 ····· 100
1. 콜렉션 중심의 아카이브 구축 전략 ····· 100
2. 예상 기록물과 소장처 조사 ····· 102
제4절 미술자료 디지털화 방안 ····· 109
1. 디지털화 목적 ····· 109
2. 원본의 훼손을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디지털화 ····· 109
3.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한 온라인 DB 제공 ····· 109

제5절 미술 아카이브 체계 마련 ····· 111
1. 미술 아카이브 프로세스별 추진전략 ····· 111
2. 미술 아카이브 운영 규정 및 업무지침 수립 ····· 116

참고문헌 ····· 123

부록

1. 수원미술연표(1896~2011) ····· 126

표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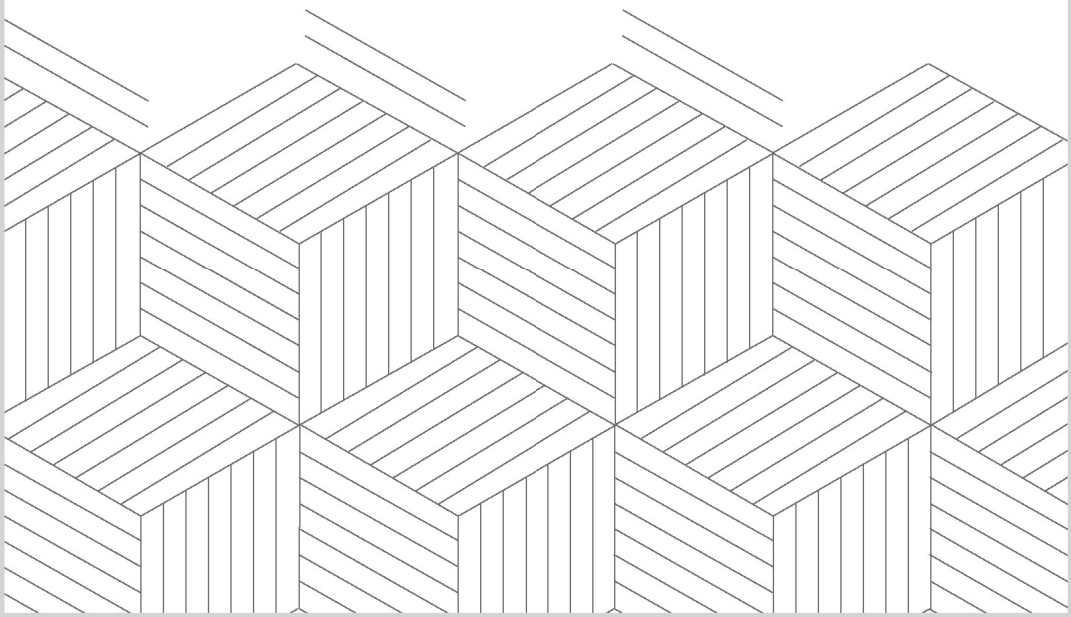
〈표 2-1〉 미술 아카이브 대상의 범주 ····· 13
〈표 2-2〉 아카이브, 도서관, 미술관의 개념적 차이 ····· 14
〈표 2-3〉 게티미술연구소의 매체별 수장고 환경 ····· 24
〈표 3-1〉 해외 미술 아카이브 ····· 33
〈표 3-2〉 국내 공립기관 미술 아카이브 ····· 35
〈표 3-3〉 국내 민간기관 미술 아카이브 ····· 36
〈표 3-4〉 시·도립미술관의 아카이브 자료 전시 ····· 37
〈표 4-1〉 수원미술 자료수집 현황 ····· 51
〈표 4-2〉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 미술자료 보관 양식 예시 ····· 52
〈표 4-3〉 수원미술 관련 도서류 수집 현황 ····· 53
〈표 4-4〉 수원 지역작가 및 유족 구술채록 사업 ····· 54
〈표 4-5〉 2017 수원미술연구 제1집 수록 논문 ····· 54
〈표 4-6〉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공간 현황 ····· 55

그 림 차 례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기대효과 ····· 4
〈그림 1-2〉 연구의 목적 ····· 5
〈그림 1-3〉 연구의 방법 ····· 7
〈그림 2-1〉 아카이브 작업 흐름도 ····· 19
〈그림 3-1〉 미국 미술 아카이브 전시장 및 프로파일 ····· 29
〈그림 3-2〉 미국 미술 아카이브 정기간행물과 디지털 프로젝트 ····· 30
〈그림 3-3〉 테이트 아카이브 갤러리 및 콜렉션 ····· 31
〈그림 3-4〉 테이트의 Digital Archive Corridor 및 온라인 콜렉션 ····· 32
〈그림 3-5〉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 자료실 및 온라인 콜렉션 ····· 33
〈그림 3-6〉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정보센터 ····· 39
〈그림 3-7〉 부산시립미술관 미술정보센터 ····· 42
〈그림 3-8〉 삼성미술관 리움 한국미술기록보존소 ····· 44
〈그림 3-9〉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의 주요 소장자료 ····· 45
〈그림 3-10〉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 46
〈그림 3-11〉 백남준아트센터 백남준 아카이브 ····· 47
〈그림 4-1〉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라이브러리 ····· 56
〈그림 5-1〉 수원 미술 아카이브 비전과 목표 ····· 92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문화유산 인프라로써 미술 아카이브는 미술과 관련된 가치가 있거나 증거가 되는 기록 자료를 수집 · 평가 · 분류 · 보존하여 유용한 정보로 제공하는 기관임
  - 즉,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미술 자료의 '수집 · 보존' 기능과 함께 미술 자료를 활용한 '연구', '전시', '사회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
- 문화예술 정보자료들의 아카이빙은 새로운 예술창작의 영감이 되고 지역문화콘텐츠 생산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 정체성과 지역경쟁력의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음
  - 즉, 지역 미술 아카이브는 작가와 연구자 및 큐레이터, 아키비스트 등이 교류, 협력하여 새로운 지역 예술을 창출하는 매개체이자 필수적인 인프라로써 주목받고 있음
- 수원은 역사적으로 나혜석 작가 뿐 아니라 홍득순 작가 등 근대 시기 작가와 컴아트, 슈룹 등 다양한 소그룹 창작 집단들이 다채로운 활동을 펼친 지역임
-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 작업 뿐 아니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축적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 수원미술 아카이브의 구축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수원지역 미술자료의 체계적 수집, 분류, 보관을 통해 창작과 연구에 필요한 원천 자료를 제공하여 수원미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 망실되고 있는 지역 미술 기록 유산의 보존을 통해 지역 미술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 미술과 관련한 지식을 축적할 수 있음
  - 작가는 수원미술 아카이브를 통해 새로운 예술 창작활동의 영감과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구자들은 수원미술 연구 활동의 기반을 제공받음

○ 작가와 연구자, 큐레이터와 아키비스트 간 교류와 협업을 통해 과거 수원의 미술사적 사건을 실증적으로 반추하고 새로운 지역예술 활동에 대한 창조적 기획을 촉진시킬 수 있음

■ 수원미술 아카이브 구축은 수원의 대표적인 미술 기관인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의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수원시립아아파크미술관의 수원 미술자료 콜렉션 구축을 통해 지역 공립 미술관으로써의 브랜드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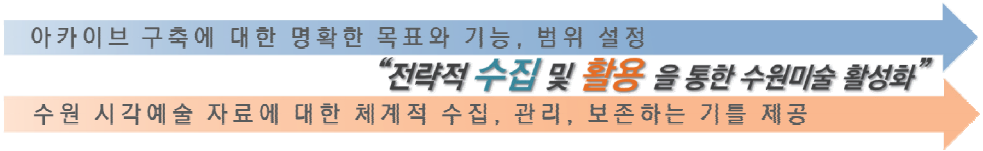
○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새로운 기획 전시 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일환으로 수원미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작가, 연구자 등 미술 관계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의 교류를 다변화할 수 있음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기대효과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를 통해 수원미술 아카이브 구축의 명확한 지향점과 범위, 체계를 설정하고 수원시의 시각예술 정보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 관리 · 보존하는데 기틀을 제공하여 수원미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수원미술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함
  - 수원미술 아카이브의 비전 및 목표 제시, 아카이브 구축 원칙과 필수적 제반여건 제시
  - 수원미술 아카이브의 초기 콜렉션 수집 전략 제시
  - 수집된 시각예술 정보자료의 등록관리 및 분류체계 설정, 아카이빙 방법 제시
  - 시각예술 정보자료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디지털화 방안 제시
- 본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음
  - 수원미술 아카이브가 수원미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체계와 형태로 설립되고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는가
  - 수원미술 아카이브의 특성화를 확보하기 위한 자료수집 전략은 무엇인가
  - 예술가·수집가·화상·비평가·출판인·박물관과 미술관·예술협회·화랑 등 예술 관련 기관의 원본 기록 자료를 보관하는 아카이브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즉, 작품 창작과 관련 있는 원본기록들, 왕래서신·일기·메모·소품·재무서류·비평문과 전시 카탈로그·포스터·초청장·사진 등의 전시 관련 기록 그리고 관련된 인물의 인터뷰나 증언 등의 아카이빙 전략은 무엇인가
  - 작품과 함께 회화·조각·건축·산업디자인을 위한 스케치·원본 삽화 등의 시각예술에 준한 작품자료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비평 및 연구, 교육·참고 목적을 위해 수집된 텍스트와 예술작품의 사진·인쇄물·필름 등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시각예술 정보자료의 광범위한 활용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림 1-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근·현대 시기(1896년 나혜석 탄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2) 공간적 범위

- 수원을 기반으로 하거나 수원과 관계하여 미술 활동이 이루어진 지역
- 이는 행정구역상 대체적으로 경기도 수원시 및 수원과 인접해있는 경기남부 문화권이주를 이루며, 미술 활동의 폭에 따라 국내 타 지역과 해외 교류 활동까지를 포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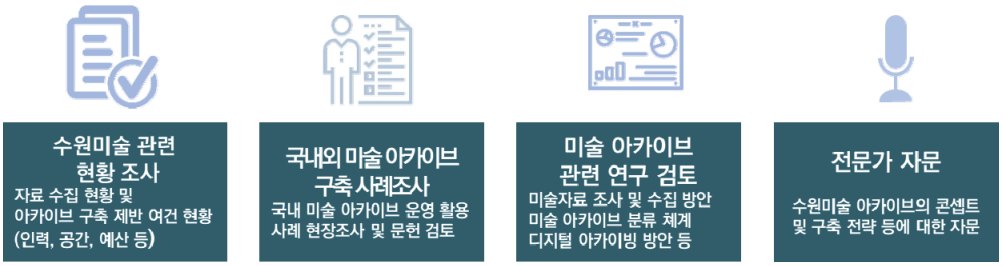
3) 내용적 범위

- 근·현대 시기 수원미술 전반
  - 미술운동(창작집단) : 지역을 기반으로 분명한 조형원리와 미술이념, 구체적 지향을 두고 발생한 자생적, 자발적 미술의 흐름
  - 미술가(창작가) : 지역 연고, 기반으로 창작활동을 펼쳐온 미술가
  - 장르(분야) : 회화, 한국화, 조각, 설치, 사진, 디자인, 공예, 뉴미디어, 판화 등으로 분류하되 연구사업의 목적과 방향에 따라 특정분야로 한정
- 매체별 미술 자료와 미술 아카이브 전반
  - 작품 창작과 관련 있는 원본기록들, 왕래서신·일기·메모·소품·재무서류·비평문과 전시 카탈로그·포스터·초청장·사진 등
  - 미술 아카이브의 구축과 체계, 운영과 활용 등

2. 연구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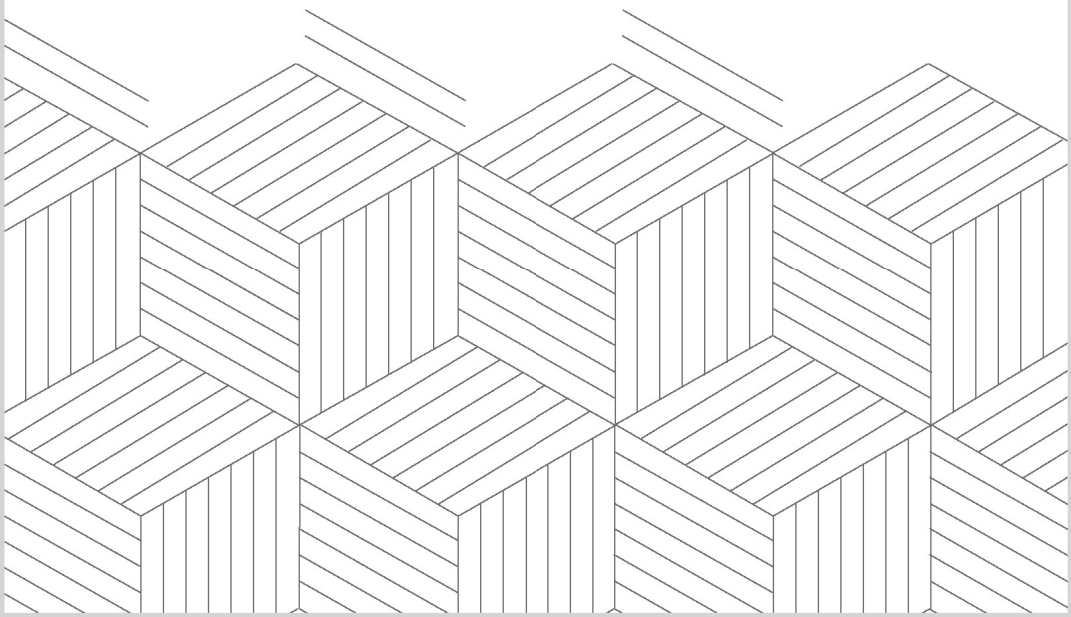
- ■ 수원미술 관련 현황 조사
  - ○ 수원미술 관련 자료 수집 현황 및 아카이브 구축 관련 제반여건 현황(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의 인력, 공간, 예산 등)
- ■ 국내외 미술 아카이브 구축 사례조사
  - ○ 국내 미술 아카이브 구축, 운영, 활용에 관한 현장조사 및 담당자 인터뷰
- ■ 미술 아카이브 관련 문헌 검토
  - ○ 국내외 미술 아카이브 관련 선행연구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 미술자료 조사 및 수집 방안, 미술 아카이브 분류 체계, 디지털 아카이빙 방안 등에 관련한 문헌 검토
- ■ 전문가 자문: 면담 및 자문회의
  - ○ 수원미술 아카이브의 콘셉트 및 구축 전략 등에 대한 자문
  - ○ 수원 지역 미술사 전문가 및 미술 평론가, 기록학 및 미술 아카이브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대상 회의 운영
  - ○ 연구진행 방향 점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 일대일 면접과 다대일 심층 인터뷰 실시
- ■ 사업 담당자 면담
  - ○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등 수원미술 아카이브 구축의 주요 사업 담당자 인터뷰

〈그림 1-3〉 연구의 방법



제2장
미술 아카이브 관련
이론적 배경

제1절 미술 아카이브 개념
제2절 미술 아카이브 프로세스



제2장 미술 아카이브 관련 이론적 배경

제1절 미술 아카이브 개념

1. 아카이브의 기본 개념

- 아카이브의 기본적인 의미는 영구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물 혹은 기록보관소를 뜻함
  - ① 영구보존자료를 선별, 수집하여 보존하는 장소 '기관'이며 ② 그러한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영구보존의 가치를 인정받아 선별된 '보존자료'(김달진, 2012)임
- 아카이브는 또한, 보존 자료의 선별과 평가 그리고 보존에 대한 책임, 보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행위나 작업의 일정을 의미함
- 참고와 연구목적으로 영구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들(Schellenberg eodore R, 2002)의 체계
- 아카이브 기관의 임무는 사료적 가치를 갖는 기록물들을 영구보관하고 기록물들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운영하는 것임(김철효, 2009)
  - 저장대상이 되는 기록물, 즉 아카이브 컬렉션의 특성은 일반적인 도서와 달리 비출판물이며 유일무이한 원본이라는 점임
- 아카이브는 복합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 보관 공간(장소)과 관련 기관, 보존 행위, 기록물 자체 등 다양한 의미
- 아카이브는 기록물에 대한 영구보존을 목적으로 함
  - 기록물에 대한 정보, 증거, 실물 가치평가가 중요함
- 기록물을 사용 가치와 생애 주기에 따라 크게 '현용기록'(사용하는 기록물), '준현용기록'(가끔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록물), '비현용기록'으로 나눔(박주석, 2018)
  - 원칙적으로 기록 생산자에게는 사용 가능성이 없는 기록물은 '비현용기록'으로 규정하는데, 아카이브는 '비현용기록' 중에 평가를 통해 보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을 다루는 기관 또는 기록물 덩어리임

- Respect des Fonds 원칙: 기록의 기원을 존중하여, 이를 기록물의 기본적인 분류 기준으로 삼는데, '원질서 존중의 원칙'에 근거한 '출처중심주의'에 따른 기록물의 분류 정리를 강조함
  - 최근에는 기록물 생산 조직 및 기관 변화와 부침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출처주의' 개념이 등장하였는데, 출처가 다르거나 바뀌었어도 그 기능이 같다면 동일한 출처로 취급해야한다는 견해임
- Principle of Provenance: 아카이브 분류, 기술 방식의 기준. ICA가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있는 Fonds(Record Groups) - Series – Files – Items – Documents 등으로 이어지는 계층 레벨 구성 방식의 분류기술 표준인 ISAD(G)가 이 원칙을 바탕으로 만든 대표적 사례임

2. 미술 아카이브의 개념과 특징

- 개인 및 미술관련 조직이 수행하는 미술활동의 과정에서 생산되어 관리하는 기록으로서 미술의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예술적, 학문적 자료에 대한 아카이브(김달진, 2012)
- 미술 아카이브란 '미술이라는 특정 활동을 통한 원형적 지식의 축적'임
  - 특정 활동이란 창작, 지원, 수용, 연구 활동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모든 미술 활동
  - 원형적 지식이란 재활용을 목표로 하는 미술사적 가치가 검증된 지식을 의미함
  - 축적이라 함은 앞서 이야기한 원형적 지식을 수집, 평가, 보관하는 일련의 아카이브의 역할을 의미함
- 한편 미술 아카이브란 미술사 측면에서 정보적 가치와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는 각종 미술 관련 기록물을 매체에 구분없이 수집, 평가, 분류, 보존하여 문화공공성의 차원에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시민과 연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임
- 보다 구체적으로 미술 아카이브 컬렉션의 품목을 나열하면, 개인이나 기관이 생성한 문서류(서신, 일기, 행사 관련 서류, 스크랩북, 회의록 등), 사진류(사진, 네거티브필름, 슬라이드 등), 그래픽류(초청장, 포스터, 도면, 프로그램, 스케치북 등), 오디오/비디오류, 사물류(상패, 기념품, 소품 등)등임
- 미술 아카이브는 준작품적 성격을 띠며, 작품과의 밀접한 연관성 및 다양한 매체로 구성된 컬렉션이라는 특수성을 가짐(김철효, 2009)

〈표 2-1〉 미술 아카이브 대상의 범주

활동 유형	기록의 범주
창작	- 예술작품의 창작과정 중에 생산되는 기록 (서신, 일기, 창작노트, 스케치북, 스크랩북, 사진 등) - 창작의 주체인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생산·접수한 기록 - 창작과정과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생산된 기록(구술기록 등)
전달	- 전시, 출판 등의 발표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포스터, 전시도록, 사진, 기념품 등) - 큐레이터, 미술관, 화랑, 출판사 등이 생산·접수한 기록(관련 행정서류, 회의록 등)
감상	예술작품 등에 대한 비평, 언론보도, 연구자료

자료 : 설문원(2011)에서 편집

- 다만 예술 활동은 예술작품의 창작과 전달, 감상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각각의 국면에서 매우 다양한 기록물이 생산되고 활용되기 때문에 그 종류나 수집 방법을 특정하기는 매우 곤란하며, 각각의 실물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
- 예술작품의 창작, 전달, 감상의 각 단계마다 서로 상이한 주체에게서 기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의 체계적이고 완전한 수집을 위해서는 생산 주체가 수집의 주체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고,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주체가 수집 활동에 개입하게 되면 보다 안정적인 수집과 보존이 가능할 것임
- 예술기록은 그 종류를 특정하기 어렵고, 다양한 생산 주체에게서 매우 다양한 기록물이 생산되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서 관련 기록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이호신 외(5명), 2015)
- 관련 기록물 확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만들어진 과정과 맥락 그리고 사회와의 소통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 관리를 통해서만이 미술 작품을 둘러싼 전 과정의 이해가 가능하며 원형의 파악과 재현이 가능함

〈표 2-2〉 아카이브, 도서관, 미술관의 개념적 차이

구분	아카이브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단일형	수집형		
목적	증거 정보 조사, 연구	증거 정보 조사, 연구 교육	정보이용 조사, 연구 교육 교양 문화발전	연구 교육 향수
기능	수집 평가, 분류 보존 제공	수집 평가, 분류 보존 제공 전시 연구, 출판	수집 정리, 분류 보존, 축적 제공	수집 평가, 분류 보존 제공 소통, 전시 연구, 출판 개발
소장품	기록자료 (document, archives)		인쇄도서/출판물 발행자료	실물자료
소장품 성격	유일성/원본성 증거, 정보적 가치		다수성 정보 가치	유일성/원본성 예술적 가치
수집	소속기관 이관	다수 원천 수증	다수 원천 구입	다수 원천 구입, 수증
평가	소속기관의 가치	사적, 정보적 가치	정보적 가치	예술적 가치
분류	출처의 원칙, 원질서의 원칙		주제 분류체계	시대, 주제, 재료, 작가 등
보존	o	o	o	o
제공	o	o	o	o

자료: 김기현, 「아트 아카이브의 국내도입을 위한 연구」, 2001

- 위 〈표 2-2〉를 통해 대표적인 문화유산기관 유형인 아카이브, 도서관, 미술관 간에 여러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차이는 소장품을 '분류'하는 방법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분류 방법의 차이는 각 기관의 성격과 목적, 소장품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서로 다른 전통에 의해 만들어져 왔기 때문임(박주석, 2018)
  - 도서관은 백과사전식으로 미리 결정한 주제 중심의 '분류체계'에 따라 개별 항목으로 분류, 기술함. 이는 다수로 생산하고 발행한 책과 같은 인쇄물 중심의 소장품을 주로 관리하는 기관의 특징을 반영한 것임

- ○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구성된 문화재, 유물, 작품 등의 소장품을 각각의 개별 '프로그램'에 따라 분류하고 기술하는 방법을 사용함. 이는 원본성을 중심으로 소장품의 인류학적, 역사적, 미학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기관의 특징을 반영한 것임
- ○ 기록관(Archives)은 전통적으로 기관이 수집한 소장품의 기원과 출처에 따라 분류하고 기술함. 이는 콜렉션의 증거적 가치를 중요시 해온 전통에 기인하는데, 역사적 기록물을 보존하고 관리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자 및 정책 결정자 등에게 정보와 증거를 제공하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임
- ○ 미술 아카이브는 도서관 자료와는 달리 원본으로서 증거적 가치와 정보적 가치를 지님
- ○ 아카이브의 기록물은 기록물이 생산된 출처에 따라 원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분류해야함

3. 미술 아카이브의 가치와 의미

- ■ 미술 아카이브는 연구와 학술적 기능, 교육적 역할,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의 역할,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만드는데 필요한 원천 재료를 제공하는 기능, 미술관련 기관 및 제도의 투명한 경영과 책임행정을 유도하는 기능 등을 수행함
- ■ 미술 아카이브는 미술 활동에 대한 다각적 이해를 돕는 기초적인 자료를 작용하므로 지역미술 연구의 토대로 기능함
- ■ 미술 아카이브의 구축은 '예술과 사회'에 대한 지역에서의 능동적 개입과 창작 활동임
  - ○ "큐레이터든 미술평론가든 또는 미술사가든 자료의 공유를 위한 아카이브 기증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작은 미술아카이브 연구소들도 더 많이 생겨야 한다. 지역과 지역을 네트워크하는 아카이브 연구자들이 나타나야 한다. 곳곳에 미술아카이브 공간들이 생겨나면 자연스럽게 연구자들의 연구도 깊어질 것이다. 다양해질 것이다. 한국미술계가 더 풍요로워지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미술아카이브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이유다."(김종길, 2012)
- ■ 미술 아카이브는 특정한 미술 활동이 이루어진 경위와 내력을 기록,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함
  - ○ "아카이브는 기록물이 생산되고 활용된 맥락을 온전하게 보존해서 특정한 활동이 이루어진 경위와 내력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소장품 성격이 유일성과 원본성이 중요시되며 증거와 정보적 가치가 높다. 이점이 도서, 인쇄물 중심의 도서관 또는 자료실과 아카이브가 크게 구별되는 지점이다. (...) 이제 미술 아카이브는 국가의 유산이고 공공의 기록물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카이브 시스템은 그 나라의 문화수준이고 문화적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기록문화에 대한 필요와 가치평가를 강조하며 아카이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김달진, 2009)

- 미술 아카이브는 특정한 가치판단의 산물임. 즉, 특정 관점을 가지고 대상을 해석하고 선별, 보관하는 과정임
  - "'아카이브'라는 말은 그리스어 '아르케'에 어원을 두고 있으며, 아르케는 '시작하다'와 '지배하다'는 뜻을 동시에 지닌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통치권자들은 아카이브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 주고 필요에 따라 폴리스 시민들에게 자유로운 해석의 자료로서 공개했다. 그러나 애초에 선별되고 보관되는 과정이 아카이브를 만든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모든 아카이브는 언제나 누군가의 관점이 개입된 구축물임을 알 수 있다.” (박영선, 2013)
- 미술 아카이브는 큐레이터와 아키비스트의 협업을 통한 보다 깊이 있는 큐레이팅이 가능해짐
  - 미술사 연구자들은 아키비스트들로 하여금 자기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미술사적 차원에서 어떤 위치와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작품에 관한 미술사적, 미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답례로, 아키비스트들은 작품 또는 기록물에 대한 정보검색의 방법과 내용 그리고 중요성에 대한 큐레이터의 이해를 확대시킬 수 있다."(Greg Spurgeon, 2013)
- 한편, 작가의 창작 스타일이며 창작과정으로서의 아카이브 방식이 도입되기도 함
  - “과거 아카이브가 '자료' 객관적인 '도큐멘테이션'개념으로 사용된 것에 반해, 오늘날의 미술가들은 아카이브를 작품제작의 틀, 과정, 방법으로 사용하며, 객관성의 본질조차 의문시 한다. 이와 더불어, 아카이브는 현대미술의 수사학으로 등장했다. 과거 미술가들의 '회고전'에서 볼 수 있었던 전시형 아카이브는 오늘날 미술가들이 전략적으로 자신이 구축한 도큐먼트를 중심으로 프로세스 형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정연심, 2013)
  -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아카이브(archive as database): 아카이브란 보존을 위해 어떤 기록(document)을 유의미한 정보의 형태로 축적해놓은 양태를 일컫는다. 그런데 정보 기술이 발전하고 컴퓨팅 기술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은 아카이브를 데이터베이스로 인지하게 됐다. '거의 즉시 접근하고 쉽게 수정할 수 있는 형태로 축적해놓은 유동적 정보'로 아카이브를 다시 바라보게 됐다는 뜻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환은, 아카이브를 현대미술의 새로운 형식으로 활용하도록 작가들을 추동했다."(임근준, 2013)

- 미술 아카이브는 각 분야의 전문 인력들과 함께 보존을 위한 설비, 정보 제공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는 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
- 하지만 미술 아카이브는 투자비용 대비 적정규모의 시장을 가질 수 없는 '비시장성'의 특성을 갖는다. 즉, 미술 아카이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자금을 시장으로부터 취득하기에는 시장규모가 너무 작음
- 그럼에도 미술 아카이브가 갖는 공공적 가치 -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널리 보급함으로써 공공에 이익 - 를 인식하여 공공부문에서 설립 운영을 하고 있음
- 그러므로 아카이브가 그 가치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장기적 관점과 태도가 필수적임을 유념해야 함
  - “해외 기관에 비해 아카이브의 역사가 짧은 국내 미술관은 아카이브의 구축과 동시에 그 활용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아키비스트 및 관련 연구자들이 선진적인 미술기관 아카이브에서 근본적으로 눈여겨봐야할 점은 아카이브 대상이 되는 미술 자료를 대하는 그들의 기본적인 태도이며, 이 태도가 곧 시스템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카이브는 시스템만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인력의 육성, 교육, 활용 등에 대한 정책도 선행되어야 한다.”(이지은, 2014)
  - “국가 기관인 아르코의 뒤늦은 자기 역사 정리는 과거보다 현재의 성과에 집중하는 우리 사회의 부실한 기록문화를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 우리 화단의 과거사 복원의 배후에는 당장의 성과에 집중하고, 압축 성장과 시대의 유행에 집중하는 공동체의 집단 무의식을 향한 자성이 작용해서 일게다."(반이정, 2014)

제2절 미술 아카이브 프로세스

1. 미술 아카이브 수집대상

1) 시각예술의 범위

- 예술 활동은 예술작품의 창작과 전달, 감상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각각의 국면에서 매우 다양한 기록물이 생산되고 활용되기 때문에 그 종류나 수집 방법을 특정하기는 매우 곤란하며, 각각의 실물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

2) 시각예술 자료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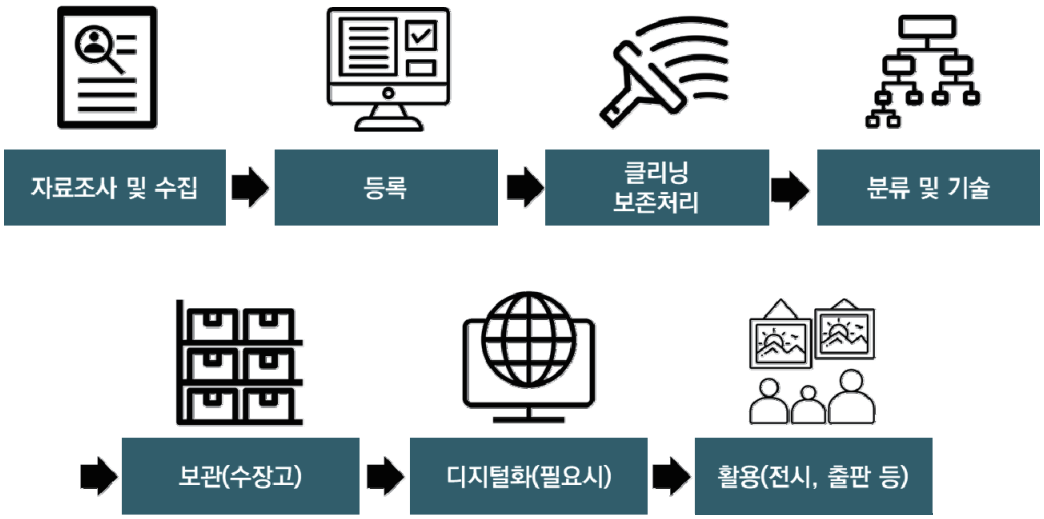
- 문서류: 서신, 일기, 행사 관련 서류, 스크랩북, 회의록 등
- 사진류: 사진, 네거티브필름, 슬라이드 등
- 그래픽류: 초청장, 포스터, 도면, 프로그램, 스케치북 등
- 오디오/비디오류
- 사물류: 상패, 기념품, 소품 등
- 특히 미술 아카이브는 준작품적 성격, 작품과의 밀접한 연관성 및 다양한 매체로 구성된 컬렉션임
  - 작가의 생애 동안 예술협회, 가족, 친구로부터 온 개인편지
  - 갤러리, 딜러, 수집가, 비평가, 협회, 기관으로부터 사무적으로 온 서신
  - 보낸 편지의 원본 및 복사본
  - 주제에 관한 아이디어, 활동, 여행, 판매, 전시, 선택의 시각을 보여주는 일기 혹은 일지
  - 스케치북, 자유로운 스케치와 연구
  - 작업뿐만 아니라 테마가 된 가족, 친구, 작업실에 관한 사진, 슬라이드, 필름, 비디오 테잎
  - 강연, 연설, 출판 혹은 처음부터 초고까지의 출판되지 않은 논문
  - 녹음테이프
  - 스크랩북, 기사모음, 전시 카달로그, 전시인사말
  - 교육교재, 강의노트, 리포트, 해설, 비평
  - 조사 파일
  - 청구서, 영수증, 대장을 포함하는 회계장부

- 생산 맥락과 관련하여 창작행위의 과정과 결과로 생산된 기록
  - 창작자나 창작 집단이 사용한 도구를 비롯하여 드로잉, 스케치 등 그 과정 기록 및 작품 그 자체, 그리고 창작자 등의 생애와 관련된 기록
- 미술 관련 조직의 활동 과정과 결과로 생산된 기록
  - 작품 등이 전시를 위한 목적으로 이동하거나 대여 혹은 판매되었을 때 생산되는 각종 과정 기록과 활동 기록
- 연구활동을 통해 생산된 기록
  - 작품, 창작자, 창작집단에 대한 연구 및 비평 활동을 통해 생산된 기록

2. 아카이브 작업 흐름도

- 아카이브 구축을 작업은 먼저 자료 조사 및 수집을 시작으로 자료의 등록과 클리닝, 보존처리 작업을 거쳐 자료의 목록화와 기술, 자료의 보관(수장고), 디지털화(필요시), 자료의 활용(열람, 전시, 출판 등) 단계로 나눌 수 있음

〈그림 2-1〉 아카이브 작업 흐름도



자료: 김인혜,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 아카이브 운영 구상」, 2011.

1) 자료조사 및 수집단계

(1) 수집대상에 대한 조사연구 단계

- 수집하고자 하는 대상과 범위 설정, 발생 가능한 예상 기록물 파악, 현재 해당 기록이 소장되어 있을 잠재적인 소장처를 분석해야 함 즉, 수집 예상 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는 단계임
- 기획된 수집목표와 범위를 고려하여 수집분야에 대한 연구동향과 해당 분야의 개인, 단체, 사건 등에 대한 연구조사를 진행

(2) 리드 개발을 통한 수집계획단계

- 리드(Lead)란 수집하고자 하는 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해당 기록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장처 혹은 소장자와의 접촉상황과 수집현황에 대해 정리한 내역임
- 사전 조사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리드파일로 정리 후 계속 갱신
- 리드 파일: 리드 개발활동의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수집 가치가 높거나 수집 가능성이 높은 수집 대상을 탐색, 접촉하기 위한 정보들을 항목별로 취합하여 정리한 파일
  - 기록의 잠재적 기증자, 기록물의 현소장자, 접촉대상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해당 기록과 관련한 기록생산자의 주요 기능(혹은 활동), 기록생산자의 기능(혹은 활동)과 기증자가 소장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록물 간의 관련성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담음
- 케이스 파일: 기록물 수집과정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한 리드를 바탕으로 소장자/소장처와 접촉한 과정과 진행사항을 항목별로 취합, 정리한 자료
- 동일한 리드 대상자를 접촉하더라도, 케이스 파일은 매 만남마다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케이스파일과 리드를 함께 작성하여 관리하면 기록물 수집의 진행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

(3) 수집실행단계

- 수집실행단계에서는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잠재적 기증자에게 기록물의 수집방법별로 그 조건과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기록물 소장자와 협상 기록물을 수집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기증(사본기증)·위탁·구입·구술채록 등이 있다.

- 수증: 소장자와의 직접 접촉을 통해 기록물에 대한 법적, 물리적 권리를 보상하지 않고 이전 받는 것임
  - 예술기록을 기증받을 때는 자료에 대한 법적 권한을 성문화하는 것이 필요
  - 소장자가 기증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료를 기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록물 수집프로그램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 기관의 자료보존시설 구축 및 복원기술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위탁: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료의 처리에 대한 해당기관의 의무사항 및 처분권한 및 관리권한, 이용권한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구입: 자료구입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소장자가 자료의 법적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 또한 자료의 법적 권한을 구입계약서에 상세히 기술해야 함
- 구술채록: 구술기록은 일반적으로 주관성과 개인성을 띄고 있으므로, 구술채록 후에는 면담내용에 관한 진위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예술 장르별 전문가의 확인 작업이 후행되어야 함
- 이와 같이 수집실행단계에서 입수된 기록물은 입수된 기록물에 대한 수집과 관련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소장기록목록에 기록소장자와 기록수집방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 관리해야 함

(4) 수집 후 관리 및 평가

-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 예상 소장처를 접촉했지만 그 결과가 수집하고자 했던 예상 기록물과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록물의 상태를 고려한 수집실행여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효율적인 기록물의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음
- 평가 가이드라인의 평가요소 영역은 기록 및 이미지 기록의 평가기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기능영역, 내용영역, 예술영역, 이용영역, 비용영역 등 다섯 가지 영역으로 설계함
  - 기능영역: 미술기록의 생산배경 및 기능적 맥락을 평가하는 영역
  - 내용영역: 미술기록의 내용의 중요성 및 질을 평가하는 영역
  - 예술영역: 미술기록의 실물가치 및 예술성을 평가하는 영역
  - 이용영역: 미술기록의 이용성과 이용 제한사항을 평가하는 영역
  - 비용영역: 미술기록의 보유비용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영역

2) 기록물의 분류

- 분류의 필요성: 분류는 기록생산자의 활동내용과 흐름이 지닌 맥락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임
- 기록물을 출처주의와 원질서 존중 원칙에 따라 계층별로 조직화하는 지적, 물리적 처리 과정으로서 논리적으로 기록을 분류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기록물의 아카이브 이관 후 기록을 보존 용기에 재배치하는 과정을 의미함
- 분류는 기록물의 검색을 지원하고, 기록이 수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 예상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실시함
- 시각예술 기록 분류의 어려움: 시각예술기록의 경우, 기록을 생산한 작가 개인의 삶과 작품, 작업방식에 따라 기록물의 질적, 물리적 상태가 다양함
-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록과 달리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존재하기 어려움
- 또한 작가 개인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 있는 시각예술기록의 분류를 위해서는 작가의 생애조사와 작품세계에 관한 선행 연구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원질서가 없을 때에는 아키비스트가 하나의 질서를 세워야 함
- 기록의 계층별 분류: 기록의 맥락을 확인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기록의 계층별 분류가 필요함
  - 기록의 계층구조는 기본적으로 Record Group(관리할 대상 규정), Series(1차 분류), File(2차 분류), Item으로 나눠볼 수 있음
- 아카이브에 작품 포함 여부
  - 김철효(미술사가, 아키비스트)는 미술기록에는 미술작품과 관련된 모든 자료, 기록과 정보가 포함되지만 제일 중요한 '작품'은 그 범주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함
  - 반면에 김달진(아키비스트)과 이호신(아키비스트)은 미술작품은 구체적인 형상을 띈 실물로서의 '작품'이 존재하므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미술기록은 바로 '작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 기록물 분류관리의 주요 원칙
  - 출처주의: 기록의 본래 맥락을 유지하기 위해 기록을 그것이 생산된 출처(기관이나 개인)에 입각하여 관리하는 기록관리의 기본 원칙 중 하나
  - 원질서 존중 원칙: 기록에 부여된 질서를 통해 기록이 담고 있는 의미와 증거를 효과적으로 유추하고, 기록의 활용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록 관리의 기본 원리

- ○ 기록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질서를 유지해야 기록과 기록 간의 관계, 기록과 관련한 업무 흐름과의 관계, 기록과 기록관련 인물 혹은 가문, 단체의 변천사에 따른 맥락관계 등 의미 있는 증거 추론 가능
- ○ 기록 생산자가 만든 본래의 구조를 활용하면, 보존 기록관이 기록의 이용에 필요한 새로운 접근 도구를 만드는 데 더욱 효율적. 기록 관리와 이용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데에도 도움
- ○ 서로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기록들은 비록 그것들이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거나 비슷한 업무에 관한 기록물이라 할지라도 함께 섞여서는 안된다는 의미
- ○ 시각예술 분야의 작가 기록물과 같은 개인 기록물의 경우에는 기관의 일정한 업무절차를 통해 생산된 기록물과 달리, 일관성이나 질서가 없는 상태로 입수되기 쉬움
- ○ 이때는 기록관리 주체인 아키비스트가 기록의 맥락을 알고 있는 기록 생산자나 기록물 자체를 면밀하게 연구하여, 해당 기록물에 알맞은 질서를 직접 부여해야 함
- ○ 기능적 출처주의: 현대사회의 변화하는 움직임에 맞춰 기존의 출처주의가 수정된 형태로 발전된 것. 빈번한 조직개편과 디지털 환경으로 인한 기록관리 방식의 변화에 따라, 기록을 생산하는 조직이나 부서 자체를 기록의 출처로 보지 않고, 그곳의 기능이나 활동을 기록의 출처로 규정하는 것

3) 기록물의 기술

- ■ 기술의 필요성: 기록을 위한 검색 도구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를 생산하는 과정 혹은 그 결과, 전체 기록과 컬렉션의 구성을 보여줌
- ■ 기록물을 식별하고 기록물이 생산된 배경과 기록관리 시스템을 설명하는 정보를 포착, 대조, 분석, 조직하는 과정을 통해 기록물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 ■ 현재와 미래에 기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기록을 검색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 ■ 시각예술기록물의 기술: 기록물의 유형과 특징에 상관없이 공통된 기술요소로 기술되는 일반 행정 기록물과 달리 다양한 유형과 특징을 지님

4) 기록물의 보존 및 복원

- ■ 기록의 안전한 수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물리적, 기술적인 모든 제반행위를 보존이라 함

- 보관 시설에는 최소한의 항온항습 및 해충제거(자료 훈증소독 등) 환경, 방재장치를 마련해야 함
  - 인쇄자료, 필사본, 사진자료 보존을 위한 중성 박스, 중성 비닐, 중성 봉투, 기타 기자재 설비가 필요함
  - 손상 자료 복원을 위한 간단한 설비: 곰팡이 및 얼룩 제거 용액, 한지, 중성풀, 증류수 등이 필요함
- 재난의 종류에 따른 대응책, 보존환경 및 시설과 설비, 보존처리 프로세스, 보안대책과 방법론 등의 항목별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함
- 각 매체에 맞는 별도의 계획 수립 필요: 종이류, 사진 및 필름류, 자기 및 광매체류 등
  - 소장품의 종류에 따른 각각 상이한 보존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구획을 정비해야 함
- 열람실의 구성은 문헌자료 이용과 시청각 자료,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 이용 공간을 분리해야 함
- 복원은 훼손된 기록의 외관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화학적, 물리적 조치를 의미함
  - 이 분야는 화학적, 물리학적 지식이 필요한 전문영역으로 아키비스트는 관리의 방법을 숙지하고, 실행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법이 바람직함
- 게티미술연구소의 경우, 연구소 내 수장고에 미술 기록물을 보관함
  - 시각예술 아카이브 자료는 다양한 매체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자료는 특성에 따라 나뉘어 보관하는데, 매체별로 4가지 온도로 구분하여 분리 보관하고 있음
  - 일반적인 자료는 보관 전용 박스에 보관하며, 박스에 수납할 수 없는 대형 평면자료는 (건축 도면 등)는 롤에 말아서 보관함. 대형 입체자료(건축 모형 등)는 특별히 제작된 보관박스를 사용하고 있음

〈표 2-3〉 게티미술연구소의 매체별 수장고 환경

수장고 온도	보관 자료	비고
10℃	종이류(manuscript)	
0℃	흑백사진, 컬러사진	
-18℃	특수 컬러사진, 필름 등	
18℃	분류, 열람 시 자료 보관	임시 수장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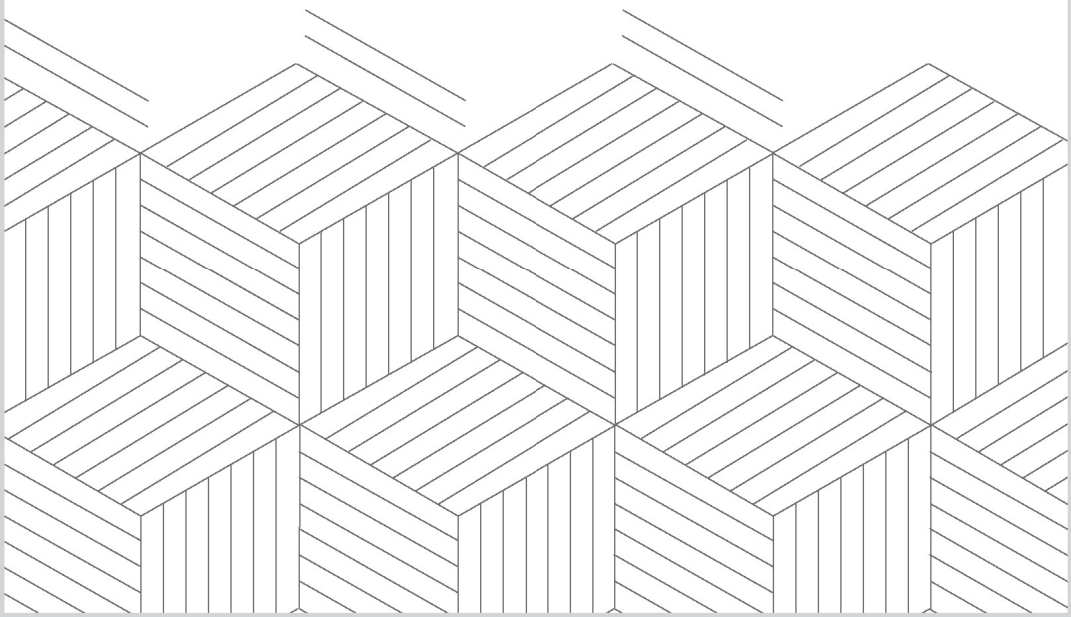
출처: 류한승, 〈미술 아카이브의 구축 및 운영 사례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24집, 2012.

5) 아카이브의 활용

- 미술 기록물의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 요구에 충실한 프로그램 제시를 위해 이용자 그룹별로 적용 가능한 활용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함
- 기초 콘텐츠의 구성: '기록을 재료로 한 대상의 재현물'을 구성하여 잠재적 이용자들이 기록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을 재구성하고 관련정보를 부가하여 디지털 형태로 제공함
- 미술 기록물 자체를 강조한 활용 프로그램 개발
  - 연구: 지역 혹은 국내외 예술자료를 조사·연구·보급하고 희귀, 소멸자료의 발굴 및 재생을 통하여 예술연구를 시행함
  - 출판: 소장 자료를 활용한 출판 – 컬렉션 관련 책, 전시도록, 번역서, 정기학술지 등을 출판하는데 활용 가능
  - 전시: 예술의 역사 연대별 전시와 장르별 전시 등 다채로운 기획 전시와 예술가 개인별 전시 및 자료관 구축 가능
  - 사회교육: 예술아카이브는 출판·강좌·체험 교육 및 일반 시민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워크숍을 통하여 문화예술전문가 양성에 활용함
  - 커뮤니티: 아카이브를 기반 삼아 미술관이 연구자들의 지적 네트워크를 매개하는 플랫폼 역할 수행에 활용함

제3장
국내외 미술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사례

제1절 해외 미술 아카이브 사례
제2절 국내 미술 아카이브 현황
제3절 국내 미술 아카이브 현장조사
제4절 시사점



제3장 국내외 미술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사례

제1절 해외 미술 아카이브 사례

1. Smithsonian Institute Archive for American Art(미국)

■ 목적

○ 미국 시각예술 역사에 대한 일차적인 자료들은 보존하고 기록함

■ 기관 개요

○ 1954년 디트로이트 미술연구소(Detroit Institute of Arts)에서 설립

○ 1970년 스미소니언 인스티튜션(Smithsonian Institution)에 병합

○ Lawrence A. Fleischman Gallery(Washington DC 소재)에서 아카이브 전시

■ 주요 수집 자료

○ 2천만 개가 넘는 개인 및 기관 기록물 : 미국 내에서 활동한 아티스트, 콜렉터, 딜러, 평론가, 관련 기관에 대한 원본 자료들로 서신, 일기, 사진, 스케치, 필사본을 비롯해 영상 및 음성 파일 등 6천개 콜렉션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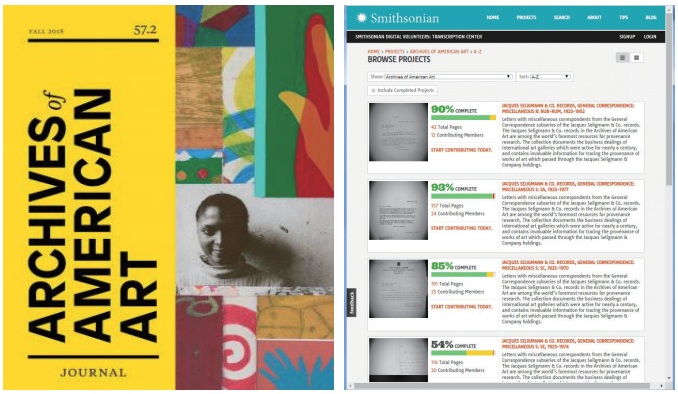
○ 구술사 콜렉션 : 미국 미술사 주요 인물들의 인터뷰 음성 파일 및 서면 기록(2천여 개)

〈그림 3-1〉 미국 미술 아카이브 전시장 및 프로파일

자료 : https://www.aaa.si.edu/about/

- 주요 활동
  - 콜렉션 자료를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관하여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에 주력
  - 아카이브 기획전 전시
  - 출판 활동 : 〈미국 미술 아카이브 저널(Journal of American Art)〉, 지역별 리서치 가이드(Regional Research Guide) 등
- 기관의 특징
  - 공공 자산으로서의 아카이브를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목표
  - 아카이브의 활용도와 기능, 가치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전시, 출판, 연구 활동 진행
  - 소장품 및 아카이브 콜렉션의 디지털화를 핵심 사업으로 삼고 아날로그 자료의 보존성과 접근성을 증대

〈그림 3-2〉 미국 미술 아카이브 정기간행물과 디지털 프로젝트



자료 : https://www.aaa.si.edu/about/

2. Tate Library and Archive(영국)

- 목적
  - 1900년부터 현재까지의 영국 미술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
- 기관 개요
  - 1970년 설립
  - 영국 미술에 대한 아카이브 : 영국 출신 작가뿐 아니라 특정 기간 영국에서 활동한 작가까지 포함하여 영국 미술의 역사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작가를 망라함

○ 사전 예약에 의해 도서 및 아카이브 자료, 공공기록물 열람

〈그림 3-3〉 테이트 아카이브 갤러리 및 콜렉션

자료 : https://www.tate.org.uk/art/archive

■ 주요 수집 자료

○ 900명 이상의 작가에 대한 콜렉션

○ 750여개 이상의 컬렉션 형태의 자료 : 각종 서신과 개인 일기, 노트, 저작물, 보도자료와 인쇄 홍보물, 스케치북과 아트북 시리즈, 작가가 직접 디자인한 포스터 모음(TAPcollection), 3천개 이상의 시청각 자료(TAV collection), 작가와 그들의 스튜디오 현장을 담은 10만여 개 이상의 사진 이미지 모음(Photographic collection)

○ 미술관 역사 기록물 : 테이트의 모든 활동과 행적을 보여주는 행정문서, 기획전시화 주요 소장품 관련 자료, 역대 관장들의 서신, 테이트 이사회 회의록 등

■ 주요 활동

○ 테이트의 전시, 교육, 소장품에 관한 장단기 학술 연구 프로젝트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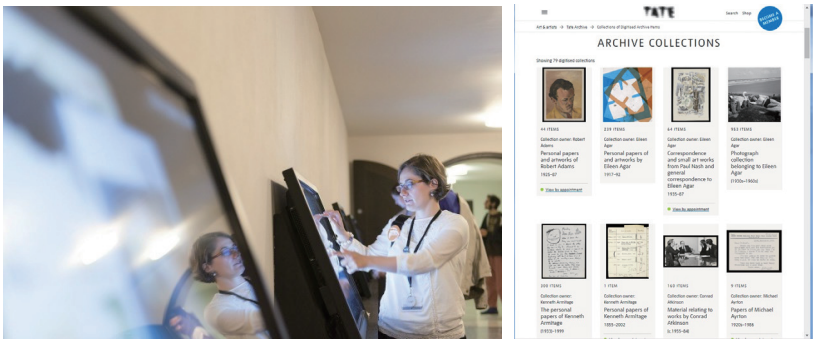
○ 다양한 주제의 컨퍼런스와 심포지엄, 강연, 워크숍 등을 통해 동시대 미술의 주요 담론 공유

■ 기관의 특징

○ 연구 활동 : 다양한 형태의 연구 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아카이브 콘텐츠를 능동적으로 생산

○ 온라인 아카이브 : 2007년부터 온라인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프로젝트 본격화

〈그림 3-4〉 테이트의 Digital Archive Corridor 및 온라인 콜렉션



자료 : https://www.tate.org.uk/art/archive

3. Asia Art Archive(홍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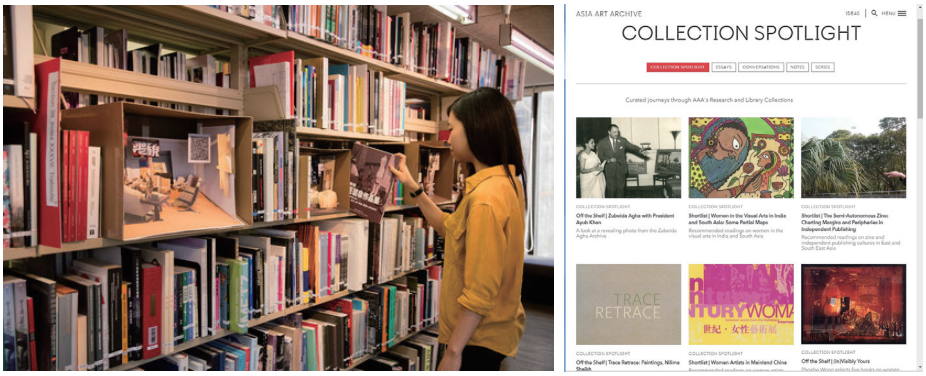
- 목적
  - 아시아의 최근 예술에 대한 지식 수집, 창작 및 공유를 통해 세계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촉매로서 기능하고자 함
- 기관 개요
  - 2000년 Claire Hsu와 Johnson Chang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기관
  - 이사회는 홍콩 내 예술 및 비즈니스 분야의 저명인사로 구성
  - 자문위원은 전세계 38명의 유명 큐레이터와 비평가로 구성
  - 개인, 기업, 재단 및 정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후원으로 재정 운영
  - 미국과 인도의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는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운영
- 주요 수집 자료
  - 34,000여 점의 온,오프라인 자료
  - 책, 전시 도록, 시청각 자료, 희귀 정기 간행물, 인터뷰 자료, 개인 아카이브 등의 1차, 2차 자료
- 주요 활동
  - 장단기 리서치 프로젝트 : 특정 주제나 기간에 해당하는 특화된 아카이브를 구축
  - 리서치 프로젝트와 이어지는 국제적 규모의 심포지엄과 관련 출판 사업
  - 온라인화 : 2012년 6월 오픈
  - 기타 : 리서치 기금 지원, 아티스트 레지던시 운영, 미술계 주요 인사 인터뷰 진행, 전시기획,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워크숍 개최 등

■ 기관의 특징

○ 물리적인 기록과 보관의 기능을 넘어서는 능동적이고 통섭적인 형태의 아카이브 활동을 목표로 함

○ 아시아 미술에 대한 인식 제고 : 한 국가의 한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복합성, 서양 편중적인 시각에 의한 저평가 및 왜곡

〈그림 3-5〉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 자료실 및 온라인 콜렉션



자료 : https://www.aaa.org.uk

〈표 3-1〉 해외 미술 아카이브

기관	개 요	소재	개관
Smithsonian Institute Archive for American Art	• 미국 시각예술 역사 자료의 보존과 기록 • 2천만 개가 넘은 개인 및 기관 기록물, 구술사 콜렉션 •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아카이브 기획전, 출판 등	미국 워싱턴 디씨	1954
Tate Library and Archive	• 1900년 이후 영국 미술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 • 900명 이상의 작가 콜렉션, 미술관 역사 기록물 등 • 테이트의 전시, 교육, 소장품에 관한 학술 연구 프로젝트, 다양한 주제의 컨퍼런스, 심포지엄, 강연 등	영국 런던	1970
Asia Art Archive	• 최근의 아시아 예술에 대한 자료 수집 • 책, 전시도록, 시청각 자료, 인터뷰 자료, 개인 아카이브 등 34,000여 점의 온·오프라인 자료 • 장단기 리서치 프로젝트와 이어지는 국제 규모 심포지엄, 출판 사업 등	홍콩	2000

4. 시사점

- 대규모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여건 마련
  - 미술 연구자 및 아카이브 운영 프로세스 단계별 전문가 다수 배치를 통한 운영 전문화
- 자료를 수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생산'하는 활동 병행
  - 리서치 프로젝트를 통해 자료 수집 및 생산(구술사 프로젝트 등)
- 과거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 못지않게 현재의 활동에 대한 것을 자료화
  - 현재 전시나 활동에 대한 자료 수립 및 기관의 활동 자체에 대한 자료 보존
- 아카이브를 공공자산으로 인식
  - 자료를 축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료의 활용, 접근성 증진이나 서비스 등을 모색
-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다양한 활용
  - 자료를 이용한 기획전시, 연구, 학술행사 등을 통해 공유하고 발전
- 디지털 및 온라인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
  - 디지털 자료를 통해 폭넓은 대중 서비스 제공
  - 디지털 원본과 관련정보를 연계하여 서비스함으로써 미술관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자 함
- 모 기관의 역사를 도큐멘테이션하기 위해 연구 및 업무 활동을 펼친 직원들의 기록을 관리한 활동에도 적극적임

제2절 국내 미술 아카이브 현황

■ 주요 국내 공립기관 아카이브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 아카이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미술연구센터와 서울 디지털정보실, 부산시립미술관 미술정보센터, 백남준아트센터 아카이브 등이 있음(기관별 정보는 아래 〈표 3-2〉 참조)

〈표 3-2〉 국내 공립기관 미술 아카이브

기관	개 요	조직	소재	개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	• 예술기록·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 연극, 무용, 음악 등 공연예술과 시각예술분야의 도서, 인쇄, 영상, 음향 및 실물자료 등 수집, 보존	국립	서울	1979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 아카이브	• 아시아 48개국의 전통 음악, 무용, 연희, 건축, 공연, 사진 및 예술품에 이르는 문화자원(컬렉션 및 아이템)을 조사·수집·관리·보존 • 아시아의 인문·사회·예술 분야의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진 〈전문주제 콜렉션〉, 개인이 기증한 자료의 〈개인 콜렉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과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록 자료들을 수집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콜렉션〉	국립	광주	2014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미술연구센터 서울 디지털정보실	• 한국 및 아시아 근현대 미술의 이해와 연구를 위한 미술자료의 관리·보존, 연구 활동 지원, 미술정보 서비스 등 • 한국 근현대미술가들의 스케치, 드로잉, 작가노트, 사진, 편지, 브로슈어 등 미술자료 및 미술관의 주요활동(전시, 교육, 연구 등)과 관련되어 생산된 자료, 비디오 아티스트의 영상 아카이브 등	국립	경기	2013 2014
부산시립미술관 미술정보센터	• 부산의 1세대 판화가이며 교사이자, 미술 이론가인 이용길 선생의 기증으로 10톤 트럭 1대 분의 부산 지역 미술 자료 확보 • 1945년 해방 직후 부산 미술관련 자료, 기사 스크랩 100여 권, 미술 서적 1만여권 등 • 최근에서야 담당 아키비스트가 채용되어 자료 정리 과정에 있음	공립	부산	2007
백남준아트센터 라이브러리 &아카이브	• 백남준과 그의 작품세계에 대한 자료, NJP아트센터의 역사적 기록과 활동 자료 보존 • 서신과 사진, 전시 자료, 오브제 등의 백남준의 동료 아티스트나 엔지니어, 지인의 원자료콜렉션, 비디오 아카이브콜렉션(2,285종)	공립	경기	2008

■ 주요 국내 민간 아키이브에는 삼성미술관 리움 한국미술기록보존소와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이 있음(기관별 정보는 아래 〈표 3-3〉 참조)

〈표 3-3〉 국내 민간기관 미술 아카이브

기관	개 요	조직	소재	개관
삼성미술관 리움 한국미술기록보존소	• 평론가 이구열의 4만여 건의 자료를 인수하여 구성 • 전시 팜플릿, 초대장, 서신, 사진, 작품도판, 신문/잡지기사 등 작가별 자료, 미술관련 단체와 단체전 자료,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 등	사립	서울	1999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 미술자료수집가 김달진 소장콜렉션 •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한국 근현대미술분야의 단행본과 정기간행물, 화집, 학회지, 학위논문, 전시도록 및 팜플릿, 작가파일, 보도자료, 영상자료 등	사립	서울	2007

■ 광역 혹은 기초 단위의 공립미술관에서는 아카이브 자료 전시를 기획하기도 함(기관별 전시 정보는 아래 〈표 3-4〉 참조)

■ 각 시·도립미술관은 아카이브 전시기획 등을 계기로 수집된 아카이브 자료를 보관하거나 도서 라이브러리를 운영하기도 함

■ 부산시립미술관을 제외한 시·도립미술관은 본격화된 아카이브 기구가 아닌 임시적 자료 보관 ·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또한, 부산시립미술관을 제외하면 아카이브 자료를 담당하는 아카이빙 전문 인력(아카비스트 등)이 부재함

■ 간헐적 아카이브 전시를 통해 지역미술에 대한 정리와 더불어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있으나 지역 단위에서는 체계적인 미술 아카이브가 구축되지 않고 있음

〈표 3-4〉 시·도립미술관의 아카이브 자료 전시

기관	전시명	조직	소재	개관
청주시립미술관	• 〈어느 누가 답을 줄 것인가 : 1980-1990년대 청주미술〉(2017.11.9.-2018.2.18) : 청주 현대미술의 흐름을 정리하기 위한 첫 시도	기초	청주	2016
대전시립미술관	• 〈대전 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2018.1.19-3.11) : 1970년대 대전에서 활동한 4대 그룹 중심 • 지역 원로작가들로부터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전시사업과 연계	광역	대전	1998
대구미술관	• 〈저항과 도전의 이단아들〉(2018.1.16.-5.13) : 한국아방가르드미술 1960-80년대, 한국행위미술 1967-2017을 다뤘으며 행뮈미술50년을 기념하는 아카이브 자료 2,000여점으로 구성	광역	대구	2011
부산시립미술관	•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 〈모던과 혼성 1928-1938〉, 〈피란수도 부산 : 절망 속에 핀 꽃〉(2018.3.16-7.29)	광역	부산	1998
광주시립미술관	• 아카이브 프로젝트 〈호남미술을 듣다〉(2015), 〈호남미술을 말하다〉(2016), 〈삶과 예술 그리고 여성〉(2017) : 구술채록을 활용한 전시사업을 연차적으로 진행	광역	광주	1992

제3절 국내 미술 아카이브 현장조사

1.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1) 기본 개요

■ 2010년부터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해외 현지 사례조사 등 일련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 미술연구센터를 개소, 2014년 12월부터 일반 열람 서비스(폐가식)를 실시하고 있음

■ 미술연구센터는 구축과 운영 전반에 걸쳐 게티미술연구소(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함

2) 주요 소장자료

- ‘특수자료(작가, 작품관련 자료)’와 ‘미술관 자료(전시, 교육, 학술 등)’로 구분하여 각 분류별 보유한 자료 특성에 따라 하위 분류체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특수자료는 최열, 정기용, 김복기, 진한을 포함한 16개의 컬렉션으로 구성되며 귀중도서, 근대미술 디지털 자료, 근대 서지화 디지털 자료, 서울관 건축, 소장작가 개인전 및 단체전 자료 등으로 분류하여 수집, 관리함
- 단, 미술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행정기록물의 경우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송 관리함

3) 아카이브 제반 여건: 인력

- 미술연구센터 담당 8명 – 근무 중인 미술사 전공자들이 기록관리학 학위과정을 밟는 방식으로 인력의 전문성 확보
- 대다수가 계약직 인력으로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직무 전문성 누적에 어려움

4) 아카이브 제반 여건: 공간

- 약 178평 공간에 작업 공간(클리닝실, 목록화 작업실, 매체변환실, 사무실)과 서비스 공간(일반 열람실, 원본자료열람실, 객원연구원실, 세미나실)과 임시 수장실 마련
- 공간 구상 시 수집한 자료의 분류와 기술 작업을 위한 임시 수장실 공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현재에는 아카이빙 분류, 정리 작업에 어려움이 큼
- 수장고는 약 58평 규모로 지류 수장고 35평, 지류 외 매체 수장고 23평으로 구성

5) 아카이브 운영상 특징: 자료 수집

- 아키비스트가 주요 현대작가 및 그 유족과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 수증 받는 방식으로 자료 수집을 하고 있으며, 감사 증서 발급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기증 후 사후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수증과 별개로 아카이브 구입 예산이 매년(약 8천만 원) 세워지고 있으나 거의 사용하지 않음(현재까지 단 한차례 구입 예산을 사용함)
- 미술 자료를 구입하는 것은 기존 수증자와 향후 수증 예정자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확보가 어려운 오래된 희귀 자료에 한하여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수립한 뒤 구입을 진행해야 함

■ 자료 구입은 수증이 어려운 '한국 근대' 시기 희귀자료 위주로 진행하며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함 (내부인력과 외부전문가 3인이 참여하되, 위원회 구성은 매회 변경됨)

〈그림 3-6〉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정보센터

6) 운영상 주요 특징: 자료등록심의위원회

■ 다량의 미술자료를 수증 받는 미술 아카이브의 특성상 아카이브 자료등록심의위원회는 행정적 현실성이 없어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사업담당부서에서 내부기준에 따라 자료를 수집 관리하고 있으며, 기술 단계에서 해당 담당자(아키비스트)의 이름을 반드시 기재함

7) 운영상 주요 특징: 디지털 아카이브

■ 소장 아카이브의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는 저작권과 초상권 문제로 어려움이 있음

■ 예를 들어, 전시 리플렛의 경우 다수의 저작권과 초상권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료 수증 시, 해당 기증자와만 약정(권리양도)을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저작권과 초상권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기가 어려움

■ 현실적으로 한 수증자의 기증 자료 사이에도 권리 양도 범위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 어려움

■ 위 이유로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섬네일 이미지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미술관 홈페이지 자료검색(목록 제공), 예약 신청 후 현장에서 실물자료를 열람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8) 운영상 주요 특징: 기록물의 기술

- 아카이브 구축 단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는 단계가 자료 기술 단계임 - 아키비스트가 자료의 내용과 범위, 자료 생성과 소장이력 등을 기술
- 수집 자료의 정확한 해제와 사실 확인을 위해 기증자 및 관련 분야 연구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음

2. 부산시립미술관 미술정보센터

1) 기본 개요

- 50여 년간 부산 미술 관련 자료를 수집해 온 이용길 선생이 2007년 이를 부산시립미술관에 기증
- 2008년 부산미술연구센터를 개소, 2016년에 담당 아키비스트를 채용, 현재 정리 작업 진행 중

2) 주요 소장자료

- '자료소장 현황(점) : 간행물(4,091), 전시인쇄물(21,735), 포스터(586), 개인기록(3,411), 박물(19), 시청각(275) 등을 소장 중에 있음
- 아직 정확한 전수 파악과 소장자료 목록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
- 소장 아카이브의 콜렉션은 크게 '이용길 컬렉션', '우신출 컬렉션', '부산미술 일반 컬렉션', '부산시립미술관 컬렉션'으로 구분되며 일련의 하위 분류체계(유형, 연도별)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 '부산미술 일반 컬렉션'은 부산 연고 작가 관련 자료를 일컫는 것으로 부산미술의 대표적 사건에 영향을 준 작가, 부산 출생 작가를 큰 축으로 수집하며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에 참여한 연고 작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향후 부산시립미술관 컬렉션의 경우 각 전시를 통해 파생되는 자료(큐레이터, 작가 생산자료 등)에 집중하여 수집할 계획임

3) 아카이브 제반 여건: 인력

- 문헌정보학 전공의 기록연구사 1인과 미술사학 전공자 1인이 미술정보센터 담당 인력으로 배치, 함께 자료 수집, 해제, 보존 업무를 함께 수행함
- 문헌정보학 전공자 또는 기록관리학 전공자 단독으로 특정 지역 미술 자료의 해제, 평가와 같은 전문적 미술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4) 아카이브 제반 여건: 공간

- 아카이브 구축 작업 공간과 수장고, 열람 공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소장 미술 자료가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있음
- 약 50여평의 공간에 4만여 점의 자료가 빼곡히 차 있어 추가적인 자료 소장이 어려움

5) 운영 방식과 특징

- 폐가제로 사전 예약을 통해 실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의 상태에 따라 사본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미술 아카이브를 위한 등록심의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으며, 자료 수증 시 해당 작가와 기증 약정(저작권 및 초상권 위임 등)을 실시함
- 현재 아카이브 관리, 검색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소장 자료 목록화가 완벽히 진행된 후 마련할 계획임

6) 아카이브 활용: 아키비스트와 큐레이터 간의 협업

- 담당 아키비스트는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관련 모든 회의 참석, 2017년 한 해 동안 5건의 기획전(정인성, 임응식, 유영국, 신사실파, 토벽동인 등), 2018년 개관 20주년 기획전 및 김종식 전에 미술정보센터 소장 자료를 지원함
- 아키비스트와 큐레이터 간의 상시적인 지역 미술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음

7) 아카이브 활용: 부산 미술 연구

- 열람 서비스 외 매년 소장 자료 해제 또는 연구, 학술행사 등을 통한 발간 사업 실시하고 있음
- 2018년부터 부산 원로미술인 구술채록 사업 수행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는 적극적인 수집 전략의 일환으로 기증처(개인, 기관) 확보 및 지역 미술계와 관계 맺기에 목적을 두고 있음

8) 기타 특징

- 개소 이후 전문 인력 채용까지 약 8년 동안 전문 인력이 채용되지 않아 자료의 등록, 분류, 기술, 보관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음
- 전문 인력이 채용되기 전까지 미술정보센터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자료 관리 및 보관 기술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미술 자료 훼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일부 자료는 분실되기도 함

〈그림 3-7〉 부산시립미술관 미술정보센터

3. 삼성미술관 한국미술기록보존소

1) 기본 개요

- 1998년 국내에서는 최초로 미술 아카이브 개소, 2006년 김철효 수석 학예사 재직 당시까지 미술 자료 수집과 연구집 발간, 구술채록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이후에는 소장 자료 열람서비스만 운영 중에 있음
- 현재 용인 호암미술관과 서울 리움삼성미술관으로 소장자료를 분리하여 운영함

2) 주요 소장자료

- 리움삼성미술관 내 한국미술기록보존소는 이구열 컬렉션 4만점과 한국근대 미술인 구술채록 영상, 채록문 및 해당 사업을 통해 수증한 자료, 외국도서, 희귀도서 단행본, 미술관 기관자료 등 약 10만 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소장 중에 있음
- 한국 근현대 주요 작가 44인의 채록을 영상과 문서로 소장하고 있음
  - 채록 대상자는 원자료 소멸의 시급성에 따라 원로작가 순, 작품의 미술관 소장여부에 따라 확정하고 있음
- 보존소의 아카이브 분류체계는 크게 이구열 컬렉션, 기타작가, 기관 아카이브 등으로 나뉘고 주제, 작가, 기관, 협회, 그룹 등에 따른 하위 카테고리에 의해 정리하여 보관 중에 있음

3) 아카이브 제반 여건: 인력

- 초기 인력구성은 수석학예사 1인 등 학예사(미술사학 전공자) 총 5인, 기록연구사(문헌정보학 전공) 1인 및 기간제 1인으로 구성

4) 아카이브 활용: 전시 대여 및 연구 목적 열람

- 보존소의 자료 중 일부는 외부 대여를 허락하고 있는데 연간 대여 의뢰 횟수는 2~30여 건 가량으로 대부분이 전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보존소는 예약자 1인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일반 열람을 허락하고 있으나, 원본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화 된 이미지를 열람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열람 제한 자료: 자료 수증 및 구술채록 시 기증확약서(이용동의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확약서에는 채록대상자 또는 수증자가 원하는 열람, 사용조건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이러한 자료는 당사자의 허락을 거쳐야만 열람이 가능함
  - 또, 기증확약서에는 자료의 특정부분에 열람을 제한하는 요구조건 등이 기재되어있음

5) 디지털 DB 구축

- 미술관에서 자체 제작한 DB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 해당DB는 외부 사이트를 통해 접속이 불가하며, 보존소 방문객에 한하여 내부 검색PC를 사용하여 접근이 가능하며, 따라서 외부에 보존소 자료 목록을 공개하지 않음

〈그림 3-8〉 삼성미술관 리움 한국미술기록보존소

4.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1) 기본 개요

- 김달진 소장이 40여 년간 수집해 온 자료 중 사료적 가치가 큰 미술 기록물과 자료를 수집, 분류, 보존, 연구하기 위해 2008년 3월 국내 최초의 미술 자료 박물관 개관함
- 단행본 및 작가 화집 8,000여권 : 1891년「조선아동화담」, 1929년 안드레아스 에카르트「History of Korean Art」, 1938년「오지호·김주경 2인 화집」 등
- 정기간행물 300종 8,300여권: 1921년「서화협회회보」창간호, 1946년「조형예술」, 1950년대「신미술」 등 소장
- 팸플릿 약 14,000여점: 1929년「제8회 선전진열품목록」, 1941년「이왕가미술관 요람」, 1947년「제1회 조선미술문화협회전」 등
- 신문자료: 1970~80년대 주요 기사, 1996~현재 일간지 미술기사, 현재 서울에서 발행되는 조간 13종, 석간 2종
- 미술학회지 57종 1,200여권: 조형교육, 한국근대미술사학, 미술사논단 등
- 미술교과서 260여권: 1910~2010년대 초·중·고교 등
- 논문 490여권: 미술이론 석사, 박사 학위논문
- 작가개인파일 270여권: 한국 근·현대 주요작가 작품 도판, 신문, 잡지기사 수록

〈그림 3-9〉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의 주요 소장자료

2) 아카이브 활용: 자체 기획 전시 및 외부 자료 대여

- 2008 개관전 〈미술 정기간행물 1921-2008〉부터 현재까지 총 22회 전시를 진행함
- 미술작가의 시, 수필 자료 전시, 비평 전시 등 다양한 아카이브 전시를 운영하고 있음
- 전시 및 특별행사를 위한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기관 자료를 대여하고 있음

3) 아카이브 활용: 연구서 발간

- 소장 아카이브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미술인 인명록 발간 등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전시 관련 2차 출판물과 한국아트아카이브협회 연구 성과물 , 아카이브 관련 서적 등을 출판함

4) 운영 재원

- 김달진미술연구소가 발간하는 잡지 〈서울아트가이드〉의 광고료 수익을 아카이브 운영에 투입하고 있음
- 한편,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평생회원(100만원 이상) 90명, 연회원(10만원 이상) 80명 등이 후원함

5) 운영 과제 및 정책적 지원 필요 요소

- 공공영역에서의 미술 아카이브의 가치 인식을 제고할 필요: 미술 아카이브의 가치 인식 및 외국의 선진사례 에서의 아카이브 운영 철학 및 운영의 전문성 학습 필요
- 민간 미술 아카이브에 자료관리 소프트웨어 지원 필요: 각 도서관의 도서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도서관전산화프로그램과 같이 미술 아카이브 역시 통합적인 검색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그림 3-10〉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5. 백남준아트센터

1) 기본 개요

- 작가 백남준의 작품세계에 대한 자료와 아트센터의 역사적 기록과 활동 자료를 수집, 보존하기 위해 2008년 개관 전 센터 구상 단계에서 아카이브 구축을 계획함
- 자료 수집 전략: 백남준의 경우 해외 자료가 많기 때문에 해외로 직접 다니면서 수집함
- 사전에 예상 소장자와 예상 소장처에 대한 면밀한 리서치를 진행함
- 한 유닛의 구입 단가가 200만원 이상인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그 이하 가격의 자료는 내부 결재로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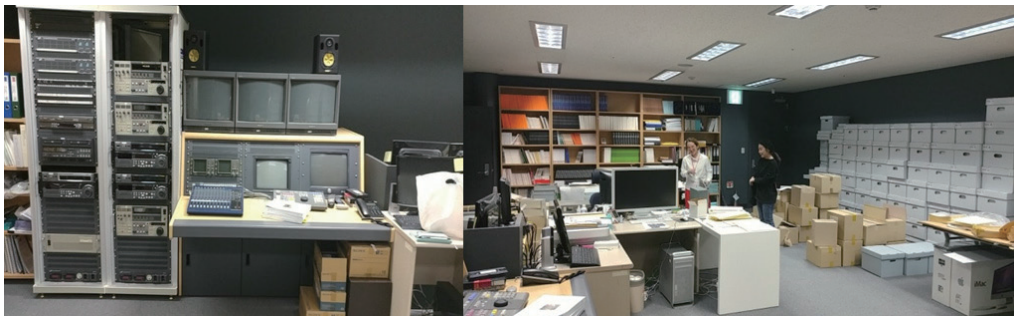
2) 아카이브 공간 구성

- 수장고는 매체 별로 구분하여 지류 자료에 대한 수장고와 비디오 등 영상 자료에 대한 수장고를 별도로 마련함
- 매체별로 보관 환경(온도, 습도 등)을 별도 적용함

3) 기관 아카이브 구축

- 전시 및 행정 기록은 아키비스트가 아직 기록의 주기가 끝나지 않은 현용 혹은 준현용 기록물이라고 판단함
  - 즉, 10년 동안 아직 계속 진행되고 있는 기록물로 보고 공유 드라이브에 보관 중임
- 기록 행위가 종료됐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영구보존 가치를 판단, 해당 기록물을 아카이브할 예정임
- 전자 기록물 외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기관 기록, 즉 전시 도록 등에 대해서는 아카이브 공간에 별도 보관하고 있음

〈그림 3-11〉 백남준아트센터 백남준 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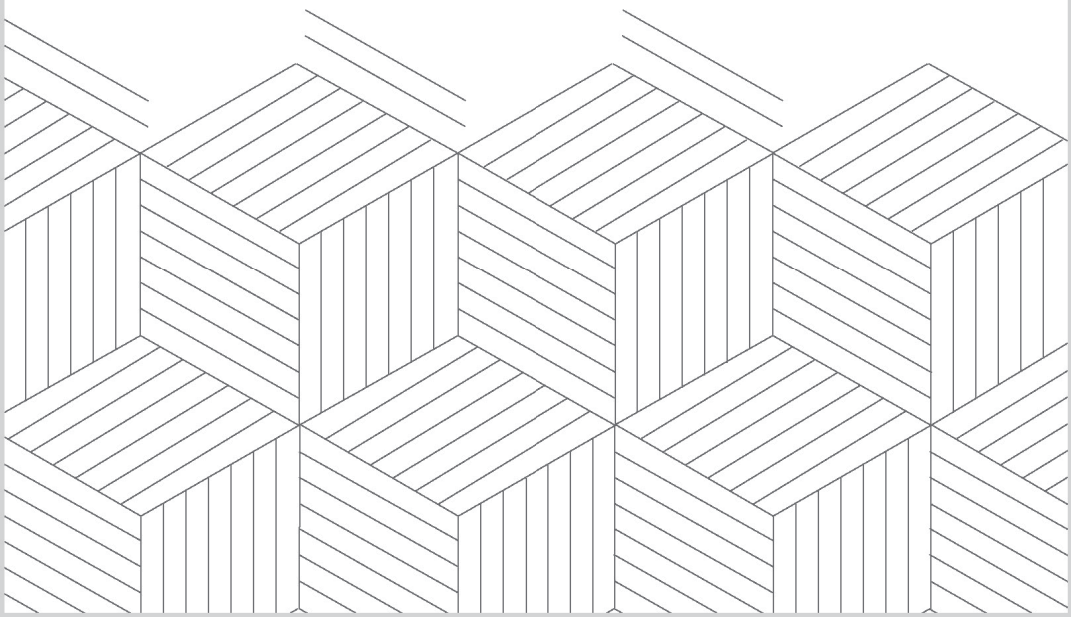


제4절 시사점

-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미술 아카이브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음
  - 국립현대미술관조차도 미술 아카이브를 구축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상황임
  - 2010년부터 구축 논의, 2013년 미술연구센터 개소, 2014년 폐가식 열람 서비스 시작, 현재까지도 수증 받은 자료가 다 분류-기술 작업 진행 중에 있음
-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의 경우 아카이브에 대한 선도적 인식이 있었던 개인에 의한 아카이브를 구축함
- 백남준아트센터는 공립기관으로서는 특수하게 구축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주로, 열정 있는 개인 콜렉터가 기관에 대량의 자료를 기증함으로써 미술 아카이브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구열 선생의 기증으로 콜렉션이 형성된 리움미술관의 한국미술기록보존소
  - 이용길 선생의 기증으로 부산지역 미술 아카이브 구축 중인 부산시립미술관
- 지역공립미술관은 지역 미술의 정체성 수립을 위해 아카이브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아카이브 전시에 그침
-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자료실과 아카이브 개념을 혼용하고 있으며 전문 아키비스트 채용도 미진한 상황임
- 즉, 현재 상황에서는 미술 아카이브에 대한 이해를 지역 사회와 공유하는 것이 절실함
  - '비시장성'을 띄는 아카이브에 대한 이해
  - 활용 가능한 역사성을 갖기까지 아카이브에 대한 장기적 관점 필요
- 수원미술 아카이브의 체계적 구축은 지역 미술 아카이브의 선도적 구축을 의미함
  - 지역 단위 특히,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역 미술사 아카이브의 지위를 점유할 수 있음
  - 이는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의 특성화 방안이 될 수 있음

제4장
수원미술 아카이브 관련 현황

제1절 수원 미술 자료수집 현황
제2절 아카이브 구축 관련 제반여건



제4장 수원미술 아카이브 구축 관련 현황

제1절 수원 미술 자료수집 현황

1.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집자료 현황

- 현재까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 소장한 미술 자료의 경우 대부분 원본을 확보하되, 상황에 따라 디지털 이미지 형태로 수집함
- 수증(기증)을 주요 수집방법으로 운영하되 내부학예직 인력의 연구조사, 발굴, 전시를 통한 구술채록과 같은 적극적 자료생산을 병행하고 있음
- 소장자료의 기본 분류방향
  - 1960년대 이전 : 나혜석, 홍득순, 백영수 작가 등 인물중심으로 자료 조사 및 수집하여 작가별, 매체별 분류
  - 1960년대 이후(수원에서 지역미술이 자생력을 갖추기 시작한 시기) : 1차로 미술운동 그룹의 자료 조사와 수집을 진행하고 2차로 매체(유형)별 분류.
- 작가파일: 기획전 참여 작가에 한하여 수증하거나, 생산된 자료를 매체(유형)별 분류
- 자료유형, 자료명, 생산년도, 생산자, 소장처(가) 또는 수증자, 원본 보관처, 디지털 여부, 규격, 수량(복본여부), 특이사항(자료의 보관상태 또는 자료와 관련된 기타 기록)을 게재하여 관리

〈표 4-1〉 수원미술 자료수집 현황

구분	① 구술채록	② 영상자료	③ 해제문	④ 신문기사	⑤ 사진 (도판 외)	⑥ 각종 전시자료	⑦ 각종 인쇄자료	⑧ 기타
계	4	15	125	1,709	156	170	137	-

〈표 4-2〉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 미술자료 보관 양식 예시

<table>
<tr><td colspan="2">No.</td><td colspan="2">컴아트 그룹</td></tr>
<tr><td colspan="4">
</td></tr>
<tr><td>자료유형</td><td>포스터</td><td>작품유형</td><td>행위, 설치</td></tr>
<tr><td>자 료 명</td><td>교감예술제</td><td>규 격</td><td>44.5×62.6㎝</td></tr>
<tr><td>생산연도</td><td>1990.5.27</td><td>수 량</td><td>1</td></tr>
<tr><td>보 관 처</td><td>기록물실</td><td>변환여부</td><td>○</td></tr>
<tr><td>특이사항</td><td colspan="3">’90년 교감예술제 (장안공원) 개최 포스터
김석환 기증자료 (원본)</td></tr>
</table>

○ 구술채록 : 원자료 소멸의 시급성에 따라 원로미술인을 대상으로 수원미술과 수원연고 작가의 삶과 작품세계를 조사, 연구,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 제작과 채록문 작성을 진행하고 있음

○ 영상자료 : 기획전시를 통해 생산된 인터뷰 또는 영상복원 자료

- 2015년 : 지역미술인 7인 인터뷰
- 2016년 : 이억배 작가
- 2017년 : 김인겸, 슈룹, 컴아트, 권용택 작가

○ 해제문 : 수집된 근현대 자료 중 국문번역이 필요한 자료의 경우 번역을 진행하였으며, 각 작품에 대한 설명문을 작성하여 보완한 자료

○ 신문기사 : 수원 미술인 및 지역미술 관련 신문기사, 삽화 등(사본, 디지털 매체로 보관)

○ 나혜석(138개), 홍득순(삽화:680개, 일반: 23개), 백영수(59개) 작가와 수원미술 관련 기사(경인일보:239개, 타 매체: 570개)

○ 사진 : 작품 및 인물, 활동사진

○ 각종 전시자료 : 수원 미술인 및 지역미술운동 관련 전시홍보물, 도록, 단행본 등의 원본 또는 사본

○ 각종 인쇄자료 : 수원 미술인 및 지역미술운동을 소개하는 잡지, 소식지 등 간행물의 원본 또는 사본

■ 수원미술 관련 도서류 총 291권 수집

○ 단행본: 수원 미술인, 수원미술, 수원의 역사 등과 관련하여 발간된 단행본 등

○ 학회자료 : 나혜석학회 등 학회 발간물, 세미나 자료 등

○ 전시도록 (1) : 수원미술인 개인전, 단체전, 주제전의 도록

○ 전시도록 (2) : 유관기관 발간 전시도록

○ 특수도서 : 한국근대 잡지류 영인본

○ 기타 : 상기 분류를 따를 수 없는 형태의 발간물

〈표 4-3〉 수원미술 관련 도서류 수집 현황

구분	① 단행본	② 학회자료	③ 전시도록 (1)	④ 전시도록 (2)	⑤ 특수도서	⑥ 기타
계	41	11	127	147	85	27

2. 자료수집 방법

1) 개인 및 기관에 의한 수증

■ 구술채록(지역미술인 면담) 과정과 유관기관 자료 조사 등을 통해 자료 입수

2) 수원 미술인 및 주제 기획전 개최에 의한 수증

■ 수원 미술인 전시 진행과정에서 간헐적으로 미술 자료를 수증받고 있음

○ 2015년《개관기념전 - 수원 지금 우리들》展

○ 2016년《시대의 선각자, 나혜석을 만나다》展

○ 2016년《이억배 그림책 원화전 - 이야기 주머니 이야기》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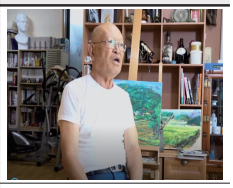
○ 2017년《김인겸, 공간과 사유》展

○ 2017년《1980-1990년대 수원의 실험미술 - 그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다》展

○ 2017년《권용택, 새벽의 몸짓》展

○ 2018년《김학두: 매 순간, 영원히》展

〈표 4-4〉 수원 지역작가 및 유족 구술채록 사업

구분	나영균(1929-)	김학두(1924-)	홍승인(1939-)	윤재상(1940-)
	나혜석 유족	원로미술인 (서양화)	원로미술인 (도예)	원로미술인 (서양화)
영상 채록				
촬영 분량	90분	94분	93분	125분
음성 채록문	177매 (200자 원고지 기준)	201매	195매	236매
수집 자료	영상, 사진, 나혜석 관련 증언 등	영상, 사진, 도판 등	잡지류, 사진, 도판 등	사진류

3. 연구논문집 〈수원미술연구〉 발간

■ 2017년부터 수원 미술 관련 연구논문집 〈수원미술연구〉를 발간 중에 있음

〈표 4-5〉 2017 수원미술연구 제1집 수록 논문

연구대상	연구주제	집필진	전공분야	소속
나혜석의 사진앨범	가족이라는 경계의 안과 밖 : 나혜석의 사진앨범에 대하여	권행가	한국근현대 미술사	미술사학자, 덕성여자대학교 연구교수
홍득순의 신문 삽화	홍득순 신문소설 삽화에 대한 연구	조은정	한국근현대 미술사	미술평론가, 한남대학교 겸임교수
백영수 작가론	백영수論 : 경회화(輕繪畫), 또는 지각의 갱신	홍지석	한국근현대 미술사	미술사학자, 단국대학교 연구교수
김학두 작가론	정념의 회화 : 심안의 순수 조형 놀이	김성호	미학	미술평론가, 독립큐레이터

- 연간 금2,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현재 2년차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 수원미술 관련 자료 발굴, 수집, 조사연구
  - 수원연고의 근현대 미술인과 작품세계를 연구한 전문자료를 생산
  - 지역 작가 및 유족 구술채록(영상촬영) 진행
  - 수원미술 관련 연구논문 집필 및 발간
- 연구주제의 경우 미술관 소장자료와 작품, 수원연고 원로미술인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기초 자료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원미술 연구의 공백을 메움
- 나혜석 유품 및 홍득순 삽화의 경우, 연구 논고가 전무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집필되었음

제2절 아카이브 구축 관련 제반여건

1.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공간 현황

- 수원 미술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 보존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장고, 아카이브 작업공간, 임시 수장실, 서비스 공간 등이 필요함
-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의 여유 공간이 부족한 실정
  - 현재까지 수집한 2,000여 점의 미술 자료을 문서고(19평)와 창고(10평) 공간에 임시 보관 중에 있음

〈표 4-6〉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공간 현황

위치	실명	면적(㎡)	면적(평)
지하 1층	수장전실	194.94㎡	59평
	수장고(회화)	272.44㎡	82평
	수장고(조각)	297.80㎡	90평
	기록물실(문서고)	63.16㎡	19평
	창고(도서보관)	32.38㎡	10평
지상 2층	라이브러리	110.47㎡	33평

1) 기록물실(문서고)

- 그동안 수집한 2,000여 점 가량의 수원미술 관련 자료는 행정기록물과 함께 기록물실(문서고) 보관 중임
- 291권의 지역미술 관련 도서류는 창고에 보관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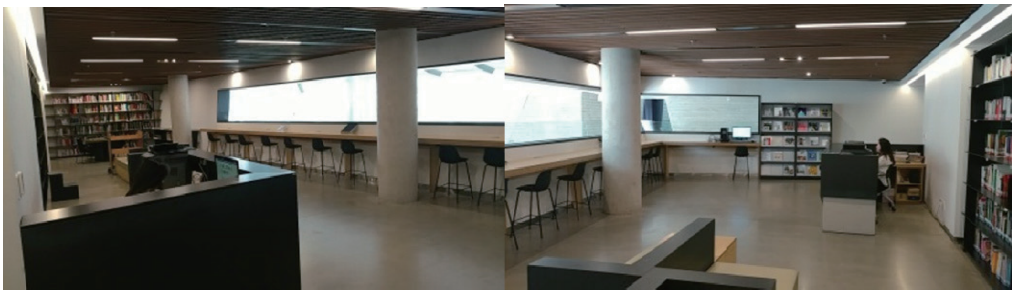
2) 소장품 수장고

- 수장고 공간은 회화와 조각품으로 분리(각각 약 82평, 약 90평)되어 있음
- 총 106점 소장(구입 75점, 기증 31점) 중임
  - 회화: 50점(구입 39점, 기증 11점)
  - 한국화: 19점(구입 14점, 기증 5점)
  - 조각: 12점(구입 10점, 기증 2점)
  - 사진: 7점(구입 6점, 기증 1점)
  - 뉴미디어: 구입 6점
  - 판화: 기증 12점

3) 라이브러리

-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라이브러리의 장서 수는 약 3,500여권임
- 전시 도록, 예술 일반(미학, 미술사), 디자인, 조각, 건축, 화집, 사진, 미술전문 잡지, 아동서적 등 일반 예술 관련 서적이 다수임
- 도서구입비는 2017년 금 200만원 배정됨

〈그림 4-1〉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라이브러리



-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학예 인력은 팀장 1명, 큐레이터 4명 등 총 5명임
  - 수원미술 관련 담당 학예 인력은 1명임
- 수원미술 담당 학예 인력 1인이 관련 전시 기획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 미술 자료를 체계적 수집, 분류, 보관, 활용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 부분적이며 간헐적 자료 수집에 그침
  - 수원 미술 관련 전시 개최 시에 수증 받는 작가의 일부 자료와 연간 2건 진행하는 구술채록 시 수증 받는 작가의 일부 자료가 수원 관련 미술자료 수집에 전부인 상황임
  - 특정 주제 혹은 특정 작가를 포괄하여 대표적인 콜렉션을 구성할 수 있는 기록물 덩어리의 수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 자료 수집 관리에 대한 종합 체계와 규정, 업무 매뉴얼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임
  - 기증자가 기관을 신뢰하고 기증할 수 있는 미술자료 아카이브 체계 미비
  - 수집, 등록, 분류, 기술, 보관, 활용에 대한 운영 규정과 지침 미비
  - 기관 차원의 대책 논의가 필요한 실정임
- 미술관 자체 연구 인력과 아카이브 전문 인력 보강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는 구축 예산과 운영 예산 책정이 필수적임
  -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아카이브 구축 예산 약 8억, 운영 예산 연간 9억 책정

제3절 근·현대 수원미술사 개괄

1. 해방 전 수원 지역 미술활동

- 해방 전 수원 지역에서의 미술활동은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나혜석과 30년대 민족주의의 시각에서 미술평론과 창작활동을 통해 두각을 보였던 홍득순, 장윤천, 한재남 등을 들 수 있음
  - 한국 최초의 여류 서양화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나혜석은 1929년 용주사 포교당에서 수원 최초의 개인전을 개최하면서 수원미술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알리게 됨
  - 나혜석의 다채로운 활동의 중심엔 수원이라는 지역적 맥락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는 9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조명되어 「나혜석 현대여성미술제」로 이어짐
- 민족미술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확립하려는 시각 속에서 1930년대 탄생한 〈동미전〉의 주요 이론가였던 홍득순은 외래 사조중심의 화단내의 경향을 비판하면서 '조선의 현실에 적합한 예술' 창조를 주창함
  - 조선의 현실, 자연, 환경에 주목하여 한국 고유의 화풍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각별한 의의를 가짐
  - 하지만 홍득순의 이러한 주장이 지역미술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로 이어지기엔 여러 가지 시대적 한계가 존재함
- 장윤천, 한재남은 수원 출신으로 「선전」에 출품 입선한 경력을 가진 작가. 「선전」에 출품한 것조차 지역 문화사에 기록될 정도로 당시의 미술계의 활동은 미약한 것을 짐작할 수 있음
- 해방 전의 활동으로 눈길을 끄는 것은 1929년 4월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가 결성되어 1930년 3월 26일 수원동맹 지부에서 제1회 「프로미전」을 개최
  - 수원극장과 그 앞거리에서 열린 이 전람회는 회화, 판화, 만화, 현수막, 벽보 등 130여점이 출품되었으나 그중 70여점이 검열로 철거를 당하고 개막 3일 만에 전시장이 폐쇄되고 전시 주도자가 체포되는 등의 수난을 겪음
  - 그러나 짧은 기간 중에 수원 시내의 수천 명이 관람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고 기록하는데 당시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

2. 광복 이후 수원 지역 미술활동

- 광복 이후 수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작가로 김학두, 이영일, 이승영, 이수덕, 안찬주, 박기환, 권대균, 김교선, 홍승인, 윤재상, 김인겸, 이필윤, 오인환 등을 들 수 있음
  - 이들은 거의 암흑기와도 같았던 당시의 수원화단의 구심적 인물로 작업 활동과 더불어 후학들을 양성하고 이후 지역화단의 상징적인 역할을 담당함
  - 하지만 지역 화단 특유의 감수성과 흐름을 형성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함
  - 중앙화단과 지역화단을 오가며 활동을 전개했던 개별적인 작가중심의 활동이었지만 그 인적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었고 지역화단의 상징적인 존재로 영향을 끼침
- 이후 1964년 3월 22일 〈미술협회 수원지구회〉가 결성
  - 당시 회장은 안찬주 작가, 부회장은 김학두 작가였음
  - 그리고 이듬해인 1965년 5월 23일 〈미협 수원지부〉로 인준
  - 〈수원 미협〉은 당시 여타의 자생적인 그룹 활동이 전무하던 시점에서 나름대로 지역 단위의 미술행사들을 조직함
  - 「협회 회원」전을 중심으로 야외스케치, 국전 입선 축하회, 미술세미나, 미술 감상 프로그램, 탁본실기, 초중고 사생대회 등을 개최함
- 6-70년대 불모지와도 다름없었던 수원의 화단을 이끌었던 〈미협〉의 활동은 그러나 본격적인 의미의 미술활동이라고 보기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음
  - 주로 중앙 화단의 그늘 하에서 형식적인 몇몇 행사들이 전부였고 이조차도 인맥을 중심으로 한 두터운 장벽이 존재하여 자족적인 활동이 태반이었음
  - 특정한 사람이 십년 넘게 계속해서 협회의 장을 연임하는가 하면 협회의 활동자체가 지역미술의 일정한 권력으로 작용함
  - 이러한 경직된 분위기에서 당시의 화풍을 쉽게 짐작케 함
- 지역의 미술에 대한 고민과 모색은 찾아보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미술자체에 대한 문제의식 역시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음. 단지 기존의 주관적이고 심미적인 양상을 반복했음
- 하지만 미술환경이 전무하던 당시의 수원화단에 있어 유일한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지대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지역단위 '미협' 활동은 그 고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60년대 이후 지역미술 활동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함

- 다만 그 의의에도 불구하고 지역미술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모색보다는 관례화된 활동과 인맥을 중심으로 지역미술계의 이권을 둘러싼 다소 정치적인 활동의 전개는 균형 잡힌 미술문화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산출하기도 하였음
- 이러한 분위기는 서울과 몇몇 대도시를 제외한 당시 한국화단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아울러 지역미술의 발전을 위한 물적 토대가 취약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객관적인 조건은 그나마 소수 미술인들의 활동 거점 역시 서울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되었음
- 다시 말해 굳이 지역에서 활동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임
- 그런 이유로 수원미술은 60년대 활동을 전개했던 세대들과 그 다음 세대라 할 수 있는 70년대 말에 활동했던 세대 간의 간극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깊었다고 말할 수 있음

3. 70년대 말 이후 수원 지역 미술 소집단 활동

1) 경기청년작가회(경기청년미술인회)

- 수원 최초의 본격적인 미술 소집단이라 할 수 있는 〈경기청년작가회〉의 출발은 기존의 미술계의 관행화된 모습을 되풀이 하고 있었던 미협 중심의 활동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음
- 물론 이에 앞서 1977년 창립된 〈S·S전〉이라는 그룹이 있긴 했지만 대학 재학생 중심의 모임이었으며, 그 활동 또한 1회로 마감되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미술소집단이라 하기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최초의 소집단을 〈경기청년작가회〉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함[1)]
- 인맥을 중심으로 결합된 경직된 미술구조는 몇몇 영향력 있는 원로작가들의 그늘 속에서 활발한 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하였기 때문임
- 이러한 구조는 당시의 젊은 작가들에게는 작업 활동을 억누르는 분위기로 느껴지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추정

1) 〈S·S 전〉은 1977년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술대학에 진학한 미술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동기들의 모임으로 1977년 12월 수원 크로바 백화점 전시실에서 창립전을 갖았음. 수성고등학교 출신으로 김석환, 차진복, 이석기, 김동기. 수원고등학교 백종광, 장영국 수원여자고등학교 김현숙, 권미경, 김정은, 김옥경 수원영복여자고등학교 김창희, 문용수, 조진숙 등이 이 전시회에 참여하였음. 〈S·S 전〉은 고등학교를 1977년도에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하였다는 의미에서 seventy-seven에서 따온 명칭임. 이 단체는 창립전을 끝으로 해산됨.

- 이런 이유로 당시 젊은 작가였던 권용택, 박용복, 남부희 등이 주축이 되어 지역화단 내의 중견작가이면서 동시에 상대적으로 미협 활동으로부터 거리가 있었던 김인겸과 김교선을 영입하여 1978년 12월 〈경기청년작가회〉가 결성
- 첫 전시는 이듬해인 1979년 4월 4일부터 8일까지 수원 크로바 백화점 화랑에서 열렸고 경화식, 권용택, 김인겸, 김철규, 남부희, 박승남, 배형경, 백일현, 이봉순, 이선열, 이종관, 최용락, 허상이 초대 회원으로 참여함
- 이후 수원 인근 지역의 작가들도 참여하여 이름 그대로 경기도 작가모임으로 그 외형이 확산되었음
- 〈경기청년작가회〉는 외부적으로는 그 창립동기를 지역화단의 활성화와 작가자신의 내적, 외적 발전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음

"본회는 도내 순수미술 분야의 젊고 역량 있는 작가들의 모임으로 … 청년이란 연륜의 젊음보다는 영혼의 젊음을 의미합니다. 탐구하는 작가적 자세, 올바른 방향의식 속에 서로의 작업을 확인하고 양적, 물적 가치가 팽배한 현실에 과감히 뛰어들어 본질을 제시하고 실현하여 우리들의 세계가 바르게 구축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며 나아가 경기도 미술문화발전에 활약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2)]

- 위 발간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단체는 현대 미술 자체에 대한 메타적인 질문과 미술의 이념과 양식에 대한 지향을 통해 결성된 모임은 아니었음
- 70년대 한국 미술계가 여러 가지 특성화된 성향의 단체 활동의 결성을 통해 현대미술의 스펙트럼과 깊이를 확대했던 시기임을 생각한다면 〈경기청년작가회〉는 다소 소극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었음
- 주지하다시피 70년대 말 중앙화단의 분위기는 6-70년대 개진되었던 다양한 현대미술의 성과들이 양적인 확산과 더불어 다양한 그룹의 집단화로 외화되고 있었고 모노크롬을 비롯한 구성적인 모더니즘, 앵포르멜, 기하학적 추상, 색면추상과 실험주의 등의 양식적 집단화가 이루어졌던 시기였음
- 아울러 「서울현대미술제」 등을 비롯하여 각종 지방 현대미술제(「부산현대미술제」, 「대구현대미술제」, 「광주현대미술제」, 「전북현대미술제」, 「강원현대미술제」) 등의 개최를 통해 중앙화단의 흐름이 지역에 소개되던 시기이기도 했음

2) 경기청년미술인회 2회 발간사

- 하지만 수원화단의 경우 이러한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준 활동은 눈에 띄지 않았으며, 오히려 6-70년대의 왕성한 실험과 모색이 얼마간은 형식적 모더니즘으로 정착되었던 중앙화단의 외형적 결과들을 수용했던 시기라고 해야 할 것임
- 예컨대 중앙화단의 주류화된 형식주의를 도입하였던 시기라고 할 수 있음
- 이는 지역미술의 한계로 볼 수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중앙화단의 그늘에 있었음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함
- 다양한 조형적 실험을 통해 한국적 모더니즘을 확산시켰던 당시의 중앙화단의 여러 그룹 활동의 외형적인 측면만을 〈경기청년작가회〉가 본을 삼았기 때문
- 〈경기청년미술작가회〉라는 이름 역시도 당시 중앙 미술계에서 활동하던 1974년 정관모가 결성한 〈한국미술청년미술작가회〉를 따라서 지은 것이었고 실재 모임의 결성 동기는 기본적인 미술 창작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음
- 내용적 측면에서의 깊이있는 영향관계는 적어도 단체 단위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그룹에 참여하던 회원들의 개별적인 활동이 위주가 되었기 때문임
- 대신 〈경기청년미술작가회〉가 추구하려던 내용은 당시 수원 미술의 협소하고 숨막히는 상황을 타파하려는 것으로 추정함
- 기존의 미협 중심의 폐쇄된 미술구조와 아울러 지역이라는 한계로 인해 당시 수원의 미술계는 젊은 미술인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작업 활동을 펼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음
- 더욱이 열악한 창작조건과 전시공간의 부재는 본격적인 미술활동을 위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음
- 당시 수원에는 본격적인 전시공간이라 할 만한 곳이 없었고 백화점에 마련된 화랑과 몇몇 다방들이 전시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었음
  - 1976년 개관한 크로바 백화점 전시장의 경우 당시 대표적인 전시들을 개최했던 중요한 미술공간이었고 이외에도 시민회관 임시전시실, 매산 초등학교 강당, 소라 백화점 전시장, 수원 쇼핑화랑, 선화랑, Y하우스 외에 돌채 음악 감상실, 국제다방, 금강산 다방 등이 전시공간으로 활용되었음
  - 문제는 이러한 공간들이 본격적인 전시를 할 수 있었던 공간이 아니었다는 점이고 그나마 횟수도 많지 않았다는 점임
  - 상대적으로 손쉽게 전시를 할 수 있었던 다방 전시의 경우 10-20호 정도 크기의 작품만을 전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전시를 할 공간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미협과는 다른 젊은 작가들의 자기주장을 모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했던 것

- 가장 기본적인 창작활동 조차도 당시 수원의 젊은 미술인들에게는 장애로 작용하였던 것이고 〈경기청년미술작가회〉는 이러한 최소한의 창작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었음
- 당시의 열악한 조건을 감안해 본다면 이런 문제제기 또한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그 한계와 활동의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수원 최초의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미술 그룹이었다는 측면에서 가치부여를 할 수 있으며 이들의 활동은 이후 수원의 미술흐름에 있어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음
- 그것은 어떤 양식과 미술에 대한 자기 실험과 모색을 통한 것이라기보다는 모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회원들이 이후 수원미술의 전개에 있어 중심적인 활동을 전개했기 때문이었음[3)]
-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기청년미술작가회〉는 수원지역 미술흐름의 전개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본격적인 전시활동의 전개와 창작에 대한 열망만으로도 지역 화단의 발전적인 토양이 되기에 충분했던 시기였기 때문임

2) 포인트, 시점시점

- 〈경기청년작가회〉보다 좀 더 의식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던 그룹으로는 〈포인트〉를 들 수 있음
- 〈포인트〉는 1979년 12월 창립전을 가지면서 수원화단에 등장하였음
- 창립회원으로 백종광, 장영국, 최춘일이 참여하였고, 80년도 2회전에는 이억배, 박찬응, 문석배, 강문수, 정길수가 합류하게 됨
- 이후 1983년 이 단체는 이름을 시점시점(時點視點)으로 개칭함
- 당시 대학 재학생이었던 이들은 〈경기청년작가회〉가 뚜렷한 경향 없이 개별적인 작품활동만 전개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현대미술에 바탕을 둔 좀더 의식적이고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였음

---

3) 수원미술계의 활동은 인적인 맥락이란 면에서 고등학교 미술반 활동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수원농고 동문으로 구성된 〈향미회〉, 수성고 동문의 〈시공회〉, 수원고 동문의 〈수원고동문회〉, 수원여고 동문의 〈수원여고동문회〉, 유신고 동문의 〈유신미술인회〉 등을 들 수 있는데 . 이들의 활동은 가시적이었다기 보다는 수원미술의 인맥을 형성하는 밑바탕이 되었음.

- 다양한 장르의 표현형태를 통해 실존적 요소와 사회와의 관계, 소외된 삶, 세태풍자, 개인적 문제의식 등의 폭넓은 주제에 접근하였던 이 단체는 그룹의 명칭이었던 '포인트', '시점시점'이 의미한 것처럼 동시대 미술에 대한 자각과 아울러 그 주체적인 시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현대미술의 동향이 이제 극에 달한 듯 우리에게 수많은 추종을 요구한다. 물론 그것은 한 시대 인으로서 우리에게는 타당하고 수긍을 할 수가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시대적 지평에 대해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에게 제시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며 또 은연중에 우리에게 스며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현실에서 사변적인 구조 이론과 인간적인 공복의 괴리를 메꾸어 나갈 수 있는 그 어떤 것의 필요성 미래에 대한 ViSiON의 동시적인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다. 끊임없이 실험되어 오는 작품들의 현실적인 구조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의 진의를 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공허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 미술의 새로운 해소 방향을 탐색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 왔다는 것이 표면화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의 가능성과 견지 많은 이야길 할 수 있을 뿐이다. 아직은 깊은 통찰과 진지한 숙고를 거부해 왔던 우리의 평범하고 소박한 시도들이 우리가 우려했던 바로 그 난점을 해결 할 수 있을지는 확실히 모른다. 그것은 하나의 시점으로서 입장 밖에는 밝힐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

- 이들의 활동은 직접적으로 미술운동의 흐름을 추동한 흐름이라기보다는 모호하긴 하지만 좀더 본격적인 미술이념의 표방과 잠재적인 주체성에 대한 자각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해볼 수 있음
- 그리고 서울과의 관계성을 의식하면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지역성을 구축해보겠다는 의도에서 부천, 안양, 수원 등지에서 「경기순회전」을 개최하기도 하였음
- 현대적인 미의식을 근간으로 한 작품 활동을 전개했던 〈시점시점〉은 이후 내부의 분기된 흐름으로 인해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음
- 80년대 이후 한국 미술의 구조적 분화양상에 일정하게 영향 받았기 때문임

3) 시작회

- 〈경기청년작가회〉는 1985년 해체되는데 모임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미술적 지향의 부재와 내부의 갈등이 그 해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갈등은 1983년에 형성된 〈시작회〉를 통해서도 비슷하게 확인할 수 있음
- 지역을 기반으로 한 미술계의 경우 미술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문제의식으로 인한 갈등 못지않게 좁은 지역에서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점이 역으로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함
- 〈경기청년작가회〉도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 〈시작회〉는 〈경기청년작가회〉에서 활동하던 남부희가 탈퇴하면서 만들어지게 되었고 30세 이하의 젊은 미술인들이 참가하여 1983년 7월 크로바 백화점에서 창립전을 열면서 활동을 시작했음

> "수원의 '더 젊은'미술인들이 시작회를 만들고 창립전을 갖는다. 30세 이하 8명이 모인 〈시작회〉는 금년에 졸업한 회원만 4명으로 모두 젊은 열기로 새로운 시도에 하나같이 몰두하고 있다"[4)]

- 항상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이름을 '시작회'로 붙인 이 모임의 창립전에는 경홍수, 김성환, 김성배, 김중, 남부희, 백종광, 이석기, 이윤숙이 참여했는데, 이후 경홍수, 백종광이 탈퇴하고 어호선, 김갑식, 임병숙, 김영섭, 김영철, 한기백, 황민수 등이 참여하게 되었음
- 창립회장으로는 김성배가 추대되었고, 84년 이후부터 남부희가 회장을 맡아옴
- 회원 모두가 수원출신인 〈시작회〉는 사실주의에서 구상, 비구상, 실험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작품 활동을 보이고 있음
- 초대회장이었던 김성배는 당시 초대 글에서 "회원 각자의 미술이념은 다르나 하나의 공감대 속에서 회원 상호간 협조하며 폭 넓고 충실한 작품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라고 주장했는데 특정한 조형적 이념 없이 회원들의 개별적인 작업 활동에 기반을 둔 모임의 성격을 보여주는 글임
- 젊은 미술인들의 의욕에 찬 의지를 담아 출범한 〈시작회〉는 기존의 미협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활발한 작업흐름을 보여주었음

4) 『경인일보』, 1982년 7월 8일.

- 김성배와 이윤숙은 설치미술을, 경홍수는 드로잉, 김중은 추상성이 강한 작품을, 김영철과 김영섭, 이석기는 표현주의적인 작업을, 어호선은 종이와 철망을 함께 사용한 오브제 작업을, 남부희는 구상작품을, 백종광은 바둑판을 형상화한 극사실적 작품을, 김갑식, 임병숙은 반 구상형의 작품을 선보였음
- 〈시작회〉 역시 당시의 보수적인 화단의 수원화단의 분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문제의식 이외에는 젊은 미술인들의 특정한 이슈와 지향이 없는 자생적인 모임의 성격을 가졌고 그룹 활동을 통한 창작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발표기회의 획득이라는 다소 소극적인 문제의식에 머물렀던 한계를 가짐
- 아울러 당시 비슷한 존재이유를 가지고 활동했었던 〈경기청년작가회〉와 나름대로 경쟁관계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하지만 내부적으로 모임의 이러한 성격에 대한 나름대로의 문제의식은 있었고 이를 극복하려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동인으로서 일정한 한 가지 유파를 형성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현 단계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모여 비판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회원이 확충되고 발전하면 자체 내의 소그룹으로 이념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5]

-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분명한 흐름으로 전개되기 이전에 〈시작회〉는 1987년 제7회 회원전을 끝으로 해체됨[6]
- 비슷한 성격의 두 단체라 할 수 있는 〈경기청년작가회〉와 〈시작회〉간의 지역 내에서의 반목과 갈등은 결국 내부적인 논의 끝에 1988년 발전적으로 해체하게 되었음
- 그리고 그 결과 현대미술은 〈경기현대작가회〉, 구상계열은 〈경기형상회〉로 분화됨

---

5) 『경인일보』, 1985년 8월 27일.

6) 시작회 창립전-1983년 7월 9일(토)-7월 12(화) 수원 크로바 백화점 화랑. 참여 작가는 경홍수, 김석환, 김성배, 김중, 남부희, 백종광, 이석기, 이윤숙 8인이 참여. 시작회 두 번째 회원전-1983년 12월 11일~12월 14일, 수원 크로바 백화점 화랑. 김성배가 회장이었으며 출품 작가는 경홍수, 김석환, 김중, 김성배, 남부희, 백종광, 이석기, 이윤숙. 새로운 회원으로 김갑식, 정우건 그리고 어호선을 명예회원으로 영입. 제3회 회원전은 1984년 6월 28일~7월 1일, 수원 크로바 백화점 화랑. 세 번째 회원전에서 남부희가 회장을 맡았고, 출품회원은 김갑식, 김석환, 김성배, 김중, 남부희, 이석기, 이윤숙이며, 명예회원이었던 어호선도 회원자격으로 출품. 새로운 회원으로 임병숙 영입. 정우건은 군에 입대한 관계로 출품하지 않았고, 백종광은 탈퇴. 제4회 회원전은 1985년 11월 29일~11월 29일, 수원 크로바 백화점 화랑. 경홍수, 김갑식, 김석환, 김성배, 김중, 남부희, 이윤숙, 어호선, 신입회원으로 김영섭, 김영철, 한기백, 황민수, 미 출품회원은 이석기, 임병숙, 정우건. 이후 1987년 제 7회 시작회전을 끝으로 해체.

- 이 두 그룹은 당시 지역미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던 '미술세계'가 기획하고 1988년 서울 경인미술관에서 치러진 「경인작가 초대전」에 참여하면서 그 활동을 시작했음
- 경기도 미술을 중앙화단에 소개한 뜻 깊은 전시였던 「경인작가 초대전」에는 이외에도 부천의 〈삶의터작가회〉, 인천의 〈청년작가회〉가 참가하여 지역미술의 활성화를 위한 의미있는 전시로 평가됨
- 단순히 서울의 화랑과 지역미술계와의 교류를 넘어 그룹단위에 기반한 지역미술의 흐름을 소개했다는 면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4) 경기현대작가회, 경기구상작가회

- 〈경기현대작가회〉 역시 다양한 미학적 입장과 실험정신으로 현대적 표현양식과 조형성을 추구했던 모임으로 장르로는 서양화가와 조각가들이 참여하였으며, 주로 젊은 층이 주축이 되었음
- 김석환, 김성로, 김용희, 김중, 김철규, 박미자, 박종현, 백원기, 백일현, 백종광, 우무길, 이미혜, 주영광, 전원길, 허종수, 홍오봉이 참여하였음
- 구상 이외에 회화를 주축으로 한 현대미술의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고 있는데 이후 수원현대미술을 주도하게 된 이경근이 마련한 '장안미술관'을 중심으로 김석환, 황민수, 홍오봉이 결합하여 〈컴아트〉그룹을 결성하게 되는 바탕이 되기도 하였음
- 〈경기형상회〉는 구상작가들로 구성되어, 새로운 미술 사조를 재해석, 재조명함으로써 현대적 시각의 형상성을 추구하고 있는 모임이라 할 수 있음
- 자연주의에 바탕을 둔 구상미술에 초점을 두면서도 다채로운 표현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한 조형 실험을 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음
- 수원을 중심으로 한 안양, 송탄, 용인 등 경기 남부지역의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서양화가외 조각가 1명이 참여하고 있음
- 회원으로는 권대균, 권용택, 기무현, 김주영, 김영섭, 남부희, 류봉현, 박영복, 박유찬, 박충분, 백상일, 서해창, 이경근, 이상학, 이선옥, 이은숙, 이혜경, 임병숙, 정란숙, 조성호, 조진식, 주운항, 최순용, 최현식, 한기백이 참여하였음
- 하지만 이 모임은 아쉽게도「경인작가 초대전」을 끝으로 활동을 마감함
- 수원의 구상작가들의 모임은 이후 1991년 남부희가 결성한 〈수원구상작가회〉로 다시 그 맥을 이어감
- 〈수원구상작가회〉는 이후 〈경기구상작가회〉로 명칭을 바꿔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

- 〈경기구상작가회〉는 수원을 중심으로 안양, 안산, 안성, 송탄, 용인 지역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활동을 전개했으며 전국의 구상작가들을 초대하여 전시회를 갖기도 하고 서울, 안산, 용인 등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 구상미술을 알리는 활동을 펼쳤음
- 작가들로는 김학두, 권대균, 남부희, 김영섭, 김주영, 조완형, 이석기, 서해창, 조진식, 이종관, 한기백, 최현식, 강상중, 김수현 등을 들 수 있음
- 수원 화단의 경우 다른 지역화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구상의 전통이 이어진 것 역시 하나의 특징으로 기록될 만함
- 하지만 형상을 화두로 전개되었던 현대미술의 좀 더 다양한 구상회화의 스펙트럼이 발견되지는 않음
- 이는 아무래도 개별적인 활동에 기반을 둔 화풍 전개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밀도 있는 구상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 한계로 작용했던 것이 아닐까 싶음
- 마찬가지로 이들 그룹 역시 괄목할 만한 활동을 보여주기엔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음
- 오히려 중앙화단의 문제의식을 다소의 시간차를 두고 반복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데, 형식상의 실험과 조형원리에 대한 깊이 있는 문제의식과 고민들 대신 개별 회원들의 다양한 창작적 경향을 중심으로 전개하였고 구상과 현대미술이라는 장르상의 구분도 사실 당시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그리고 구상계열의 작가들 역시 지역특수성을 체화시킨 형상에 대한 고민과 지역미술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찾아보기 힘들었음
- 오히려 70년대 말 이후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그룹을 통한 창작여건의 개선에 더욱 무게중심이 실린 모습을 보여주었음
-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기반이 되어 수원 미술계는 양적으로 그 확산을 거듭하게 된 것 역시 사실임
- 두 집단의 경쟁적인 활동의 전개는 일종의 길항관계의 성격을 가지고 지역미술문화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점들은 장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몇몇 그룹도 비슷한 모습을 띄었음
- 1988년 김왕현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경기조각회〉의 경우도 특별한 쟁점 없이 조각이라는 장르를 중심으로 하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모임임
- 도내 조각계의 점진적인 발전을 위한 이 그룹은 당시로서는 경기도 내에서 유일한 조각 그룹이었는데 사실 배경으로는 수원 올림픽 기념 조각공원의 조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다고 함[7)]

- 상대적으로 작업이 용이하지 않은 조각이라는 장르를 중심으로 활동을 더 이어가려 노력하다가 결국 1991년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활동을 마감함
- 그러다가 1996년 이윤숙, 박유찬, 곽동기, 구자영, 김래환, 김유미, 박근용, 백종영, 엄종명, 우무길, 윤상화, 허종수, 황병광 등 18인의 조각들이 모여 〈수원조각회〉를 결성하고 이후 꾸준한 활동을 통해 수원 조각계의 흐름을 이어감
- 이러한 장르 중심의 모임으로 1992년 결성된 〈경기수채화협회〉의 활동 역시 들 수 있음
- 장르 중심의 소모임 활동의 경우 특히나 이슈나 쟁점보다는 모임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한 회원들 간의 친목과 교류, 그리고 그 활동의 결과로서의 정기전 등이 활동의 중심이 되었고, 이런 이유에서 소극적인 활동을 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5) 일구팔이일이회

- 이밖에도 80년도에 결성된 미술그룹 중에는 유일한 여성작가들의 모임인 〈일구팔이일이회〉를 꼽을 수 있음
- 1982년 1월 2일 창립전을 가진 〈일구팔이일이회〉는 창립날짜에서 유래된 이름임
- 회원은 수원 출신 미대생들이었는데 모두 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 하지만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여성미술과는 거리가 있었으며 단지 지역적 연고를 같이 하는 여성미술들의 자생적인 모임이었음
- 하지만 이는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눈여겨 볼만한 사건임
- 직접적으로 여성미술의 이념을 지향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작품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활동에 기반을 둔 여성미술인들의 모임이라는 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특정한 지향과 스타일로 묶여진 모임이 아니라는 측면이 오히려 그룹의 오랜 생명력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창립 작가로는 최경미, 박충분, 이윤숙, 최순용, 이미정, 최순희, 강미영, 이숙, 심언순, 박유찬, 현경원, 황은하가 활동하였으며 이후 회원을 늘려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음
- 모임의 느슨하고 자생적인 구조가 활동의 지속성과 생명력을 보장했음

---

7) 박근용, "수원조각의 현실과 가능성", 『미술세계』, 1999년 2월호.

6) 성묵회

- 이외에 언급할 수 있는 그룹으로는 1982년 창립 이래 꾸준히 정기전을 개최해온 〈성묵회〉를 들 수 있음
- 한국화를 기반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는 〈성묵회〉는 처음에는 전통적인 방법에 바탕을 둔 실경산수화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수묵의 현대적 수용이라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
- 예로부터 한국화의 전통이 강하였던 지역적인 맥락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온 〈성묵회〉에 참여해온 작가로는 이길범(초대회장), 조성락, 기노철, 심세호, 김용근, 김정은, 김정환, 육동명, 이선열, 이승영, 이재흥, 최종대, 홍유선 등임
- 〈성묵회〉는 이후 새로운 회원들을 받아들이면서 활동을 확대하였는데 이 역시 특정한 방향을 두지 않고 한국화라는 장르에 기반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모임의 성격을 규정한 결과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묵회〉는 수준 높은 회원들의 작업 수준과 지속적인 활동의 전개로 경기도 한국화 화단 내에서 중요한 위상을 점하고 있는 그룹이라 평가 할 수 있음

7) 그 외 아마추어 단체들

- 이밖에도 80년대의 미술 소그룹으로 아마추어 모임을 들 수가 있음
- '아뜰리에 미술'로 불리는 이러한 아마추어 모임은 나름대로의 대중적인 미술활동이라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친목과 사교모임에 기반을 둔 교양 모임의 성격이 강하였고, 모더니즘 미술의 신화를 반복하고 대중적으로 소비하는 활동에 불과하다는 평가 역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략적인 개요만 드러내고자 함
- 1983년에 창립된 〈수원일요화가회〉는 박용복, 이선열, 이선옥 등이 지도하였고 2년 뒤인 1985년에 〈수원광교사생회〉가 남부희를 중심으로 결성하였음
- 그 후 1988년 권대균과 남부희를 중심으로 〈수원사생회〉가 미협 산하단체로 창립하게 되는데 이렇듯 경쟁적으로 비슷한 성격을 가진 여러 모임이 만들어진 것은 효율적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조차 당시의 힘 관계에서 기인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
- 이들 아마추어 미술모임은 단순한 교양미술 강좌의 성격을 다소 웃도는 활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적으로 지역미술의 활성화라는 문맥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이후 보다 발전적인 지역미술의 발전과 미술대중화라는 면에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흐름이 바로 이러한 아마추어 소모임 활동임

- 문제는 그 자생적인 측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활동을 보다 발전적으로 견인해 줄 목적의식적인 활동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지역문화의 대중화와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아마추어 소모임 활동은 미술문화 발전의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8) 새벽

- 지역미술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문제의식은 80년대라는 시대적 문맥 속에서 출발한 미술동인 〈새벽〉에서 그 단초를 엿볼 수 있음
- 수원에서 본격적인 자기 이념과 지향을 가지고 전개했던 본격적인 흐름은 아무래도 미술동인 〈새벽〉에서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임
- 물론 현실적인 지향을 분명히 했던 80년대의 이념적 성과들을 반영하였던 〈새벽〉 역시 전문적인 미술실천에 초점을 두었다기 보다는 당시의 사회, 정치적인 이슈와 이를 문화적으로 실천하는데 더 많은 비중을 둔 것은 사실임
- 하지만 소집단이라는 의미가 자생적이고 자족적인 활동을 넘어 분명한 지향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실천에 바탕을 둔 흐름이라는 면에서 이에 부합하는 본격적인 의미의 소집단 운동의 시작을 〈새벽〉에서 찾는 것은 무리가 아님
- 왜냐하면 현실적인 지역문화의 문제들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이를 대중단위의 활동과 결합시켜 해결하려는 노력을 처음으로 보인 단체이기 때문임
- 1988년 결성된 미술동인 〈새벽〉의 전사는 1987년 항쟁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결성되기 시작한 〈수원문화운동연합〉 (수문연)으로 거슬러 올라감
- 〈수문연〉 시각예술위원회에는 나눔미술분과와 열림미술분과로 나누어 활동을 전개
- 당시 문예운동조직이 그렇듯이 〈수문연〉 시각예술위원회의 주된 관심은 모순적이고 억압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에 있었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 활동을 전개했음
- 따라서 이들은 개별적인 전문 창작작업보다는 일반적인 정치현안에 비중을 둔 문예실천에 더 비중을 두었음
- 노동미술, 일반인을 상대로 한 미술교육, 전문창작집단 지원과 같은 활동에서부터 일상적인 미술운동이라 할 수 있는 걸개그림, 벽화, 영정제작, 생활미술 운동 등이 주된 활동 영역이었음
- 당시의 보수적인 수원 화단의 분위기에서는 이 조차도 미술계 내부의 정서적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겪어야 했음

- 이러한 활동들이 기반이 되어 문예운동의 전문성과 자기전망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새벽〉이 결성됨
- 수원의 젊은 미술인들이 주축이 된 〈새벽〉은 선배 세대들이 느끼지 못한 현실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함
- 창립 선언문에서 “제도권 미술문화 정책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냉엄한 비판과 올바른 방향의 모색으로 자주적 창조적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문화를 대변하여 우리 모두의 참다운 문화로 정착,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미술형식과 내용을 가꾸어 민중의 삶을 대변하고 타 문화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의 균형을 이루며 학습을 통한 자기완성의 끊임없는 모색을 통해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마련하여 미술의 사회적 책임과 작가 개인의 실천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동인이 될 것”을 다짐
- 이때 활동했던 인물로는 김영기, 주영광, 이달훈, 최익선, 박태균, 이병렬, 박준모, 양순희, 한인규, 손문상, 이주영, 박경수, 서동수, 양혜영, 황호경, 신경숙, 최춘일 등
- 하지만 작품의 내용에 있어서 고발이나 비판, 참여의 수준이 보다 직설적이지 못하고 은유적인 표현이 많은 점이나 완성도가 미흡한 작품들이 눈에 띔
- 이는 민중미술 전체가 가진 시대적 한계인 동시에 개별적인 작가의 구체적인 형상화에 대한 고민의 부족과도 연결됨
- 하지만 〈새벽〉의 경우 모더니즘적 미술의 신화를 동어 반복하던 기존의 수원 미술의 흐름과 분명 구별되는 면이 있고 그것은 미술의 현실성에 대한 이들의 문제의식과 실천에서 기인했다는 면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새벽〉은 1989년 첫 전시인 「오늘 이 땅」전을 가진 데 이어 1990년 「정치·정치‥정치…」전을 수원 선화랑에서 열었는데, 유화, 포스터칼라, 펜화, 조소, 만평의 다양한 장르를 통해 현실인식을 보여준 이 전시에 대해 심광현은 “심도 있는 표현은 부족하지만 리얼리스틱한 접근이나 다양한 기법들이 긍정적이며 지역미술에서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 것은 그 지역 수준이 그만큼 향상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함
- 1,000여명이 넘게 찾은 관객의 호응으로도 성공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 전시에는 노동자의 진보적 삶을 주제로 한 이주영, 황호경, 신경숙, 구본주, 이오연, 정치적 상황을 다룬 김영기, 차진환, 류우종, 농촌문제와 도시빈민을 주제로 한 주영광, 최춘일, 박경수, 권용택, 양혜영, 박태균, 만화와 꼴라쥬 기법을 응용하여 풍자적 화면을 보여준 손문상, 이병렬, 최익선, 서동수 등 33명의 작가들이 참여함
- 개별 회원들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형상화로 이어진 이 전시는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대중적인 민중미술의 소개라는 측면에서 각별하게 평가될 수 있음

4. 90년대 이후 수원 지역 미술 소집단 활동

1) 수원미술인협의회

- 이후 〈새벽〉은 1991년 〈수원미술인협의회〉(수미협)로 조직적 발전을 하게 됨
- 〈수미협〉은 사회변혁문제 일반과 아울러 구체적인 지역미술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방하고 있으며, 〈수미협〉 선언문에서 이런 점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음

> "지역미술인들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사회의 질적 발전과 꾸준한 창작실천을 통해 내용과 형식의 성과를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 수미협은 이제까지의 민족·민중미술운동의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더욱 심화된 창작내용과 표현의 풍부함을 얻어 나갈 것이며 다양한 사업과 발표회를 통하여 지역대중들과 지속적이고 신선한 만남의 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수미협은 지역미술인들의 대중적인 합의체로서 내부의 다양한 예술관의 차이를 장점으로 생각하고 수미협의 노력에 동의하는 한 창작의 방법과 그 선택에 있어서 작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문호를 개방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호의 개방과 연대의 노력은 당면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진지한 대안마련을 통해 지역 대중 속에 뿌리내리는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수미협의 과제들은 지역주체인 지역대중의 삶을 반영하고 그 삶과 함께하는 미술형식과 내용을 가꾸어 지역대중의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며 사회의 갖가지 문제점을 해소해나감으로써 이루어질 것입니다.…"

- 〈수미협〉은 보다 체계적으로 조직정비를 하여 회화 1,2분과, 생활미술분과, 조소예비분과, 만화분과, 사진분과로 세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회원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노동상담소 간사, 쓰임새 있는 미술을 지향하는 노동자 문예 활동가 조직인 '노동미술연구소', 미술운동의 기동성과 현장성을 위한 '현장 미술패'를 만들었음
- '노동미술연구소'에는 손문상, 황호경, 신경숙 등이 활동하였고, '현장미술패'에는 '노동미술연구소'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이외에 차진환, 서동숙, 김영기, 최춘일, 류우종, 이병열, 최익선, 이주영 등이 참여하였음
-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수원과 서울의 그림마당 민에서 열린 「오늘의 이 땅」전과 91년 박창수 열사 장례식을 위한 방송차 입체 설치물로 제작한 '박창수 열사 투쟁도' 및 '부

활도'의 제작과 시위현장에 필요한 미술품의 제작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노동자미술교육 등의 현장 노동자 미술지원 활동 등이 있었음

- 하지만 〈수미협〉 역시 지역미술 발전과 그 형상화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성과는 찾아보기 힘든데 이는 당시 문예조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의 한계와 현실적인 이유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오히려 당시 현실적인 현장의 요구가 이들에게 더 급선무였던 시대상황이 이를 대신해서 말해줌
- 좀 더 가시적인 활동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예총) 수원지부의 결성과 그 활동에서 볼 수 있음
- 민예총 수원지부는 당시 권용택이 대표로 있었던 〈수미협〉과 이성호가 대표로 있었던 풍물단체 〈삶의 터〉를 중심축으로 하고 여기에 사진, 문학이 참여해 면모를 갖추고 창립되었음
- 〈민예총 수원지부〉는 다양한 분과의 활동이 있었는데 이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인 분과가 바로 미술 분과였음
- 미술 분과의 바탕은 〈새벽〉이 모태가 된 〈수미협〉이었으며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수원천 살리기 운동' '수원시민 환경한마당', 「전국환경미술제」, 「수원 200년 역사화」전을 개최하였음
- 그리고 벽화운동으로 '남수문 목원 걸개도'를 제작하였는가 하면「일하는 사람들」전, 「4인 판화」전 등을 개최하였으며, 지역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사업 역시 미술 분과의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였음
- 특히 「환경미술제」는 전국적인 규모로 개최하여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음
- 1991년 〈수미협〉의 기획으로부터 시작된 「환경미술전」은 이후 지속되어 1996년에는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과 그 일대에서 전국환경미술제로 확대 발전되었음
- 「전국환경미술제」는 수원환경운동센터가 주도한 전국규모의 행사였으나 민예총수원지부 미술 분과 회원들로 구성된 수미협 회원들이 참여, 심혈을 기울인 행사로 대내외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음
- 당시로서는 부문운동이라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제로 한 전국적 규모의 미술제라는 면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님
- 환경미술의 경우 지역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가지고 전개되었다는 면에서도 생각해볼 지점이 자리함
- 지역의 구체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개입은 자연스럽게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시선과 관심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며, 지역주민들의 삶과 연관된 실질적인 문제를 다

루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미술과 문화가 결합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과 지역단위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임

- 아울러 관객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 노력함
-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보다 본격적인 미술 언어로 형상화시켜 내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의와 가능성이 무시될 수 없음
- 같은 해 10월 12일에는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에서 「수원성(화성) 축성 200주년 기념 역사화전」을 개최했는데 수원과 인근지역 작가들이 함께 수원의 역사를 형상화시킨 뜻 깊은 행사였음
- 이 전시는 수원과 인근지역인 성남, 안양, 여주, 안성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직접 수원성을 답사하고 스케치와 토론을 거쳐 제작한 작품들이 전시되었으며, 이 역시 지역미술에 대한 일정한 고민을 담고 있다는 면에서 주목을 요함
- 단순한 역사화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기반인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이면서 이를 통해 다시금 지역의 미술운동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전시였기 때문임
- 이때 참가한 작가들은 수원, 안양, 성남, 평택, 안성, 여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길범, 권성택, 주영광, 권용택, 신경숙, 김석환, 김중, 양혜영, 박종훈, 이오연, 천명철, 기노철, 홍사계, 임종길, 김영기, 이선옥, 황영식, 박요아, 안상복, 조용상, 최기운, 김도근, 백진원, 이병철, 김태헌, 나정태, 남동호, 이화섭, 유구연, 박수인, 류연복, 조성락, 이효범, 정도용, 류충렬, 서종훈, 김운성, 김서경, 서동수, 박경수, 류승우, 신동한, 이달훈임
- 이 전시는 지역의 문화적 풍경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기획전이라는 면에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전시로 평가됨
- 하지만 정치문화적인 지역의 공간성을 드러내기에는 조형적 한계와 문제의식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됨
- 의미 있는 몇몇 활동에도 불구하고 수원의 민중미술의 흐름은 당시의 문예운동의 전체적인 틀 내에서 좀 더 진일보한 문제의식을 담아내기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음
- 자신의 전문적인 창작활동에 기반을 둔, 조형성의 실험과 확대를 통한 현실성의 외화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사회문화운동으로서의 측면이 더욱 강했던 점, 구체적인 지역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시킬 수 없었던 점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음
-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객관적인 요인들, 일상의 문화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미술실천, 지역에 기반을 둔 공공미술이나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개

발, 대중문화를 둘러싼 각종 현실문화 지형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담아내기엔 다소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이밖에도 지역문화발전과 정책적 대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고민 역시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당시의 현실인식의 시대적인 한계와도 얼마간은 연동되는 문제라 판단됨
- 하지만 서울이라는 중앙의존적인 미술실천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의식성과 지향성을 갖고, 현장에 기반을 둔 대중적 미술실천을 도모했다는 면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음
- 지역미술이란 것이 단순히 지역적 특수성의 형상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단위로 한 미술문화의 활성화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평가됨
- 이런 면에서 일찍부터 전개되었던 「환경미술전」의 경우 지역의 현안에 대한 미술적 개입과 실천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만한 활동이었음
- 1989년 수원 미협의 권대균과 지부장 남부희의 주도로 개최된「수원미술제」는 한 달이 넘는 기간과 다양한 단체와 미술인들이 참여한 수원 초유의 대규모 미술행사였음
-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당시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분기된 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던 모더니즘과 리얼리즘 계열 모두가 참여하여 수원미술의 활성화를 위해 미술제가 기획되었던 사실임
- 취지문에는 “수원미술계의 호혜적 결집을 통하여 지역에서의 진취, 창조적인 미술활동의 기반을 세우고 참다운 미술문화의 창달로 시민과 함께하는 미술풍토의 창작을 꾀함에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전시회는 선화랑, 크로바백화점 전시장, 수원문화원 전시장, 정화랑 등 수원의 모든 전시공간에서 열렸고 수원 미협에 소속된 각 분과의 전시회와 아울러 「경기현대미술작가회전」, 「일구팔이일이회전」, 「미술동인 새벽전」, 「신인작가전」, 「수원지역미술학우회전」이 열렸음
- 이 전시를 통해 이후 수원미술계를 이끌어갈 그룹들이 가시화되었음
- 미술동인 〈새벽〉과 〈경기현대미술작가회〉도 그 중의 하나이며 이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신인작가전」에 참여했던 작가들을 중심으로 1989년 결성된 〈시맥회〉도 ‘수원미술제’를 계기로 등장했음
- 1991년 ‘선화랑’에서 첫 전시를 가진 〈시맥회〉는 박용국, 김종현, 안기화, 안택근, 유동일, 이득현, 이상달, 이재용, 차진환, 최광천, 최세경, 최원민 등 젊은 작가들이 참여했는데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지는 못했음

- 젊은 작가들이 중심이 된 의욕적인 출발에도 불구하고 그룹 활동에 있어 지향성에 대한 고민과 문제의식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으며, 그 당당한 문제의식만은 높이 살만한 것이었음
-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적 전환기는 수원의 미술계가 이전과는 다른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흐름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
- 90년대는 다수의 전시공간들이 흥망을 거듭하게 되었고 이전의 모더니즘 대 리얼리즘을 넘어서 보다 다양한 흐름들이 생겨난 시기이자, 전국적으로 지역미술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음
- 그런 면에서 「수원미술제」는 민중미술과 모더니즘 계열의 작가를 포괄하여 지역의 미술문화발전을 위해 기획되었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전시라고 볼 수 있음
- 그 완성된 의미와 결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시도로서 이후의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면에서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됨

2) 컴아트 그룹

- 90년대의 가장 특징적인 흐름은 〈컴아트 그룹〉의 활동에서 우선적으로 찾아볼 수 있음
- 수원미술계의 실험적인 흐름은 〈시작회〉에서 활동을 하였던 김성배를 중심으로 전개됨
- 김성배는 〈안드로메다 미술연구소〉, 〈수리미술연구소〉를 통해 실험적인 미술을 모색하고 후배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음
- 이윤숙, 전원길, 이경근, 황민수, 김석환이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작가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은 90년대 수원의 실험적인 흐름의 주요 축으로 활동하게 됨
- 특히 1990년 수원문화원에서 열린 「나·비·뿌·리'전」은 수원 최초의 설치미술전으로 평가됨
- 김성배, 이경근, 황민수, 김석환 이외에 고성호, 김경한, 장지성, 허종수, 홍오봉이 참가한 이 전시는 당시 수원 미술계에서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설치미술전으로 수원미술계에 신선한 영향을 주었음
- 『경인일보』에 실린 단신은 당시의 전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음
- "고성호씨는 '왼소리-神과 만나는 자리'를 통해 안팎의 힘을 원천적 구조로 표현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김경한씨는 네온사인과 검은 상자, 숯을 이용해 우리민속의 샤머니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 김석환씨는 면도칼로 천장을 가르는 형상을 보여줘 닫힘(벽)에 대한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김성배씨는 인동초 덩굴을 이용한 바람의 흐름을 표현했고 허종수씨는 산업화사회에서의 폐허를 풍자적으로 형상화한 '공용의 뱃속을 위한'을 설치하고 있다. 그밖에도 홍오봉씨는 5백원짜리 동전을 나뭇가지에 앉

혀 학의 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황민수씨는 나뭇가지를 이용해 둥지를 잃어버린 현대인의 삶의 황량함을 표현하고 있다."[8]

- 설치미술은 한국 미술계에서 90년대에 들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미술흐름임
-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의 이원화된 구도를 타개할 여러 가지 미술 흐름이 9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수원의 미술계 역시 이러한 다원화된 흐름을 경향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미술 그룹들 역시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컴아트 그룹〉과 〈슈룹〉임
- 〈컴아트 그룹〉은 앞서 말했듯이 이경근이 운영하고 있던 '장안미술관'을 중심으로 김석환, 황민수, 홍오봉, 황민수 등이 결합하며 만든 미술단체이며, 1990년 1월 「다섯칸」전을 계기로 발족되었음
- 당시 〈경기현대작가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던 이경근, 김석환, 허종수, 황민수 , 홍오봉이 참여한 「다섯칸」전은 독립된 공간의 칸을 구획하여 퍼포먼스와 설치작업을 통해 개인적인 삶을 드러내고자 하였음
- 이들의 문제의식은 기존장르의 제한된 문법을 통해 소통을 통한 교감 작업에 초점을 두는 것이었으며, 「나·비·뿌·리」전은 이 전시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개된 기획전이었음
- 90년을 전후로 하여 이렇듯 설치미술을 중심으로 한 기획전이 꾸준히 이어져 온 측면 역시 수원미술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라 하겠음
- 이러한 흐름은 민중미술이나 모더니즘 계열의 작가군 이외에 독립적인 흐름으로 활동을 이어가게 되며 1988년 김성배, 김철규, 전원길, 이윤숙이 기획한 「새로운 전환」전, 1989년의 「생각중」전, 1994년의 미협 수원지부 주최의「부드러운 물」전 등 지속적이고 꾸준한 설치를 중심으로 한 기획으로 드러남
- 아울러 작가들에 의한 기획전이 많았던 것도 그 특징적인 면모라 할 수 있으며, 이들 활동의 중심에는 〈컴아트 그룹〉과 〈슈룹〉이 있었음
- 〈컴아트 그룹〉은 90년대에 새롭게 등장했던 포스트모더니즘과 기존의 민중미술의 성과를 받아들이고 세계화를 통한 지역성의 실현이라는 당시로서는 선구적이라 평가받을 수 있는 지향성을 가지고 결성되었음
- 아울러 새로운 예술형태를 '교감예술 Communication Art'로 명명하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한 전달 이상으로 생명 창조의 한 방법이며 모든 세계와의 대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8) 『경인일보』, 1990년 4월 20일자.

- 이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주장을 드러내기 위해 새로운 의미의 세계를 위한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수원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수원의 성곽을 배경으로 한 장안원에서 「교감예술제」를 개최하면서 화려하게 포문을 열었음
- 「교감예술제」는 행위·설치미술을 포함하여 미술, 문학, 음악, 무용, 연극이 장르간의 벽을 허물고 치루어진 총체적인 예술행사로 참가인원만 100여 명에 이르렀고 많은 관람객이 성황을 이룬 대중적인 행사였음
- 자연과 생명을 주제로 대중과 교감하려 했던 〈컴아트 그룹〉은 연이어 7월에 김씨네 아트비디오 제작의 「교감예술제」와 디졸브에 의한 멀티비젼 형식의 첫 시사회를 연희조형관에서 가졌고, 제2회 「교감예술제」가 장안 공원에서 이어졌으며 8월에는 컴아트스튜디오 개설 및 정보 시스템 설비 기념 제1회 비디오 세미나를 개최하고 「작업일지」전이라 하여 홍오봉, 김석환, 황민수, 이경근의 실내시간 작업 및 행위예술을 발표했음
- 10월에는 이건용을 초대작가로 하여 '행위예술의 체험적 의미'를 주제로 작가와의 대화 및 「성곽 환경」전 비디오를 제작하였고 11월 9일에는 컴아트 스튜디오에서 슬라이드 감상회 및 이승택 강연으로 제2회 세미나가 '베니스 비엔날레와 국내작가의 나아갈 길'을 테마로 전개되는 등의 왕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갔음
- 〈컴아트 그룹〉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현대예술의 다채로운 실험을 통해 대중들과 교감하려는 비교적 분명한 메시지를 표방하였으며 지역미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타 지역, 해외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였음
- 이들의 스케일 큰 포부와 활동은 지역미술을 서울과 대등한 위치로 끌어 올리려는 야심찬 비전으로까지 이어졌으며, 이는 얼마간은 성공적으로 평가되기도 했음
- 당시 중앙미술계의 반응은 〈컴아트 그룹〉의 이러한 야심이 단순한 야심만이 아니었음을 반증함
- 아울러 〈컴아트 그룹〉과 「교감예술제」는 가장 많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수원의 독자적인 현대미술의 흐름이기도 했음
- 여러 가지 평가에도 불구하고 〈컴아트 그룹〉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수원의 현대미술을 전국적 단위에 소개한 초유의 그룹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런 면에서 지역문화, 지역예술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음
- 중앙화 더 나아가 세계화를 통한 지역예술의 활성화라는 이들의 문제의식은 90년대에 들어 등장하기 시작한 대규모의 이벤트성 예술제가 갖는 대중성과 홍보의 중요성을 선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중앙단위의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을 때 지역미술 역시 다른 지반 위에서 활동을 가시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것임

- 아울러 〈컴아트 그룹〉은 자신들의 퍼포먼스를 비디오로 기록하여 미디어에 기반한 소통의 계기를 넓히려고 애쓰는가 하면 강연과 슬라이드 감상회, 외부 평론가의 초청 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통해 그 영역을 넓힘
- 이후 〈컴아트 그룹〉의 활동은 93년 중국과의 실험예술 교류제인 「장안문에서 천안문까지」, 94년 「북경교감예술제」, 1996년 「수원 국제교감예술제」 1998년 「98국제교감예술제」 등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활동으로 90년대를 이어갔음
- 아울러 지역을 넘어 아시아를 무대로 한 국제 교류전, 테크놀로지와 다양한 미디어의 결합, 설치, 퍼포먼스가 결합된 특유의 실험적인 활동을 꾸준히 지속시켜 나감
- 〈컴아트〉가 기획한 국제교류전의 경우 해외의 미술을 소개함과 동시에 수원의 미술을 세계로 알리는데 크게 기여함
- 그리고 아시아를 활동의 무대로 삼아 서구 중심적인 미술과 다른 독자적인 미술문화를 선보이려 한 점 역시 이들의 선구적인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음
- 〈컴아트 그룹〉의 경우 단순한 지역미술의 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국제교류와 전국단위의 활동을 통해 지역미술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그룹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역미술의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많은 생각의 여지를 남김
- 지속적으로 퍼포먼스라는 장르를 활발하게 전개했던 것 또한 눈여겨 볼 측면임
- 수원미술계에 퍼포먼스를 위시한 실험미술의 활발한 활동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며, 그런 면에서 지역 미술계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역량과 실험적인 시도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물론 구체적인 지역성과 지역문화에 대한 관점을 엿볼 수는 없지만 다른 각도에서 지역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수행한 것이라 평가될 수 있음
- 하지만 대중과의 소통과 지역미술의 세계화라는 앞선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이벤트 중심의 행사와 다소 무리한 기획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 재정상의 문제와 지속력의 한계, 중심적으로 활동했던 작가들이 빠지게 되면서 점차 쇠퇴일로를 겪게 됨
- 1998년경 모임의 주창자였던 이경근이 탈퇴하면서 사실상 해체를 하게 된 〈컴아트 그룹〉은 2001년 황민수, 박근용, 김석환이 주축이 되어 「행위·영상·설치 프로젝트 시티수원 2001, 자극적인 일상-틈」전을 개최하여 그 끈질긴 활동력을 보여 주었음[9)]
- 〈컴아트 그룹〉의 독자적인 활동에 기반한 지역미술의 중앙화와 이를 통한 지역미술의 홍보라는 측면에서 분명 생각해 볼 측면이 많은 활동이라 평가됨

9) 전시도록은 '2001 Dream·Performance·Art·Festival'로 발간

■ 적극적인 행사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유감없이 알렸던 〈컴아트 그룹〉과 아울러 수원을 거점으로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현대적인 미술 흐름을 보여준 그룹이 〈슈룹〉임

3) 슈룹

■ '슈룹'은 순 우리말로 '우산'을 뜻하는 동시에 인도 산스크리트어로는 '높은 곳에서 전체를 조망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음

■ 1990년을 전후로 하여 김성배, 이윤숙, 강성원, 도병훈, 전원길을 주축으로 결성된 〈슈룹〉은 특정한 조형이념과 원리를 내세우지도 않고 회원들 간의 결속을 도모할 아무런 장치 없이 자유스러운 활동을 지향하고 있는 그룹임

> "… 슈룹 기획전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참여 작가 개인의 개성과 자율적인 다양성을 최대한 중시하였다. 따라서 미술인들의 특성이자 취약점인 지극히 개별적인 입장에 천착한 현상 또한 사실이다. 전시회의 틀 역시 가능한 한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먹은대로 자유롭고 유쾌하게 진행하였다. 한편 전시회의 전체적인 내용과 방향이 누구나 알기 쉽게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특정한 주제를 다룬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슈룹의 이미지가 추상적이며 난해하며 애매모호하고 일관성이 불분명한 점을 지적받기도 한다. …"[10]

■ 하지만 이러한 틀에 얽매이지 않은 모임의 성격이 〈슈룹〉의 독특한 특징이자 지속력을 갖게 한 동인이 되었음

■ 특정한 미술이념과 원리로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극히 개별적이면서도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수 있었던 것임

■ 전시 역시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설치나 실험미술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외화될 수 있었음

■ 이런 독특한 활동이 〈슈룹〉을 90년대 수원미술의 활기차고 실험적인 면모의 한 복판 위에 있게 한 요인이 되었음

■ '장소와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한 정체성의 탐구와 표현'이라는 그룹 특유의 성격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음

---

10) 〈슈룹〉 기획전 '인간의 자연-대단히 감사합니다' 도록 서문에서 인용

- 〈슈룹〉의 전사는 1988년 김성배를 중심으로 몇몇 작가들이 만든 공동 작업실과 〈수리미술연구소〉가 계기가 되었음
- 〈수리미술연구소〉는 백두산의 한 자락이기도 한 수리산 근처를 무대로 「융합 21세기」전, 「맨벽-토」전, 「쌀·보리·콩」전을 개최하면서 이후의 〈슈룹〉의 독특한 지향이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와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시작됨
- 이후 〈슈룹〉은 한반도 일대의 각 지역의 산들인 광교산, 문수봉, 관악산, 인왕산, 치악산, 백운산, 설악산, 지리산 지역 등을 답사하여 그 체험의 결과를 「한반도」전이라는 전시로 엮기도 하고, 이어 1999년에는 '지리산에서 진부령까지' 백두대간 종주를 하여 직접 답사를 하여「백두대간」전을 열기도 하였음
- 한국인들의 삶의 실질적인 근원이자 터전이라 할 수 있는 백두대간의 직접적인 답사와 체험은 국토라는 보다 근본적인 지평 속에서 예술과 창작의 문제를 고민하려는 〈슈룹〉 특유의 성격을 잘 보여줌
- 2001년 「내가 서있는 자리」전을 통해 서해안 바닷가와 맞닿은 경기도 화성의 지리적, 환경적인 특성을 탐구하기도 하였음
- 이러한 관심은 해외로 까지 이어져 네팔, 인도, 히말라야를 여행하면서 팀원들 간의 자유로운 유대와 개인적인 창작의 모티브를 얻기도 하였음
- 하지만 〈슈룹〉의 작업이 여행을 통한 그 단순한 기록에 있는 것은 아님
- 오히려 구체적인 답사와 체험을 통해 보다 근원적인 단위에서 자신들과 창작의 원천들을 되짚어 보려는 문제의식을 담아내고 있다고 하는 것임 적합함
- "우리의 자연을 보고 느끼는 과정에서 문화를 아우르는 예술의 기(氣) 회복운동으로 보고, 여기서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정체성에 초점"[11]을 두려 한 것임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슈룹〉은 자연스럽게 모임의 성원들이 살고 있는 터전, 곧 자신들의 작업의 무대이자 토대가 된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됨
- 이런 문제제기는 1995년 〈슈룹조형연구소〉 기획의 「아리랑, 이어지는 자연-역사와 예술-중심과 주변」전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그 외의 지역을 주변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문제제기 한 바 있으며 이후 2003년에 기획된 「경중가인(鏡中佳人)-Outlook for the Future」전을 통해 보다 본격적으로 제기하게 됨
- 이 전시는 그 동안의 성과, 곧 백두대간의 일부인 경기도의 한북정맥과 한남정맥 그리고 한강, 서해바다의 지역적 특성을 탐구하면서 나름대로 모색한 '경기도의 새로운 힘'

11) 〈슈룹〉 2001년 기획전 '내가 서있는 자리' 도록 서문에서 인용

이라는 주제를 가시화시킨 전시이며, 아울러 작가들의 생활터전인 경기도의 자연환경 실체와 정체성을 찾고자 기획된 것임

- 이는 지역적 특수성과 미술환경이라는 지역미술의 화두를 선취하는 문제의식이기도 함
- 전시의 제목인 '경중가인'은 '거울속의 미인'이란 뜻으로 경기도의 지역적인 특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임
- 언제나 서울의 변방에 위치하여 그 반영된 이미지만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의 실속 없는 현실을 빗댄 말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이런 현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나름대로 고유한 아름다움을 펼치고 있는 의미를 덧붙인 말이기도 함
- 이 전시는 미술을 매개로 지역성에 대한 관심을 집중했던 전시라는 면에서 주목할 만한 기획전이라 평가됨
- 전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1부는 수원미술전시관에서 '경기도의 정체성'에 초점을 두어 곽규진, 김성배, 도병훈, 안택근, 유옥희, 이구산, 이우숙, 이윤숙, 전원길 등이 참여하였고, 이어 2부는 안성 소나무 갤러리에서 강성원, 김미경, 김필래, 김해심, 김희곤, 박신혜, 박용국, 이혜경 등이 참여하였음
- 이밖에도 관련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당시 전시의 풍경은 다음과 같음

"몸소 백두대간을 탐사했던 김성배는 오프닝에서 퍼포먼스를 벌였다. 검은 선그라스와 등산화를 신고 큰 배낭을 맨 퍼포머 김성배는 백두대간을 답사했던 여행차림을 하고 돌과 거울, 그리고 밥이 담긴 밥공기를 이용해 일명 '밥'으로 치부되는 경기도의 허상을 깨는 작품을 선보였다. 김성배는 "백두대간의 줄기인 한남정맥이 가로지르는 경기도의 능선은 골프장과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훼손의 극치를 달린다"며 "경기도가 제 모습을 잃고 서울의 주변부로 전락한 현실을 퍼포먼스로 선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도병훈은 경기도의 푸르고 굵은 물줄기와 산세를 광목천(205×435cm)에 안료를 칠한 대형작품을, 이윤숙은 자신이 경작하는 화성 봉담의 밭에서 가져온 흙 등을 이용해 '문수단상'을 선보였다. 또 이우숙은 화성의 아름다운 8경의 하나인 '입파도'를 소재로 '서해안 'Woo30601-섬! 입파도'에서 약이 든 캡슐로 섬과 주변의 정경을 담아냈다."[12]

12) 『경기일보』, 2003. 9. 16.

- 「경중가인」전은 그동안 〈슈룹〉의 관심이 지리적이고 환경적인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경기도라는 지역성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고 제기했다는 면에서 의미를 가짐
- 또한 미술을 통한 지역성이란 화두를 제기했다는 면에서 주목할 만 함
- 이처럼 지역미술에 대한 고민이 단순히 지리적이고 행정적인 영토의 문제만이 아니라 작가적 감수성과 삶의 토대를 이루는 환경과 맥락에 구체적인 관심과 결부되어 있을 때 더욱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느끼게 함
- 물론 전시의 성과들은 이러한 기획의도를 충분히 가시화시키기엔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지만, 지역미술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 그 문제제기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간과될 수 없음
- 이와 같이 〈슈룹〉의 활동은 지역미술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음
- 〈슈룹〉의 느슨한 형태의 자유분방한 활동은 그동안의 지역미술의 소그룹 활동이 보여준 일정한 패권주의와 이기주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구책일 수도 있음
- 중앙화단의 흐름과 상관없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활동을 통해 조형적 실험과 실천을 이어갔던 측면과 그 지속적인 활동이 지역성과 지역미술의 문제의식을 이어졌다는 것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함
- 이들의 지속적인 다양한 기획전의 전개는 〈슈룹〉을 90년대 이후 수원미술의 실험적이고 다양한 양상의 한 복판위에 있게 하기에 모자람이 없게 하는 요인들임[13)]

13) 그동안의 슈룹기획의 전시는 다음과 같음. 1988년, 수원-새로운 전환전 1989년, 맨벽토전(수리미술연구소,군포) 쌀,보리,콩전(수리미술연구소,군포) 생각중전(수원문화원,수원) 1990년 융합21c(수리미술연구소,군포), 발상의 전환-밀물,썰물전(소나무갤러리,서울), 초기위치 초기온도전(소나무갤러리,서울) 1991년 융합21C전(소나무갤러리,서울) 1993년 브론즈 아니면 설산전(하나은행내 하나사랑,서울) 1994년 경기도문화회관 개관기념-설치/부드러운 물전(경기문화예술회관,수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전(우리알상회,수원) 1995년 아리랑-이어지는 자서전(슈룹조형연구소,화성군) 1996년 수원현대미술의 오늘전(슈룹 아트넷, 수원) 슈룹 아트넷 열림전(슈룹아트넷,수원) 1997년 세계를 품안에(갤러리 아트넷;경기문화회관,수원, 지도(map)-코스몰로지전(갤러리아트넷,수원), 강흐름 산오름전(갤러리아트넷,수원; 임미령 작업실,포천) , 갤러리 아트넷 오픈전-행복한전-(갤러리 아트넷,수원), 한국현대미술의 조망-중심축전(다다갤러리,부산 ; 경기문화회관,수원) 1998년 한반도전-인식과 실천의 미래(갤러리아트넷,수원), 자유정신과 도전-슈룹 인터넷홈페이지 개설 기획전(갤러리 아트넷,수원) 1999년 '인간의 자연 ; 대단히 감사합니다'전(군포시민회관,군포) 2000년 '백두대간'전 2001년 '내가 서있는 자리'/별,갯벌 그리고 바다 2003년 경중가인전 (수원미술전시관/ 소나무 갤러리). 꾸준하고 지속적인 활동과 아울러 다수의 기획전을 통해 수원 현대미술의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4) 옴니버스, 독립작가연구회

- 수원미술계의 90년대의 소집단 활동은 이렇다 할 특별한 모습은 눈에 띄지 않음
- 장르별 작가 모임의 성격이 강했던 기존의 그룹들이 명맥을 유지하는 선에서 정기전을 개최하는 등의 소극적인 활동을 이어갔으며 1996년 경수미, 박종훈, 신경숙, 유미옥, 최세경, 오진순이 결성한 〈옴니버스〉 이외에는 새로이 결성된 소그룹 활동 역시 찾아보기 힘듦
- 〈옴니버스〉의 경우도 30대 초·중반 작가들의 개별적 활동을 기반으로 한 소모임 성격이 강했을 뿐 이렇다 할 특징적인 면들을 발견되지 않음
- 오히려 90년대 이후 지방자치제의 실행을 기점으로 한 지역성, 지역미술계에 대한 인식의 확산 등의 외부요인 변화가 수원미술계에 대두된 것이 지역미술의 발전을 위한 전거로 작용하게 됨
- 하지만 그 가시적인 결과들을 제도와 공간, 정책 등의 제반 요인들과 맞물려 아직까지도 미흡한 것이 현실인 것도 사실임
- 2004년 결성된 소모임으로는 〈독립작가연구회 iam(Independent Artist Member)〉의 활동이 눈길을 끔
- 〈독립작가연구회〉의 경우 아직 그 가시적인 활동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수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독립 미술 작가들의 연구 활동 모임으로서 각자가 추구해 나가는 작업의 성과를 개인전 혹은 오픈스튜디오를 통하여 미술이론가 및 초대작가들과 더불어 프리젠테이션과 인터뷰를 갖는 장(場)를 마련하는 것을 기본 활동방안으로 삼으며, 그 결과물을 자료로 발간하여 각 회원들의 작업과 모임에 대한 홍보 자료로 삼는다'라는 그 기본 취지는 이후의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듦[14]

---

14) 창립취지문은 다음과 같음.

"독립작가연구회 iam은 독립적으로 활동해 온 작가들이 보다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회원 각자의 발전과 지역 사회 미술계의 전문화와 활성화에 기여하기위하여 결성되었다 . 참가하는 회원은 새로운 조형 언어를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의 바탕 위에 세워 나가고자 진지하게 작업하고 있는 작가들로서 각각의 작품 세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발전시켜 경쟁력 있는 작가로 우뚝 서기 위한 서로간의 협력을 모색하며, 지역의 전문 작가들이 활기 있게 경쟁하는 새로운 현대미술 중심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이 시대의 사상과 문화 예술 환경을 바탕으로 한 자생적 자기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대미술의 주요 흐름과 관련된 동서양의 이론 및 전시정보, 작가 자료를 연구하고 교환한다.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교양의 수준이 높은 미술애호가 및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폭넓고 전문적인 예술 담론의 장을 형성한다. 기존 미술계의 권력 지향적 구조에 대응하는 작가 중심의 새로운 활동 체계를 실험하는 한편 국제적인 네트워을 형성하여 국가와 인종을 넘어서는 예술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기위한 교류를 갖는다. 작업과정에서 얻어지는 내밀하고 신비로운 작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적 영감이 끊임없이 교환되는 작가 주도적 공간을 만들어나간다. 본 단체는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시 활동, 연구 활동, 국내외 작가들과의 교류 활동 및 기획 사업을 수행하며, 나이, 학력, 경력등에 의한 불필요한 권위보다는 합리적인 토론과 자유로운 대화로 마음을 열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창의적인 발상이 자유롭게 교환 되도록 한다."

- 회원으로는 경수미, 김수철, 김희곤, 박용국, 우무길, 유지숙, 유옥희, 이우숙, 이윤숙, 장혜홍, 전원길, 최희정, 황은화 등인데 80년대 이후 꾸준한 활동을 전개한 작가들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음
- 지금까지 언급한 수원미술계의 활동을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70년대 말부터 제기된 수원의 젊은 미술인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경기청년작가회〉와 〈시작회〉가 본격적인 지역미술활동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지만 그 가시적인 성과가 독자적인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중앙화단의 형식화된 모더니즘적 성과들이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조형적인 이념의 모색과 활동이란 측면에서 지역화단의 한계를 극복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았음
- 이러한 모습은 이후에 만들어진 〈경기현대작가회〉나 〈경기구상작가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음
- 다만 꾸준한 활동으로 지역미술계의 명맥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구적인 노력을 경진했었고 이를 통해 지역미술의 확산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아울러 〈새벽〉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민중미술의 흐름 역시 제도화된 지역미술계의 형식주의를 넘어 삶과 현실에 바탕을 둔 미술운동의 확산과 미술의 효용성, 지역적인 특수성, 환경과 소통 등의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에서는 각별한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보다 전문화된 미술문화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됨
- 이는 현실변혁과 사회문제에 보다 천착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민중미술의 일정한 한계와도 연관됨
- 하지만 중앙화단의 흐름과 거의 동시대적으로 일어난 다양한 활동의 전개는 수원미술계의 일정한 역량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 역시 주목할 만한 역사적 사례로 평가됨
- 이러한 토양 속에서 일구어낸 「수원미술제」역시 일정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미술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기획이라 할 수 있음
- 90년대 경우 〈컴아트 그룹〉과 〈슈룹〉의 활동에서 볼 수 있는 설치, 퍼포먼스 등의 동시대 미술흐름의 가사회된 성과들은 수원미술계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였으며, 독특한 기획력을 통한 꾸준한 기획전의 지속은 수원미술의 값진 성과임에 틀림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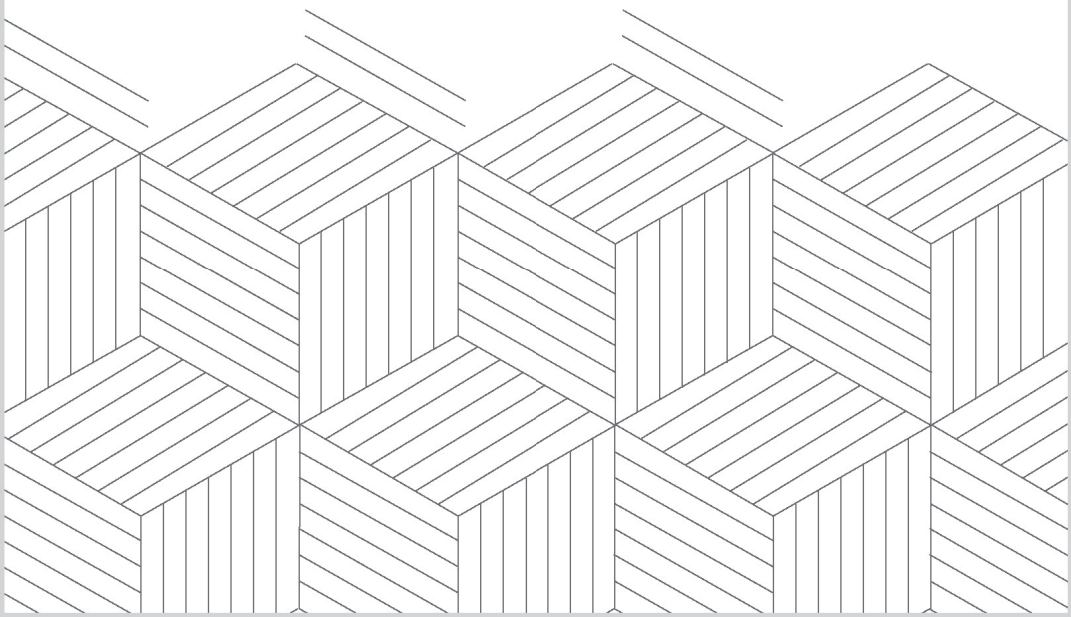
- 이런 맥락에서 2002년 설치 예술제로 김성배, 오상길이 기획한「한국현대미술을 바라보는-또 하나의 조망」전은 수원에서 활동 중인 작가들이 중심이 되어 중앙화단의 작가들과 함께 한 대규모의 설치전이라는 면에서 눈길을 끔
- 하지만 동시대 미술의 다양한 흐름이라 할 수 있는 다원화된 미술문화의 모습들, 즉 대중문화, 일상성, 테크놀로지, 여성문제, 공간 등을 매개로 한 보다 활발한 미술문화의 전개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됨
- 이는 보다 의식적인 활동을 하였던 소그룹 활동이 부재한 것도 한 이유일 수 있으며 그만큼 수원미술계의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음
- 몇몇 단위의 참신한 기획전의 경우에도 이를 형상화시킬 수 있는 보다 진전된 가시화된 노력, 보다 구체적이고 밀도 있는 형상화의 부족은 대중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한 이유로 작용하기도 하였음
- 결국 지역의 대중적 소통을 위한 노력은 지역미술을 위한 구체적인 문제의식과 고민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모색과 기획, 프로그램 마련이 이후의 과제로 남는다고 생각됨
- 새롭고 참신한 다양한 기획들과 아울러 보다 대중적인 소통을 위한 모색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임
- 전반적으로 90년대 이후 수원 미술계는 기존의 활동이 관성적으로 이어진 것과 몇몇 특기할 활동 이외의 보다 내실화되고 안정적인 활동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함
- 이는 지역 미술계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물적인 토대가 서서히 구축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드러나지 않았던 한계와도 연관됨
- 부침을 거듭하였던 전시공간들도 그러하고 지역미술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도 상대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연관된다고 추정됨
- 또한 지역미술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문제의식 역시 찾아볼 수 없었던 것도 아쉬움으로 지적됨
- 이러한 흐름 속에서 수원미술의 경우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중반 이후 늘어난 지역미술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아울러 서서히 지역미술이란 화두를 보다 분명히 할 수 있는 토양들을 만들어갔던 것도 사실이지만 오히려 90년대부터는 수원이외의 지역인 부천, 안양, 안산, 평택, 의정부 등에서 서서히 지역에 기반을 둔 활동이 시작된 것이 그 전반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겠음
- 이는 그만큼 여타의 지역 미술활동이 늦게 전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함
- 이외 수원미술에 대한 개략적 흐름은 〈부록 1. 수원미술연표(1896~2011)〉 참고

5) 수원미술사를 위한 제언

- 수원은 도시의 역사가 깊고, 화성의 유래가 넓어 문단(문학계)과 화단(미술계)의 형성도 일찍부터 시작되었음
- 1920년대 중반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의 결성과도 무관하지 않고 이후로 크고 작은 소집단들이 생멸하다가 1980년대부터는 그 활동이 왕성하게 펼쳐졌던 것임
-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의 개관으로 이제 전체 광역자치단체의 65%가 공립미술관을 갖게 되었는데, 서울(특별시),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이상 광역시),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이상 도) 등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공립미술관이 없는 곳은 인천, 울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경북 등 7곳에 불과함
- 이는 지역미술사의 시대가 이미 활짝 열렸다는 것을 반증함
- 메이드 인 수원을 위한 당대적 과제는 역사를 현재화 하는 다양한 인문학적 접근에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선배 세대의 정신을 이어갈 다채로운 신진 세대의 출현이 필요함
- 단순히 수원미술의 신진 세대라기보다는 수원의 정치·경제·사회·역사·문화·예술 전반을 사유할 젊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임
- 수원의 지역적 환경과 생태는 물론이고 도시·인구·도로에서부터 산업화와 근대화의 맥점까지 지역적 정체성을 전시기획의 이슈로 길어 올릴 '시선의 담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예술과 사회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서로를 유혹해 왔듯이 예술작품으로 수원을 재구성하려는 당대적 관점이 필요할 것임
- 때로는 미술이 아니라 예술 전체의 시선으로 혼합과 융합의 프로젝트를 실험할 필요도 있음
- 그래야만 메이드 인 수원의 '수원'이 경기도 남부권의 지역에서 지역미술의 새로운 발화소로, 세계미술로 발화소로 부상할 있을 것임

제5장
수원미술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제1절 아카이브 구축 비전 및 목표
제2절 아카이브 구축 원칙과 제반여건
제3절 수원미술 자료수집 전략
제4절 미술자료 디지털화 방안
제5절 수원미술 아카이브 체계마련



제5장 수원미술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제1절 아카이브 구축 비전 및 목표

1. 수원미술 아카이브의 비전(안)

수원시립미술관 가치 창출의 근간, 수원미술 아카이브

- 수원미술 아카이브 구축은 한국의 많은 미술관 중에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만의 고유한 특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략인 동시에 지역 공립 미술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과정임
- 수원미술 아카이브는 지역 시각예술지식정보의 조사연구, 수집, 관리, 보존,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 시민에게 지역미술자료와 창작을 위한 원천 소재를 제공하여 예술문화의 보존·관리·전승·발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지역미술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시각예술지식정보의 보급 및 대중화에 기여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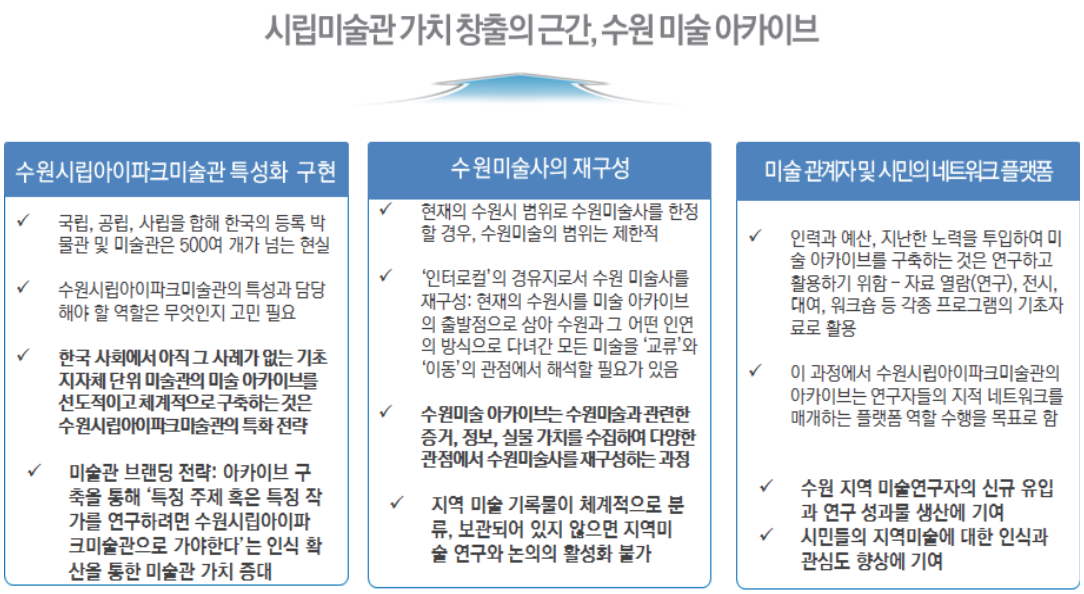
2. 수원미술 아카이브의 목표

1)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특성화 구현

- 국립, 공립, 사립을 합해 한국의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은 500여 개가 넘음
-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의 특성과 지역 공립미술관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한국 사회에서 아직 그 사례가 없는 기초지자체 단위 미술관의 미술 아카이브를 선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의 독자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이며, 지역공립미술관의 정체성과 공공미술관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임

■ 미술관 브랜딩 전략: 수원미술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특정 주제 혹은 특정 작가를 연구하려면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으로 가야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의 인지도와 기관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음

〈그림 5-1〉 수원 미술 아카이브 비전과 목표



2) 수원미술사의 재구성

■ 지역 미술관의 공공성이란 지역 미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미술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실현되어야할 공통의 목표임

■ 이를 실현하고 또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미술사 전반에 걸쳐 생산되었지만, 지금까지 미술작품 자체에만 관심을 두어 소홀히 관리되었던 미술기록의 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함

■ 특히 지역미술의 기록은 한 지역의 미술사를 아우르는 매우 중요한 자료들인데, 그동안 중앙과 지방의 이분법적 구도에 밀려 기록을 소홀히 해 온 것이 사실임

■ 다시 미술기록의 가치에 주목하여 수원미술사를 재조명하고자 할 때 현재의 수원시 행정구역 범위로 수원 미술사를 한정할 경우, 수원미술의 범위는 제한적이며 수원미술이 갖는 가치와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음

- ‘인터로컬’의 경유지로서 수원 미술사를 재구성: 현재의 수원시 범위를 미술 아카이브의 출발점으로 삼아 수원과 그 어떤 인연의 방식으로 다녀간 모든 미술을 ‘교류’와 ‘이동’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수원 미술사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다름 아니라 수원미술 아카이브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은 수원미술과 관련한 증거, 정보, 실물 가치를 수집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수원미술사를 재구성하는 과정임
- 지역 미술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정리, 보존되어 있지 않으면 수원미술사의 재구성과 지역미술 연구 및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함

3) 미술 관계자 및 시민의 네트워크 플랫폼

-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미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지역 미술을 연구하고 활용하기 위한 것임
- 한편, 아카이브의 수원지역 미술자료는 자료 열람(연구) 활동 외에도 전시, 대여, 워크숍 등 각종 지역미술 관련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의 아카이브는 연구자들의 지적 네트워크를 매개하는 플랫폼 역할 수행을 목표로 설정해야함
- 수원미술 아카이브는 수원 지역 미술연구자의 신규 유입과 연구 성과물 생산으로 인한 지역미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야 함
- 또한 시민들의 지역미술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 향상, 지역미술 향유에 기여해야 함

제2절 아카이브 구축 원칙과 필요요건

1. 수원미술 아카이브 구축 원칙

1) 수원미술의 규정

- 우리는 흔히 지역을 거론하면서 '수원미술', '광주미술', '부산미술', '대구미술', '제주미술' 등과 같은 지역미술을 주장해 왔음
  - 또 '경기도미술인', '충청도미술인', '경상도미술인', '전라도미술인'이라 하여 지역성을 강조하기도 함
- 최근에 등장한 이런 지역미술의 관심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념규정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우리에게 지역미술이 존재할까? 존재한다면 지역미술은 무엇이고 지역미술인이란 누구일까? 이 물음에 대해 의심의 여지없이 대답한다면, 대전미술은 대전지역의 미술이요, 광주미술은 광주지역의 미술이며, 전라도미술인은 전라도지역에서 활동하는 미술인이라 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수원미술인은 수원지역에서 활동하는 미술인이라 할 것임
- 한국미술이 넓은 의미에서 '포괄적 개념'이고, 경기미술/수원미술은 그 내부의 지엽적이고 지역적인 개념일 뿐 경기미술이나 수원미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경기미술사/수원미술사가 존재해야 함
  - 지역으로서의 '경기', '수원'을 역사적 실체공간으로 인식하고 그 내부를 바라보면 분명하게 보이는 미술사가 흐르고 있어야 함
  - 그렇다면 경기미술사/수원미술사의 예술적 씨알이 바로 경기미술인/수원미술인일 것이며 여기서 일차적 아카이브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연히 드러남
  - 수원미술의 일차적 아카이브는 '수원 미술인'이어야 함
- 그러나 미술인의 있고 없음이 바로 지역미술과 지역미술사를 규정하지는 않음
- 미술의 역사는 미술인의 존재여부만이 아니라 '예술과 사회'에 대한 능동적 개입과 창작 활동, '시대와 현실'에 대한 창발적 발언과 지속성에서 온다고 할 수 있음
  - 물론 그 외의 주요 활동개념을 도출할 수도 있을 터이나, 모든 예술의 속성이 그러하듯 새로움에 대한 예술적 노력과 궁구가 없다는 것은 이미 죽은 예술이며, 죽은 역사라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수원미술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상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

- 여기서 이차적인 아카이브의 대상이 드러나는데, 수원미술의 이차적 아카이브는 예술과 사회에 대한 능동적 개입과 창작 활동임
- 미술에는 분명히 '지역어'가 존재하며 지역어로서 지역미술은 지역미술인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하려는 예술적 창조력에서 시작되는 것임
- 그것은 '경기도' 혹은 '수원시'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보편화하지 않고, 미술적 에너지와 영감의 원천으로 되살려 내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임
- 수원시의 지정학적이며 환경적인 요소와 역사, 그리고 삶의 풍경은 그 자체로 중요한 테제인 것임
- 수원미술 아카이브는 '수원'이라는 지역어를 표현하는 모든 미술활동임

2) 수원미술 아카이브의 성격

- 아카이브(archives)는 어떤 개인이나 조직 또는 기관이 그 성격에 상응하는 업무를 위해 생산, 수집 및 인수하여 조직된 자료 중에서 영구히 보존할 만한 가치를 인정받아 선별된 자료 또는 그 자료자체이며, 그 자료를 보존, 관리하여 소통시키고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기관 자체를 의미함
- 아트 아카이브는 기록학적 측면과 예술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음
  - 첫째, 기록학적 측면의 아트 아카이브는 생성된 예술 기록을 내용적, 물리적으로 정리해 보존하고 보존된 예술 기록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과정과 보존하는 기록 결과물 전체를 의미함
  - 둘째, 예술적 측면의 아트 아카이브는 예술적 의의가 반영되도록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방식에서, 구축된 아카이브를 예술적으로 응용하는 방식까지 그 의미를 확장함
- 아트 아카이브는 리플릿, 팜플릿, 도록 등의 수집에만 그치지 않음
  - 한 작가, 한 그룹의 미술활동 과정이 점진적으로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것들의 총체, 그러니까 편지, 일기, 스케치, 스케치북, 사진, 전시 카달로그, 스크랩북, 과정기록, 사진, 필름(영상), 기타 기록자료 등을 포괄함
- 그러므로 아트 아카이브는 어떤 활동의 단순한 기록의 성격을 넘어, 그 활동들의 흐름을 근저에서 드러낼 수 있는 비가시적이고, 잠재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자료들임
- 아카이브가 지역미술의 활동, 지역미술의 정체성을 규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유도 바로 아카이브의 이런 성격에서 기인함

- 한 지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영향관계를 통해 형성된 지역의 미술흐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실체를 잡으려 한다면, 이러한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하여 그 흐름을 작동시키는 여러 현상들을 종합하고, 분석해내야 할 것임
- 수원미술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 자료의 첫 번째 유형은 1차 자료인 원본 기록들을 수집하는 것임
  - 그 섭외대상은 작가, 콜렉터(수집가), 화랑 및 갤러리 관계자, 미술평론가, 출판기획자, 문화부 기자, 독립 큐레이터 등임
  - 수집품목은 편지, 일기, 메모, 마케트(소품), 협약서, 영수증, 평론, 포스터, 리플릿, 도록(카탈로그/팜플릿), 초청장, 사진, 영상, 인터뷰, 구술(증언), 드로잉 등
  - 아카이브의 장르적 범주는 시각예술 전반(회화, 조각, 설치, 영상, 사진, 판화, 미디어, 만화 등)은 물론, 건축, 디자인, 그림책, 무대미술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또 준 작품의 성격을 가진 습작(스케치, 드로잉, 모형 등)은 예술적 가치가 있으므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학술적 자료로 대상화 할 필요가 있음
- 가장 시급한 것은 위의 섭외대상과 수집품목을 목록화하는 것임
  - 아트 아카이브에 포함된 다층적인 기록물들은 독립적 의미보다는 상호 유기적 관계에서 콘텍스트로 이어질 수 있을 때 학술적 가치가 확보될 수 있음
  - 그러므로 아트 아카이브를 위한 계획 수립 시, 섭외대상과 수집품목에 따른 알레고리 및 알고리즘을 그려보아야 함
- 두 번째로 미술관 내부의 활동 아카이브도 필요함
  - 전시 기획과 관련한 다양한 텍스트, 출품작 목록, 전시장 배치도, 전시장 설치 사진과 영상, 작가 목록, 작가 포트폴리오, 소장품 구입과 대여 기록, 소장품 복원 기록, 소장품 고해상도 이미지 등도 아카이빙 대상이 되어야 함
  - 또한, 전시 기획과 관련한 회의 기록, 예산 계획 및 지출 결과, 사업 결과 보고 등 미술관 사업 관련 행정 기록물 역시 아카이빙 대상이 되어야 함
- 세 번째는 예술적 가치, 학술적 가치로서만이 아니라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2차 혹은 3차 자료인 다양한 홍보 인쇄물이나 필름, 영상 자료를 수집해야 함
  - 이러한 자료는 상업적 복제와 유통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음
  - 즉, 정보적 가치를 가진 자료들로서 연구, 출판, 복제에 사용할 수 있음

3) 수원미술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

(1) 지역 사회와의 미술 아카이브에 대한 이해 공유

-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널리 보급함으로써 공공에 이익을 실현하는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이해 공유
- '비시장성'을 띄는 아카이브가 활용 가능한 역사성을 갖기까지 장기적 관점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유

(2) 체계적 운영을 위한 규정과 업무지침 마련

- 수원미술 아카이브 운영 규정, 자료 분류-정리-기술 업무 지침, 포장 및 라벨링 지침, 디지털화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함

(3) 관련 전문인력 필수 배치

- 자료만 수증 받고 이를 등록, 분류, 기술, 보관, 활용할 전문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것은 자료 훼손과 망실, 방치를 불러옴
- 즉, 전문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아카이브 구축은 무책임하고 무의미함
- 담당 전문 인력의 배치는 작가, 평론가, 콜렉터 등 수증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한국미술기록보존소 이구열 평론가와 김철효 아키비스트 사례 참조)
- 아카이브 담당자의 미술사와 기록학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 필수

(4) 특정 콜렉션의 집중적 수집

- 현재 수원미술의 자료 수집은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수원미술 아카이브가 명확한 콜렉션을 대량의 자료로 확보하고 있어 '특정 주제 혹은 특정 작가를 연구하려면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으로 가야한다'는 인식이 성립되어야 수원미술 아카이브의 대외적인 가치가 발생함
- 미술자료 수집 전담 인력이 특정 콜렉션에 대한 집중적이고 대량의 미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적합함
  - 즉, 중점적으로 수집할 수원미술 아카이브의 우선순위 범주를 설정해야함

(5) 자료의 기술이 충분한 아카이브

- 기록이 담고 있는 의미와 증거를 효과적으로 유추하고 기록의 활용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미술 자료를 해제하여 기술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함
- 자료의 기술은 미술 연구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미술 자료 접근과 이해에 있어 중요한 문제임
  - 하지만 자료의 기술은 그 자체로 지역미술 연구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카이브 구축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입되는 단계임
  - 그렇기 때문에 단기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수원미술 아카이브 운영 예산 편성과 유지가 필요함

2. 수원미술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제반요건

1) 수원미술 아카이브 인력

- 5만여 점 보유 수원미술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시 수원미술 아카이브 인력 최소 2인
- 아키비스트 1인의 담당 직무는 다음과 같음
  - 아카이브 규정 및 지침관리, 저작권 관리
  - 등록(레지스트라 업무)
  - 클리닝, 보존처리 관리(보존수복가 외주)
  - 분류 및 기술(카달로거 업무)
  - 보관, 열람 서비스 및 기록관리
  - 수원 미술 관련 전시 협업
  - 매체변환 및 디지털화, DB 관리
- 수원 미술 연구자 1인의 담당 직무는 다음과 같음
  - 아카이브 규정 및 지침관리, 저작권 관리
  - 예상 자료 목록 및 소장처 발굴, 리드 개발
  - 자료 수집 전략 수립 및 수집 업무
  - 분류 및 기술(카달로거 업무)
  - 수원 미술 관련 전시 협업
  - 수원 미술 관계자 네트워크 및 신규 연구자 발굴
  - 워크숍, 포럼, 시민 대상 프로그램 개발

2) 수원미술 아카이브 공간

- 5만여 점 보유 수원미술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시 수원미술 아카이브 최소 필요 공간은 수장고 35평, 작업 공간 20평
- 미술자료 수장고 및 작업공간
  - 지류 수장고와 영상 매체 수장고의 공간 분리가 필수적임
  - 지류 수장고 20평, 영상 매체 수장고 15평
  - 작업 공간으로 임시수장고(분류, 정리용)와 클리닝실, 목록화 작업실, 매체변환실, 사무실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 최소한의 작업 공간으로 총 20평 이상 확보해야 함
  - 미술관 내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외부 공간을 계약하는 방안 추진
- 서비스 공간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라이브러리 활용
  - 미술관 라이브러리 공간(33평) 일부를 원본자료열람실과 외부 연구자 연구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임
  - 원본 자료 열람 신청 예약 시, 아카비스트가 외부에 있는 아카이브 공간에서 서비스 공간으로 자료를 이동하여 열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공간인 라이브러리 역시 자료 수장 항온항습이 유지되어야 함

제3절 수원미술 자료수집 전략

1. 콜렉션 중심의 아카이브 구축 전략

- 타 기관의 아카이브 구축 과정은 대량의 자료 확보를 계기로 구축한 경우가 많음
- 수원미술 아카이브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카이브 구축을 시작하는 것임
- 그렇기 때문에, 영구보존의 가치가 있는 미술자료를 명확히 타게팅하여 체계적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발생함
- 지역 미술사에 있어 중요한 몇 개의 콜렉션을 초기에 우선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그러므로 '자료조사 및 수집 전략'은 수원미술 아카이브 구축 전략에 있어 최우선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음

1) 수원미술사의 연구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를 기준으로 우선수집대상 선정

- 한 작가, 한 그룹의 미술활동이 점진적으로 쌓이면서 만들어진 것들의 총체를 파악할 만큼 해당 미술 자료의 집중적인 수집 진행

2) 우선수집대상의 콜렉션 구축을 시작으로 해당 주제 관련 대상으로 확장

- 이후 해당 주제와 밀접한 대상으로 수집 대상을 연계, 확장해나가야 함
  - 예를 들어, 이억배 콜렉션 구축 이후 권윤덕 콜렉션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관련 수집 대상을 연계하여 확장할 수 있음
- 이러한 확장이 이루어지면, 지역의 미술 흐름과 인터로컬의 흐름을 잡아내는 것이 가능해지는 동시에 해당 주제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가 조성되는 것임
  - 이억배 콜렉션에서 권윤덕 콜렉션으로 수원미술 아카이브의 콜렉션을 연계, 확장해 나감으로 인해 수원과 안양의 미술 교류 등의 새로운 연구주제를 탐구하는 것이 가능해짐
- 이러한 주제 관련 콜렉션의 연계와 확장을 통해 '1세대 그림책 작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수원시립미술관으로 가야한다'는 대외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의 가치가 생성되는 과정임

3) 활동 시기별 수집 전략

- 근·현대 수원미술사를 개괄할 때, 수원미술 아카이브의 초기 콜렉션 구성을 위한 우선 수집 대상은 크게 근대 시기 수원미술 희귀 자료와 70년대 말 이후 지역 기반 소그룹 활동 자료 두 개의 트랙으로 접근할 수 있음
  - 1950년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수원의 미술활동은 좀 더 늦게야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을 터인데, 단순히 한국미협 수원지부의 자료를 아카이빙하는 것 보다는, 수원에서 본격적인 최초의 소집단이 등장하는 1970년대 이후를 주목
- 본격적인 수원미술 아트 아카이브는 1970년대 후반 이후의 주요 소집단 활동, 소집단 참여 작가를 대상으로 하되 개인과 단체를 인위적 구분하지 않고 주요 활동 기록에 따른 수집 대상을 목록화한 뒤, 추진해야 함
- 또한 수원미술사를 형성하는 1세대 원로 작가들을 대상으로 구술사 작업을 시작하는 것도 필요함
- 구술 채록 과정에서 아카이빙 대상과 수집 품목이 발굴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완급을 조절하면서 아카이브 목록을 수정해야 함

(1) 근대 시기 희귀 자료

- 주로 1930년대에서 50년대에 활동했던 작가들이 그 대상임
- 이 시기 활동했던 작가의 희귀 자료를 발굴하여 콜렉션을 구축하는 작업
- 증거 자료의 미비로 수원미술사에서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못한 상황임
- 주요 작가로는 나혜석, 카프, 홍득순, 장윤천, 한재남, 이영일, 홍의선, 백영수, 이수덕, 나희균 등이 있음
- 오랜 시간 경과로 인한 실물 가치를 지닌 자료들이 존재함 - 경우에 따라 자료를 구입하거나 기관 MOU 방식 등을 활용해야 함
- 이러한 근대 시기 희귀자료 발굴 작업과는 별도로 수원미술 1세대 원로 작가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구술사 작업과 접촉면 확대 작업이 병행되어야 함

(2) 70년대말 이후 지역 기반 소그룹 활동 자료

- 수원에서 본격적으로 소그룹 활동이 이뤄지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미술사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70년대 후반 (〈경기청년작가회〉, 〈포인트(시점시점)〉)부터 2004년까지 시기라고 볼 수 있음

- 소집단 미술 운동의 경우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에 개입하는 미술사적 사건을 발생시켰으며, 지역에 거점 활동공간을 만들기도 하였음
- 가깝게는 경기 남부 지역과 서울, 멀게는 국제적인 교류까지 지역 기반의 소그룹들은 타 지역과의 교류 활동이 활발하였음
- 수집 방식은 기증을 원칙으로 추진함
  - 특정인의 특정 자료 구입 시 기증자와의 형평 논란이 발생하기 쉬우며, 가격 책정에도 논란이 불거지기 쉬움
- 수원미술사의 연구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를 기준으로 수원미술 아카이브 콜렉션의 주제별 연계와 확장을 고려하여 우선수집대상을 선정

2. 예상 기록물과 소장처 조사

- 본 연구에서는 근대시기 희귀 자료 우선수집대상으로 나혜석과 홍득순 관련 기록물을 안으로 제시함
- 지역 기반 소그룹 활동 우선 수집대상으로 〈컴아트〉와 〈슈룹〉, 〈우리그림(이억배)〉 관련 기록물을 안으로 제시함
- 아래에 제시한 이들의 발생 가능한 예상 기록물과 현재 해당 기록물이 소장되어 있을 잠재적인 소장처의 추정 결과를 시발점으로 추후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리드 파일을 개발하고 조직화해야 함

1) 근대 시기 희귀 자료 발굴

(1) 나혜석 콜렉션

- 기본정보
  - 소장자 : 모모야마학원 사료실
  - 리드상태 : 現 소장자
  - 약력
    - 일본인 야나기하라 기치베(1858-1945)는 사업가로 기독교(일본성공회) 세례를 받은 신자였고, 그의 아들이 일본성공회교구 주교이자 모모야마학원 이사를 역임하였는데 이와 같은 관계에 따라 야나기하라 기치베의 자료가 보관(기증)되었음

- 야나기하라 기치베는 이왕가 경축기념대회(이왕 은,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를 계기로 설립된 경축회를 통해 조선고등여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숙명, 진명 외) 등의 최우등 졸업생을 일본으로 유학시키고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음
- 특히 그는 한국 여학생들의 일본 유학생활에 양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며 돌보아주었는데, 이러한 계기로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학생들이 야나기하라 기치베 부부에게 다량의 편지와 사진을 보냈고 이 자료들이 사료실에 보관되어 있음
- 이는 약 1923년부터 1944년까지 1202통에 이름
- 2016년《시대의 선각자, 나혜석을 만나다》전시를 계기로 사료실을 방문, 나혜석과 그의 조카 김숙배가 보낸 친필편지와 사진, 신문기사 등 실물자료와 목록을 확인하였음

■ 예상수집기록물정보

○ 수집기록물 생산자 : 나혜석, 김숙배, 야나기하라 기치베

○ 수집기록물 유형 및 수량

유형	친필편지	사진	엽서	신문기사
수량	10 (김숙배 서신 제외)	5	4	

○ 수집기록물 상태 : 별도의 보존처리 불필요

○ 수집기록물 기록적 가치 : 대다수 자료가 원본이며, 출처(이력)가 명확함

■ 특이사항

○ 소장자의 요구 또는 기증 의사의 정도

- 사료실 선임연구원과 야나기하라 기치베 가족의 수원 방문 시 수증 가능성에 대해 타진하였으나, 난처함을 표함
- 단, 사료실과 미술관의 관계는 긍정적으로 자료 대여, 영인본 제작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여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기타

- 나혜석의 문학작품과 삽화가 수록된 단행본, 조선미술전람회 화집의 경우 희귀하고 수증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 근대 서지류가 거래되는 옥션을 통해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시, 소설, 희곡 : 12편 / 평론, 수필 : 54편 / 구미 여행기 : 11편 / 기타(인터뷰, 좌담, 설문응답) : 21편
-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1922)부터 제11회 조선미술전람회(1932)까지 18점의 작품을 입선, 특선, 무감사 입선하였으나, 현재 미술관은 조선미술전람회(총독부 발행) 도록을 미소장하고 있음
- 해당 작품의 도판(디지털 파일)만을 소장하고 있음

(2) 홍득순(1907-1946 추정) 컬렉션

■ 기본정보

○ 소장자 : 일본 동경미술대학 외

○ 리드상태 :

○ 약력

- 수원출신의 서양화가로, 일본 동경미술대학을 졸업하고, 1929년 동미회(동경미술학교회) 창립에 참여하였으며, 1933년 수원회당에서 개인전을 개최함
- 이후 1936년 미국유학을 떠난바있음. 귀국 후 1937년부터 1940년 사이 680점의 신문 삽화를 연재하였음
- 이외에 구본웅, 이마동, 이종우 등과 세심전, 목시회 등에 참여하였음
- 제8회 조선미술전람회(1928) 〈방화수류정 訪華隨柳亭〉 (특선), 〈여름의 어느 날 夏〉 (입선 入選作) 제9회 조선미술전람회(1929) 〈서문 華西門〉, 〈여인과 꽃 女人花〉, 〈화홍문 華虹門〉 3점 입선 등
- 현재 작품의 소장처는 동경미술대학 박물관으로 홍득순의 졸업작품인 〈자화상〉 1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기타 작가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이므로 유족동의를 얻어야 열람이 가능하나, 홍득순의 생몰년도 조차 불명확한 상태로 동경미술대학의 협조를 통해 학적부 등을 조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예상수집기록물정보

○ 수집기록물 생산자 : 홍득순 외

○ 수집기록물 유형 및 수량 (現 미술관 수집자료)

유형	작품 도판	신문삽화(이미지)	신문기사
수량	10	680	26

(3) 홍의선(1918~1994) 컬렉션

■ 기본정보

○ 소장자 : 유족 (홍의선의 아들 홍승민)

○ 리드상태 : 現 소장자

○ 약력

- 홍의선은 경성제2공립보통학교와 일본 문화학원 문학부를 졸업하였으며, 일본 중앙공방 보도사진 취재 부문에서 문하생으로 근무함
- 홍의선은 수원지역 1950년대 첫 사진 동인단체인 수원사우회를 구성하였으며, 사진공예사, 석굴암다방, 선화랑 등을 운영하며 사진분야 및 지역문화예술계의 활동을 지원하였음
- 현재 홍의선의 아들인 홍승민은 사진기, 기타 육필원고, 잡지, 사진, 필름, 슬라이드, 사진공예사 및 선화랑 운영 문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음

■ 예상수집기록물정보

○ 수집기록물 생산자 : 홍의선 외

○ 수집기록물 유형 및 수량 :

- 미술관 사전 면담 시, 다량의 소장 자료를 보여준 바 있음. 해당 자료는 수원박물관 기획전에 대여된 바 있으며 약 일반상자로 2상자 정도 되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음
- 수집기록물 상태 : 자택에서 보관해 온 자료의 경우, 보관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필름과 문서류의 경우 보관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임
- 수집기록물 기록적 가치 : 대다수 자료가 원본이며, 해당 자료에 관한 정보는 아들의 설명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이사항

○ 소장자의 요구 또는 기증 의사의 정도 : 기증의사 높음

2) 지역 기반 소그룹 활동 자료

(1) 컴아트 (COM-ART) 그룹 컬렉션

■ 기본정보

○ 소장자 : 홍오봉 (컴아트그룹 동인 / 행위)

○ 리드상태 : 現 소장자

○ 약력

- 1990년 컴아트 그룹의 창립을 함께한 동인으로 국제교감예술제 등에 참여하였음
- 컴아트 그룹의 활동상을 홍보하는 만화(일러스트)를 직접 제작하여 배부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원본자료를 모두 소장하고 있으며, 경기지역 퍼포먼스 아트를 아우르는 소장 자료를 기반으로 『경기퍼포먼스아트』 저서를 발간한 바 있음
- 2017년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1980-1990년대 수원의 실험미술 그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다》전의 참여 작가로 컴아트 그룹과 관련된 다량의 개인 소장 자료를 출품한 바 있음

■ 예상수집기록물정보

○ 수집기록물 생산자 : 컴아트 그룹, 홍오봉

○ 수집기록물 유형 및 수량

유형	원고/시나리오	전시홍보물 (포스터/리플렛/만화)	전시도록	사진/슬라이드	기타 자료
수량	51	20	10	294	9

※ 2017년《1980-1990년대 수원의 실험미술 그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다》전 출품 아카이브 목록 참고

○ 수집기록물 상태 : 별도의 보존처리 불필요

○ 수집기록물 기록적 가치 : 대다수 자료가 원본이며, 출처(이력)가 명확함

■ 특이사항

○ 소장자의 요구 또는 기증 의사의 정도 : 거의 없음, 창작활동에 대한 기록 관리를 중요시 여김,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설득이 필요함

(2) 슈룹(SHUROOP) 그룹 컬렉션

■ 기본정보

○ 소장자 : 김성배 (슈룹 동인 / 설치)

○ 리드상태 : 現 소장자

○ 약력

- 슈룹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작가로, 1983년 시작회, 1979년 안드로메다 미술연구소(수원의 실험적인 미술활동을 위해 조성한 공간), 1988년 수리미술연구소(산본), 1990년 소나무갤러리(당시 김성배를 중심으로 작가들에 의해 운영된 대안공간/서울)을 운영하였으며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 2015년《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개관기념전》을 통해 수원미술 관련 아카이브를 소량 기증한 바 있으며, 2017년《1980-1990년대 수원의 실험미술 그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다》전의 참여 작가로 1983년《안드로메다展》의 포스터(유일본)을 기증하였음

■ 예상수집기록물정보

○ 수집기록물 생산자 : 슈룹, 김성배

○ 수집기록물 유형 및 수량

유형	원고/시나리오	전시홍보물 (포스터/리플렛/만화)	전시도록	사진/슬라이드	기타 자료
수량	40	30	6	28	7

※ 2017년《1980-1990년대 수원의 실험미술 그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다》전 출품 아카이브 목록참고

○ 수집기록물 상태 : 대다수의 경우 보존처리가 불필요하나, 육필원고 등의 지류는 보관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임.

○ 수집기록물 기록적 가치 : 대다수 자료가 원본이며, 유일본인 경우가 있음

■ 특이사항

○ 소장자의 요구 또는 기증 의사의 정도 : 이미 두 번의 전시 참여로 일부 자료를 기증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작가 아카이브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 설득이 필요함

(3) 이억배(우리그림) 컬렉션

■ 기본정보

○ 소장자 : 이억배

○ 리드상태 : 現 소장자

○ 약력

- 그림책작가 이억배(1960-)는 용인에서 태어났으나, 수원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음
- 홍익대학교 조소과에 입학한 후 수원지역에서 자생한 미술그룹 '포인트', '시점시점(時點時點)', 목판모임 '판', '새벽' 등에 참여하였으며 '두렁', '우리그림', '우리들의 땅'과 같은 민중미술 진영에서 활동함
- 2015년《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개관기념전》, 2016년《이억배 그림책 원화전 : 이야기 주머니 이야기》등에 참여하며 소집단 활동 및 작가와 관련된 개인 소장 자료를 출품한 바 있음
- 자신이 참여한 지역미술운동과 관련된 전시초청장, 도록, 사진, 엽서, 작품(걸개 그림 외)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2018년《경기 아카이브_지금,》전시에 자료가 출품, 1980-90년대 수원, 안양지역 소집단 미술활동자료 발굴_소집단 활동아카이브(이억배 미술운동 연대기)로 정리, 소개되었음

■ 예상수집기록물정보

○ 수집기록물 생산자 : 이억배, 포인트, 시점시점, 새벽, 두렁, 우리그림, 우리들의 땅 등

○ 수집기록물 유형 및 수량 : 정확한 파악이 어려움

○ 수집기록물 상태 : 별도의 보존처리 불필요

○ 수집기록물 기록적 가치 : 대다수 자료가 원본이며, 출처(이력)가 명확함

■ 특이사항

○ 소장자의 요구 또는 기증 의사의 정도

- 자신이 참여한 지역미술운동과 관련된 자료들과 작가(개인)자료 등을 꼼꼼하게 보관하고 있음
- 기증을 위한 환경조성, 보존, 운영, 기증자 관리 등의 시스템을 마련하고 설득할 경우 수증 가능성이 보임

제4절 미술자료 디지털화 방안

1. 디지털화 목적

- 마멸, 훼손의 위험이 있는 미술자료를 동일매체 또는 대체가능한 디지털 매체로 복제, 복사하여 원본의 보존을 보완하기 위한 디지털화
  - 디지털 기록물의 장기보존과 지속적 가치의 추구를 목적으로 함
- 디지털 매체의 효율성을 이용하여 미술자료 활용을 확대하고 이용자 편의 도모
  - 아날로그 기록을 대체하기 위한 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람과 활용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아날로그 원본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목적으로 함

2. 원본의 훼손을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디지털화

- 디지털화 대상: 자료의 상태(훼손도), 중요도(유일본, 희귀자료), 활용도(전시, 대여, 열람)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화 대상을 정함
- 방법: 평면자료(종이류, 사진류)는 스캐닝, 시청각자료는 인코딩하여 매체를 변환함
- 저장, 보관, 백업: 중앙 서버, 외장하드, DVD 등 3개 이상의 매체에 저장하여, 3곳 이상의 다른 장소에 보관
  - 해당 미술자료를 전시, 대여, 열람, 기증자 요구 등의 이유로 서비스할 경우, 가급적 DVD에 저장된 자료 이용
  - 기관의 규모에 따라 각 매체별로 적합한 디지털 장비를 구비하여 전문 인력이 직접 디지털화하거나 장비와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기관은 용역 계약을 맺어 외부 전문업체에 디지털화를 진행함
  - 주로, 기관 방문 이용자들의 자료 열람 용도로 활용

3.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한 온라인 DB 제공

- 디지털 환경으로의 진입은 미술관에도 또 다른 방식의 공공성 실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하나의 방식은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미술관 콘텐츠의 온라인 DB제공이 될 수 있음
- 디지털화 대상: 보유한 미술 자료 전부
- 하지만 미술 아카이브의 온라인 DB 서비스 제공에는 몇 가지 중대한 장벽이 있음

- 문제점: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료 기증자, 소장자, 작가 등으로부터 자료기증 협약서를 통해 권리 양도 – 온라인 전송권 양도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 놓을 필요가 있음
  - 현실적으로 자료 기증자, 소장자, 작가에게 일괄적으로 온라인 전송권을 받을 수 있는 자료는 제한적임
  - 해당 기증자와만 약정(권리양도)을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저작권과 초상권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기가 어려움
  - 또한, 한 수증자의 기증 자료 안에서도 권리 양도 범위가 다른 경우가 많음
  - 자료에 따라 하나의 기록물에 다수의 저작권과 초상권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용자 일반에게 공개하는 미술 자료 DB를 운영하는 기관은 없음
  - 다만,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미술 자료를 검색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텍스트 목록 정보만 제공, 썸네일 이미지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임
- 아카이브 방문자 편의를 위해 예약 방문인원만 이용할 수 있는 내부용 검색 DB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제한적 대안이 될 수 있음
- 미술관 활동 관련 아카이브부터 먼저 검토하여 온라인 DB 서비스 제공
  - 위에 지적한 일련의 법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기관 활동 관련 자료부터 온라인 DB 서비스 제공
  - 전시 기획과 관련한 다양한 텍스트, 출품작 목록, 전시장 배치도, 전시장 설치 사진과 영상, 작가 목록, 작가 포트폴리오, 소장품 구입과 대여 기록, 고해상도 이미지 등을 검토하여 온라인 DB 구축
- 일반적인 미술 기록물 및 자료는 보유 아이템 하나하나의 법적 권리 문제를 검토해야 하며 이로부터 자유로운 자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DB를 제공함
  - 법적 권리 문제 해소가 어려운 자료는 해당 메타데이터와 자료 목록을 제공함

제5절 미술 아카이브 체계 마련

1. 미술 아카이브 프로세스별 추진전략

1) 수원미술 아카이브 구축 프로세스

(1) 자료조사 및 수집

- 자료조사와 수집을 위한 부서 혹은 담당자가 필요한데, 조사와 수집은 아카이브 담당 전문 인력과 큐레이터의 협업에 의해 기획되고 진행되어야 하며, 수집대상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원미술'에 대한 미술사적, 연구적 가치가 있는 자료여야 함
- 자료의 생산 시기는 미술관의 성격에 따라 근현대로 규정할 수 있으며, 특정 시기를 따로 결정하여 진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집 대상은 작가, 작품, 문헌자료, 스케치를 비롯해, 지역의 미술사학자, 큐레이터, 미술평론가, 컬렉터, 대안공간, 소집단(그룹) 등과 관련된 자료도 모아야 함
- 미술관의 컬렉션 대상이기도 한 일부 작품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경우 수원미술사의 연구적 가치를 우선으로 수집 여부를 판단해야 함
- 그뿐만 아니라 '예술적 가치'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1차 리서치가 필요함
  - 경기문화재단이 2014년에 기초연구로 수행한 『경기 근현대 소집단 미술 연구』와 같은 연구보고서를 사전자료로 검토하면서, 수집을 위한 기초연구를 병행해야함
  - 수원미술의 자료조사와 수집을 위한 1차 리서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2) 등록

- 미술관에서는 레지스트라(Registra)의 업무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별도의 직책을 가진 인력이 없을 경우 담당 아키비스트에 의해 진행할 수 있음
- 등록업무를 위해서는 아카이브와 관련된 미술관 업무지침이 있어야 함
  - 미국의 경우 'Registrars Committee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s'를 따르나, 우리는 이와 관련된 지침이 거의 전무한 상태임
  - 다만, 한국아카이브협회가 있으니 이를 통해 업무지침 사례를 전용할 수도 있을 것임
- 아카이브 센터가 구축된 경우라면 통합도서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코드화 한 일련의 메타데이터 표준 형식에 맞도록 레코드를 생성해야 함

■ 수원미술 수집자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카이브 담당 인력과 학예 인력과의 논의를 통해 이와 관련한 업무지침 생성이 필요함

(3) 보존처리(클리닝)

■ 보존과학의 영역은 매우 전문적인 활동이므로 현실적으로 내부 인력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상당하므로 국립현대미술관 보존과학 부서나 외부 전문가 등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 자료 입수 시 외관상 확인할 수 있는 손상본(곰팡이 등)과 비손상본을 구분하여 손상본은 격리 보관

■ 문헌자료나 포스터, 리플릿, 팸플릿(도록), 사진(전시전경, 퍼포먼스, 기타 활동사진 등), 도서 자료 등의 아카이브는 기본적인 보존관리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수시로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새롭게 수집된 자료는 클리닝(곰팡이, 먼지 등의 제거) 해야 함

  ○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보편화 되면서 디지털 자료에 대한 아카이브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보존처리, 관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아날로그 자료의 보존 차원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함. 따라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이미지 스캐닝 기기,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슬라이드 디지털 전환기 등을 구비해야 함

(4) 분류 및 기술(記述)

■ 목록화 및 기술을 담당 인력은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분류하며, 전용 보관 상자에 목록별로 분류하여 수납해야 함

■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보호필름과 중성지 등을 사용해서 자료의 훼손을 막아야 함

■ 공통적 성격을 갖는 대규모 특수자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분류 및 정리를 위해 필수레벨과 선택 레벨을 설정하여 각 레벨별로 기술요소를 설정함

  ○ 국가기록원 '영구기록물 기술규칙 version 2.0'(2008년 12월 23일 제정, 2011년 9월 30일 개정)과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의 Describing Archives: A Content Standard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07)등을 참조하여 기술요소를 설정할 수 있음

- ○ 콜렉션을 생성할 수 없는 소규모 자료는 아이템 레벨로만 관리
- ■ '카탈로그 레조네'처럼 1차적인 목록화는 카탈로깅하는 것인데, 시스템에 따라 검색이 가능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 ○ 온라인 아카이브로 등록한 후, 열람이 가능하도록 오픈할 것과 오픈이 불가능할 경우 열람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임
  - ○ 카셀 도쿠멘타의 아카이브는 1956년 이후부터 방대한 도쿠멘타 참여 작가들의 자료를 디지털화 하면서 목록화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음
  - ○ 수원미술을 위한 카탈로깅이 '기술하기'의 메타 데이터를 제공함
- ■ 수원미술 아카이브의 초기 콜렉션 수집 이후 이들 기록물 덩어리의 성격에 따라 콜렉션 레벨, 시리즈 레벨, 아이템 레벨의 상세 기술 지침, 하위시리즈 레벨과 파일 레벨에서의 상세 기술 지침, 유닛 레벨에서의 상세 기술 지침을 설정해야 함

(5) 보관

- ■ 미술관 내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외부 공간을 계약하는 방안 추진
- ■ 매체별로 최소한 지류 수장고와 영상 매체 수장고의 공간 분리가 필수적임
  - ○ 게티미술연구소는 주요자료를 연구소 내 수장고에 보관하고, 기관기록이나 크기가 큰 것은 외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음
- ■ 전시공간의 일부를 '수장형 전시공간'(수장고 미술관)으로 활용할 수 있음
- ■ 모든 자료는 자료의 성격(영구보존용 자료/일반자료)에 따라 알맞은 크기의 중성용지 혹은 보존용 중성상자에 보관
  - ○ 단, 자료의 특성에 맞게 보존담당자 혹은 담당 아키비스트가 직접 제작 가능
  - ○ 자료의 성격 판단은 담당 아키비스트와 학예연구사가 협의하여 결정
- ■ 자료 유형별, 매체별로 그 특성에 맞는 별도의 포장 방법을 매뉴얼화해야 함
  - ○ 드로잉(건축 도면 포함), 판화류 등 영구보존용 종이류와 전시 인쇄물, 간행물, 일반 문서 등 일반 종이류를 구분하여 별도로 포장해야 함
  - ○ 영화필름, 사진필름, 인화사진, 슬라이드 등 필름자료와 비디오테이프, 오디오 테이프 등 자기매체류 전자자료, CD, DVD 등 광매체류 전자자료를 구분하여 별도로 포장해야 함
  - ○ 기타 오브제 자료 등은 자료의 특성에 맞는 중성용 보존 상자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필요시 특수 보관상자 제작 가능)
- ■ 라벨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로고가 있는 인증된 규격 라벨을 사용

- 라벨에는 보관 장소에 따라 자료 관리에 필요한 참조코드, 컬렉션명, 제목, 보관장소 번호 등을 연필로 표기
- 영구보존용 자료(Rare: R) 혹은 무거운 자료(Heavy: H)는 겉면 사방에 각각의 대문자 'R', 'H'를 나란히 표기(단독 R, H 표기도 가능)
- 라벨 부착 시, 자료의 상태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정하되 식별이 용이한 상자 옆면 중앙에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상자 안에 소장된 자료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참조코드, 제목, 생산연도, 유형, 범위와 내용, 위치 등이 기술된 목록(엑셀 파일)을 상자 맨 앞에 첨부
  - 단, 컬렉션 레벨의 미술자료가 아닌 경우, 상자에 소장된 자료의 대략적인 내용을 기술하여 상자 맨 앞에 첨부
- 자료가 대출될 경우(내부 및 외부 대출 포함), 상자와 폴더를 분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상자 안 폴더만 대출될 경우, 폴더가 이동 중임을 알릴 수 있게 대출된 폴더 장소와 폴더를 보관하던 상자 두 곳에 레드슬리브를 삽입하여 대출 상황을 표시
- 자료 유형별, 매체별로 그 특성에 맞는 별도의 라벨링 방법을 매뉴얼화해야 함
- 수원미술 아카이브 구축 과정에서 실무 담당자들의 논의를 거쳐 상세한 포장 및 라벨링 지침을 수립해야 함

(6) 디지털 서비스

- 마멸·훼손의 위험이 있는 미술자료를 동일매체 또는 대체가능한 디지털 매체로 복제·복사하여 원본의 보존을 보완해야 함
- 디지털 매체의 효율성을 이용하여 미술자료 활용을 확대하고 이용자 편의 도모
  - 단, 저작권 사용이 허락된 것만 해당함
  -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료 기증자, 소장자, 작가 등으로부터 자료기증협약서를 통해 온라인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 놓을 필요가 있음
  - 또한, 디지털 서비스가 이뤄질 경우 저작권자 표기, 자료 제공자 표기 등 관련 지침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에 따른 표기방식을 통일해서 사용자들에게 안내해야 함
- 자료의 상태(훼손도), 중요도(유일본, 희귀자료), 활용도(전시, 대여, 열람) 등 을 고려하여 디지털화 대상을 정함
- 자료의 성격(작품의 성격을 가진 자료/단순 자료)을 구분하여 디지털화하며, 자료의 성

격 판단은 담당 아키비스트와 학예연구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미술관은 디지털화 작업을 위해 각 매체별로 적합한 디지털 장비를 구비
- 디지털화 전문 인력의 확보 추진
  - 훼손자료 및 특별자료(시청각자료, 건축 등)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진행(필요 시 전문업체에 디지털화 의뢰 가능)
  - 대규모 자료는 전문업체에 디지털화를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음
- 원본 상태 유지 : 디지털화 과정에서 원본 상태가 훼손되지 않게 주의
  - 디지털화 작업을 위해 편철되어 있거나 케이스에 담긴 자료를 분리한 경우, 완료 후 반드시 원본 상태로 복구
  - 원본 질(質) 유지 : 원본의 상태를 가능한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디지털화
  - 색채 보정 및 편집을 해야 할 경우, 자료 기증자, 관련자,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진행
- 디지털 자료의 파일명 : '참조코드_파일번호_파일포맷' 순서로 저장(파일 포맷은 자동 생성)
- 자료의 성격 및 상태에 따라 권장 스캔 지침을 따르되, 필요 시 형식을 달리할 수 있음
- 기술 전 디지털화 작업을 할 경우, 1차 목록을 작성한 후 임시 참조코드를 부여
- 저장·보관·백업 : 중앙 서버, 외장하드, CD/DVD 등 3개 이상의 매체에 저장하여, 3곳 이상의 다른 장소에서 보관(담당 아키비스트가 관리)
  - 해당 미술자료를 전시, 대여, 열람, 기증자 요구 등의 이유로 서비스 할 경우, 가급적 CD/DVD에 저장된 자료를 이용
- 점검 : 디지털화 한 자료는 담당 아키비스트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새로운 디지털화 표준이 만들어지면 기존의 디지털 자료를 순차적으로 마이그레이션(migration)을 할 수 있음
- 자료제공을 위해서는 디지털화를 진행할 때 자료유형별로 저장 방식과 저장 사이즈 등 상세 디지털화 지침을 설정해야 함

(7) 열람

- 수원시립미술관에는 라이브러리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이 공간을 활용해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임
- 또 필요에 따라서는 비열람 자료를 목록화 하되, 전문 연구자들에게 선택적으로 예약을 받아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원활한 열람 서비스를 위한 적정 규모의 열람실을 확보해야 함
- 열람실도 자료가 보관되는 일종의 수장시설이므로 열람실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함

(8) 활용(전시와 출판)

- 아카이브 담당 인력과 학예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를 활용해야 아카이브로서의 기능과 가치가 확장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수원미술 연구, 출판, 전시,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함
- 또 타 기관과 협력해서 전시를 개최하거나 학술 세미나를 개최를 검토해야 함
- 지역 학교와 미술 관련 동아리 등 지역 사회 구성원과 수원미술을 교류하는 학교 교육 프로그램과 미술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검토해야 함
- 현재, 수원시립미술관은 지역미술연구논문집인 『수원미술연구』를 출판하고 있으므로 학술지를 아카이브 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원미술은 포괄적으로 경기미술사임으로 경기도미술관과 수원시립미술관이 공동으로 지역미술사 아카이브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공동의 연구와 전시, 학술지 등을 기획하고 출판할 수 있음
- 그뿐만 아니라, 안양과 화성, 안성 등 수원미술사의 관점에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던 타 지역들과의 연계도 매우 중요함
- 정기적으로 켈렉션 도록, 전시도록, 학술지 등을 출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2. 미술 아카이브 운영 규정 및 업무지침 수립

- 미술 자료는 소장품, 일반도서자료와는 다른 특성과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이들과는 별도의 분류체계와 관리 방안이 필요함
  - 일반도서자료: 50쪽 이상의 단행본 도서, 도록, 연속간행물, 학위논문집 등
  - 미술 기록물 자료: 일반도서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 미술인의 생애 및 미술작품의 창작 관련 자료 통칭

(1) 운영규정 주요 내용

- 자료의 수집: 수집 대상과 방법, 기준 등 명시, 일정액 단가 이상 자료 구입 시, 자료수집심사위원회 구성

- 자료의 등록과 보존 관련: 다량의 미술자료를 수증받는 미술 자료 특성 상 미술자료등록심의위원회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므로 운영하지 않음
- 자료의 열람: 열람절차, 운영방식, 열람시 준수사항 등
- 불용자료의 처분: 폐기와 폐기 절차 규정 명시

(2)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미술 아카이브 업무 지침 수립

- 수원미술 아카이브의 초기 콜렉션 수집 이후 이들 기록물 덩어리의 성격에 따라 콜렉션 레벨, 시리즈 레벨, 아이템 레벨의 상세 기술 지침, 하위시리즈 레벨과 파일 레벨에서의 상세 기술 지침, 유닛 레벨에서의 상세 기술 지침을 설정해야 함
  - 수집: 미술 자료 기증 절차와 권리양도, 기증자 예우와 사후관리의 메뉴얼화
  - 분류: 레벨 구성: 필수 – 콜렉션, 시리즈, 아이템
  - 필요 시 선택 – 하위 시리즈, 파일, 유닛
  - 각 레벨 별로 기술요소 설정
  - 컬렉션을 생성할 수 없는 소규모 자료는 아이템 레벨로만 관리
  - 기술: 레벨별 기술요소 설정 및 명시 – 콜렉션, 시리즈, 아이템 단위, 자료 유형별 기술요소 설치
  - 각 기술영역과 기술요소 명시 - 기술레벨, 참조코드, 제목, 생산연도, 규모, 위치, 개요, 자료 생성 및 소장 이력, 범위와 내용, 키워드, 관련 미술자료, 추가 설명, 기술담당자 등 기술요소 명시
- 보다 체계적인 아카이브 운영을 위해서는 분류, 정리, 기술 지침 뿐 아니라 포장 및 라벨링 지침, 디지털화 지침에 대한 상세화된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함

(3) 수원미술 아카이브 운영규정(안)

- 수원미술 아카이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운영규정안을 마련
- 아래는 수원미술 아카이브 운영규정의 안을 제시한 것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미술아카이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미술아카이브"라 함은 미술관이 미술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 활용 등에 관련해 수행하는 업무나 행위를 말한다.

② "미술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미술관계 전문도서, 연속간행물, 학위논문집, 브로슈어, 리플릿, 포스터, 사진, 행정자료, 미술관련 기사 등의 인쇄물 자료와 필름, 슬라이드, 테이프, 비디오, 음반 등의 시청각 자료, CD-ROM, 온라인 자료 등 전자매체 자료, 미술인의 생애 및 미술작품의 창작과 관련된 작가의 서신, 일기, 문서, 드로잉, 메모 등을 통칭한다.

③ "구입"이라 함은 자료의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자료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④ "수증"이라 함은 기증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금전적인 대가 없이 미술관에 자료의 소유권을 양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료구분)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수집, 관리한다.

1. 일반도서자료: 50쪽 이상의 단행본 도서, 도록, 연속간행물, 학위논문집 등
2. 특수자료: 일반도서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제2장 자료의 수집

제4조(수집대상) ① 미술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대상으로 하되,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된 작가의 자료, 한국 및 아시아 근·현대미술의 학술적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 현재 소장되어 있지 않으나 이용자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의 수집에 우선순위를 둔다.

② 다음의 자료는 수집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처가 불분명하여 도품일 우려가 있는 자료
2.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생산된 자료로서 향후 법적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자료
3. 기존에 수집한 자료로서 추가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5조(수집방법) 자료의 수집은 구입, 수증, 상호교환, 이관, 제출 등의 방법에 의한다.

제6조(원본수집) 자료의 수집은 원본을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본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작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복제하거나 디지털화하여 수집하되, 복본임을 명확히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7조(수집기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아래의 가치를 기준으로 수집 적합성을 평가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1. 연구자료로서의 활용 가치
2.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
3. 미술관 사업(연구, 전시 및 교육 등)에서의 활용 가치
4. 미술관의 활동 역사를 증명하는 사료 가치

제8조(자료수집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자료 구입시 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구입자료 선정, 자료 구입가격 결정, 자료구입의 자문 등을 위해 자료수집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관장, 학예팀장, 외부가격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에 대해 최종 승인권을 가진다.

제9조(자료수집심사위원회의 역할) 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하여 의결한다.

1. 구입대상 자료의 선정
2. 자료의 구입가격 결정
3. 기타 자료구입과 관련하여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수집조건) ① 자료의 수집은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물이용권이 영구적으로 미술관에 양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자료제출) 미술관의 직원은 업무수행 중에 수집하거나 생산한 자료가 있을 경우 당해 업무가 종료된 후 자료관리부서에 자료를 제출한다.

제3장 자료의 등록과 보존

제12조(자료등록) ① 수집된 자료는 관장이 정한 소정의 지침에 따라 분류, 정리, 등록한다.

② 수집된 자료는 실사 및 문헌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자료의 생산· 수집·소장이력 및 자료의 원질서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여 기록한다.

제13조(자료보존) ① 미술관은 자료의 보존을 위한 적정한 환경을 조성하며, 이에 필요한 보관고 및 설비를 갖춘다.

② 마멸의 위험이 있는 중요자료는 동일매체 또는 대체가능한 매체로 복제하여 보존하되 복제시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는 등의 관련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자료보존 담당자는 자료의 보존상태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관장에게 보고한다.

제4장 자료의 열람

제14조(자료열람실) ① 미술관은 자료의 열람을 위한 열람실을 운영한다.

② 열람실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일: 10:00~17:30
2. 점심시간: 12:00~13:00 휴실

제15조(자료열람실 휴관일) 열람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무일

2. 기타 관장이 지정하는 일자

제16조(열람료) 자료의 열람은 무료로 한다.

제17조(운영방식) ① 일반도서자료의 경우 개가식으로, 특수자료의 경우 폐가식으로 운영하되 관장은 일부 특수자료를 개가식으로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을 미술관 내에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장 자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2.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연관되어 일시적으로 열람 제한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
3. 무제한적 열람 시 쉽게 훼손되거나 가치가 저하될 수 있는 자료인 경우
4. 기타 미술관의 이해관계와 연관되어 열람을 제한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8조(열람자 범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열람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미술관 직원
2. 공공기관, 문화관련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및 연구단체 근무 직원
3. 학술연구를 위해 열람하고자 하는 학생, 연구자 또는 일반인

제19조(특수자료의 열람절차) 외부인이 특수자료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열람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계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직원은 필요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열람을 거절할 수 있다.

제20조(열람시 준수사항) ① 자료를 열람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열람실 밖으로 자료반출 금지
2. 열람실 안에서 흡연, 음료수 반입,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3.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의 금지
4. 기타 관계직원이 자료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지시하는 사항

② 관계 직원은 열람자가 전 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전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중대한 위반을 한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열람실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21조(대출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의 대출을 금지한다.

1. 특수 자료
2. 훼손이 우려되는 자료
3. 기타 관장이 지정하는 회의자료 등

제22조(변상) ① 열람자 또는 대출자가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해야 한다. 단, 동일한 자료로의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대출

당시의 가치에 따라 변상해야 한다.

② 열람자 또는 대출자가 열람실의 물품이나 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는 경우에는 미술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6장 불용 자료의 처분

제23조(자료의 폐기) 관장은 등록된 자료 가운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폐기, 반환, 유관기관 양도,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중복된 자료이거나 복제본이어서 연구목적의 효용이 적은 자료
2. 기소장 자료와 동일 유형이면서 이에 비해 질이 낮은 자료
3. 미술관 소장 가치가 적어 폐기를 결정한 자료

제24조(폐기절차) 전 조에 의한 자료의 폐기는 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강수미(2014), 헤테로토피아의 질서: 발터 벤야민과 아카이브 경향의 현대미술, 미학 제78호 p.31-66.

김기현(2001), 아트 아카이브의 국내도입을 위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달진(2008), 국내 미술자료실 실태조사, 2008 시각예술포럼 'Art Archives' : 시각예술 분야 아카이브 현황 및 활용방안 연구. pp.12-34

김달진(2012), 한국 미술아카이브의 분포 상황 및 수집 여건과 과제-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24호, pp241-282.

김인혜(2011),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 아카이브 운영 구상, 한국근대미술사학 제24호 pp.301-310.

김종길(2012), 미술아카이브와 아키비스트가 필요하다, 서울아트가이드 Vol.131, pp.32-35.

김철효(2007), 시각예술 분야 자료 관리 현황, 예술경영센터 예술정책 포럼 〈예술자료의 체계적 관리 활용 방안〉, pp.22-43

김철효(2013), 국내 미술아카이브 설립 시도 사례, 한국아트아카이브협회 자료집 vol.1 아트아카이브에 관한 몇 가지 담론, pp.89-97

류한승(2012), 미술 아카이브의 구축 및 운영 사례 연구 - 게티미술연구소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미술사학 제24호, pp-285-296.

문화체육관광부(2011), 디지털 아카이브 및 유비쿼터스 박물관정보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박영선(2012), 사진아카이브, 이상한 다양체 되기, 미술세계 338호, pp.96-99.

박영택(2004), 경기도 근·현대 소집단 미술활동의 흐름 연구, 경기문화재단.

박주석(2018), 수원미술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아카이브 소론, 수원미술연구 제2호, pp. 78-92.

반이정(2014), 화단의 과거사가 때늦게 정리된 까닭은, 월간미술 359호. pp.80-99.

설문원(2011), 예술기록의 분류와 정리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2호, pp.217-247.

손동유(2011), 예술기록 수집전략과 평가기준, 예술기록관리 전문가 양성 과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2011), 아시아문화정보원 문화자원관리시스템 1차 개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2008), 디지털 아카이빙 체계설계 및 시범사업 최종결과보고서

이지은(2014), 20세기 미술 아카이브 명가: 테이트 아카이브, The Artro 인터넷판,

(http://www.theartro.kr/kor/features/features_view.asp?idx=1062&b_code=12e)
이호신(2007), 국립예술아카이브(가칭) 설립 및 운영방안, 예술경영센터 예술정책 포럼 〈예술자료의 체계적 관리 활용 방안〉, pp.44-111.
이호신 외(5명)(2015), 예술아카이브 운영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근준(2012), 아카이브 아트의 상징형식, 미술세계 338호, pp.92-95
정연심(2012), 2000년대 이후의 현대미술과 아카이브 열병, 미술세계 338호, pp.88-91.
정혜린, 김익한(2009), 미술 아카이브의 미술기록관리 방안 연구, 한국기록학연구 제20호 pp.151-212.
한국기록학회(2008), 기록학용어사전, 역사비평사.
한국기록관리학회(2010), 기록관리론-증거와 기억의 과학, 아세아문화사.
황동열(2007), 예술아카이브의 현황과 도입방안 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지 제12호 pp.177-215.
Ham, F. Gerald(2002),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진리탐구.
Spurgeon, Greg, 박주석 역(2012), '그림과 역사: 미술관과 시각예술아카이브', 한국아트아카이브협회 자료집 vol.1 아트아카이브에 관한 몇 가지 담론, pp.43-54.

〈홈페이지〉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http://daljinmuseum.com/
미국 미술 아카이브 https://www.aaa.si.edu/
미팅룸(meetingroom) curatorial research platform http://blog.naver.com/prologue/PrologueList.nhn?blogId=meetingrooom&categoryNo=14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http://sima.suwon.go.kr/kor/index.do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 http://www.aaa.org.hk/
테이트 라이브러리와 아카이브 https://www.tate.org.uk/art/archive
The Artro http://www.theartro.kr/kor/

부록

1. 수원미술연표(1896~2011)

| 부 록 |

1. 수원미술연표(1896~2011)

1896	4.28 나혜석 탄생 (-1948.12.10.) : 경기도 수원군 수원면 신풍리 291번지
1929	4. '푸로' 예술동맹 수원지부 설립 5.7 조선푸로레타리아 예술동맹 수원지부의 규약 압수, 집행위원 박승극(1909-?, 문학)을 소환 5.11 조선푸로레타리아 예술동맹 수원지부, '지부 창립기념 문예강연회' 개최 8.12 조선푸로레타리아 예술동맹 수원지부 '제1회 정기대회' 개회 9.23~24 나혜석,《구미사생화전람회》 개최, 수원 남수리 불교포교당, (주최 : 동아일보사 수원지국 주최 후원 : 중외일보사 수원지국 후원)
1930	3.29~30 제1회 푸로레타리아 미술전람회 개최(장소-화성학원) : 조선 푸로레타리아 예술동맹 수원지부 주최, 작품 70여점 압수당함
1933	4.8-9 홍득순 양화전 (장소- 수원공화당) (동문회에서 주최, 동아일보 수원지국 후원)
1940	5.17 한재남(경기도 양주군 연주면 의정부생, 수원읍 장안정 134번지 거주) - 조선미술전람회 2부 서양화 부문《풍경》과 《수원화홍문》 2점 입선
1942	연미사진관 (장만성), 화홍사진관 (김복만), 고산사진관 (최수길), 애광사진관 (이우복), 팔달사진관 (안길수), 타가라옥(와타나베) → 수원상공인명록 (수원상공회의소 발행)
1947	12.6~8 수원여자중학교 대강당에서 미술대가의 찬조출품을 얻어《미술전람회》개최 (1947.12.07.일자 동아일보)
1948	11.5~10 수원공립여자중학교 대강당에서 《제2회 미술전람회》 개최(1948.11.06.일자, 동아일보)
1953	8.3 수원 사진가 협회 설립(위치:팔달로 3가 72)사진공예사(1950년대 중반~1973, 홍의선)
1956	9.7 수원사우회 발기회, 사진공예사 (김영준, 이광하, 이창규, 김동휘, 정태화, 배종수, 박동훈, 이동주, 김세균, 이경용, 홍의선 등 11명) 9.15 수원사우회 결성식, 수원시청 회의실 (발기인 11명, 사진동호인 37명)

	9.30 수원사우회《제1회 사진촬영대회》, 용주사 10. 28 수원시립문화원 개원 / 전시실 개관 (~1976)
1957	5.1~7 수원사우회 촬영 공모전
1960	10.30 수원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학생《제1회 사생대회 미술 실기대회》, (장소 : 서울농대 서둔동), 5백여 명 참여 (1960.11.02.일자, 경향신문)
1961	5.7 미술강연회, 김병기, 수원미육회와 문화원 주최(장소 : 농촌지도자 훈련원영사실)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는 미술 '현대미술발전' (水原서 美術講演會(미술강연회) 1961.05.10.일자 경향신문) 12.27 '예총 경기도지회 미술협회' 창립 '한국사진작가협회' 창립, 수원사우회가 한국사진작가협회 수원지부로 명칭 변경
1962	2. '한국사진작가협회' 수원지부 (김동휘, 김명현, 김진원, 박영빈, 장준식, 최태련, 최흥만, 홍의선, 최명웅, 이종원, 최세평)
1964	3.22 '미협 수원지구회' 결성 4.26《제5회 소년한국 어린이 미술대회》(1964.03.23.일자 경향신문) 10.18 미술협회 수원지구회《제1회 미협회원전》 개최(장소: 수원문화원)
1965	5.23 미협수원지구회 인준
1966	1.10 제1회 경기도 미술전람회 시상식 10.15 미협 수원지구회 현판식
1967	6.22《경기도청 이전 경축 미술 전람회》 개최
1969	10.24 수원여고에서 유엔데이 예능전시회 마련 10.30 예총 수원지부 주선으로 수원출신 국전입상자 축하회 개최
1969	5.30 한국미협 수원지부 창립 《제1회 동우회 미술작품전》(수원문화원) 개최 《미술교사작품전》,(수원문화원싸롱) 개최
1970	11.19《2인 동양화전》, (커피하우스) 개최

1971	3.15《김유순 시화전》, (수원아카데미 다방) 개최 8.5《윤학철 유화전》, (수원아카데비 다실) 개최 시민회관 전시실 개관 (~1972)
1974	6.15~22《나혜석 유작전》, 아름화랑 9.23~25《인상파 백주년 기념 특별순회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한프랑스대사관 공동주최 수원청년미술인회 결성, 돌채음악감상실, 국제다방, 금강산다방 조성
1975	《제2회 블루아트리에미술전》 개최 크로바백화점 전시실(~1990), Y하우스(~1990) 조성
1976	7.20 미술협회, 수원지부 제1회 도내 교직자 서도 강습회 수원지역 미술교사회 결성
1977	5.16《선화실 불우이웃돕기 유화전》 크로바백화점 7.16 미술협회 수원지부, 도내 교직자 서도 강습회 개최 12.10《청운화도 학원전》, 크로바백화점 3층 전시실 12《S·S》전, 크로바백화점 전시실 (김석환, 차진복, 이석기, 김동기, 백종광, 장영국, 김현숙, 권미경, 김정은, 김옥경, 김창희, 문용수, 조진숙) 삼원백화점 전시실 조성 (~1981)
1978	경기청년작가회 결성 (~1987, 경화식, 권용택, 김인겸, 김철규, 남부희, 박승남, 배형경, 백일현, 이봉순, 이선열, 이종관, 최용락, 허상)
1979	4.4~8 경기청년작가회(1985년 해체) 1회전, 크로바백화점 화랑 12 포인트(~1983) '시점·시점' 창립(백종광, 장영국, 최춘일) 동일화랑(~1980), 소라백화점 전시실(~1980) 조성
1980	1.28《윤정웅 작품전(불우소년돕기)》, (수원종로예식장) 2.24 수원미술인들, 미술전시관 건립 추진협의회 개최 3.30 한국미협 경기도지부 결성 4.12《천영덕 유화전시회》, 수원지지대고개

	5.29《경기청년 미술인 회원전》, (권용택 외 18인), (크로바백화점 전시실) 11.5《제1회 경기예술제 사진 공모전》(장소: 팔달빌딩 3층) 11.5《경기예술제 중견작가 초대전》 11.24《제4회 경기청년미술인회원전》, (팔달빌딩 화랑) 12.6《수원성곽 주제로 유화전시회 갖는 천영덕》《포인트 2회전》 개최 (+이억배, 박찬응, 문석배, 강문수, 정길수 합류) 팔달전시장 조성 (~1981)
1981	4.16 수원 지역에 첫 화랑식 다방 개관,《도내 미술협회 회원 작품 전시》 9.27 한국미협 경기도지부, 인천직할시 승격으로 경기도지부 대의원 총회 12.21《우당 이길범 첫 개인전(12.19~23)》, (수원백화점 4층 전시실) 수원 첫 여성미술동인 일구팔이일이 결성 안드로메다미술연구소 개설 수원쇼핑전시장(~1985), 화홍예식장전시장, 명선다방 조성(~1982)
1982	1.2《일구팔이일이회 참립전》, (수원 첫 여성미술동인, 최경미, 박충분, 이윤숙, 최순용, 이미정, 최순희, 강미영, 이숙, 심언순, 박유찬, 현경원, 황은하) 2.4《김정환 화백 개인전》, (수원백화점 4층 전시실) 4.3(8?)《제36회 목우회(木友會) 회원전》(장소: 크로바백화점) 5.22《수원 사진작가 모임 별모임 11회 전람회》, (수원백화점 전시실) 6.22《제18회 경기도 미술전람회》, (매산초등학교) 9.2《제2회 중대 동문회전》, 수원쇼핑전시실 9.17 도추천 작가 권용택 소개 9.29《제7회 향미회 회원전》(수원농고 미술부 동문모임)
1982	12.11《13인 그룹 성묵회 창립전》 (이길범, 조성락, 기노철, 심세호, 김용근, 김정은, 김정환, 육동명, 이선열, 이승영, 이재흥, 최종대, 홍수선), 수원쇼핑전시실 성묵회 결성 (강병찬, 강선구, 김광헌, 김승호, 김원술, 김화영, 김창호, 권기옥, 박희수, 박득순, 박요아, 염조원, 오용길, 이길범, 이선열, 이완수, 이영길, 이정협, 장대주, 정인자, 정선이, 조성락, 최기운, 최길순, 최정숙, 최백란, 최종진) 《경기미협전》,《목우회초대전》,《김교선개인전》개최 공간사랑(~1987) 조성
1983	2.23《 수원에서 제1회 연합예술제》 개최 7.7《김세호 이기왕 2인전》, (수원백화점 전시실) 7.8 시작회 결성 (~1987)

	(김성배, 이윤숙, 김중, 김성환, 백종광, 남부희, 경홍수, 이석기 *이후 경홍수 탈퇴, + 어호선, 김갑식, 임병숙, 김영섭, 김영철,한기백, 황민수 합류), 크로바백화점
1983	일요화가회(박영복, 이선열, 이선옥 지도) 12.11《시작회 두 번째 회원전》개최 (김성배, 경홍수, 김석환, 김중, 김성배, 남부희, 백종광, 이석기, 이윤숙, 김갑식, 정우건, 어호선), 크로바 백화점 화랑
1984	5.30《수원미협초대전》, 아주대 6.1《경기청년미술작가 제10회 회원전》, 크로바백화점 전시실 6.27《시작회 3회 회원전》 (남부희, 김갑식, 김석환, 김성배, 김중, 남부희, 이석기, 이윤숙, 어호선, 임병숙), 크로바백화점 전시실 9.1《옛 수원 사진전》(주최: 경인일보사) 10.12《제5회 필맥회 회원전》, 크로바백화점 전시실 10.25《김교선 개인전》, 크로바백화점 전시실 11.15《제3회 성묵회 회원전》, 크로바백화점 전시실 포인트가 시점·시점으로 개칭
1985	3.12《제5회 노동문화전》, 수원백화점 전시실 5.18《김학두 회갑미전》, 크로바백화점 전시실 5.23《김종섭 동양화전》, 공간사랑 5.28《경기청년작가회 미술작품전》, 크로바백화점 전시실 6.25《일구팔이일이회 제3회 회원전》, 크로바백화점 전시실 10.12《제4회 성묵회전》, 크로바백화점 전시실 10.26《제6회 필맥회전》, 크로바백화점 전시실 10.31《김교선 장상숙 부부전》, 크로바백화점 전시실 11.29《제4회 시작회전》 (경홍수, 김갑식, 김석환, 김성배, 김 중, 남부희, 이윤숙, 어호선, 김영섭, 김영철, 한기백, 황민수), 크로바백화점 전시실 12.14 수원일요화가회, 광교사생회(~1986) 화우회(수성여중교사 모임으로 발족) 시작85(경기대 회화과 재학생 모임) 결성
1986	1.17《경기청년미술작가회전》, 크로바백화점 전시실 2.28《제5회 경인일보초대작가전》, 크로바백화점 전시실 3.4 수원 사진연구회 발족 4.8《이기철 개인전》, 크로바백화점 전시실 6.4《박영복 개인전》, 크로바백화점 전시실

1986	7.19《정남영 소품전》, 공간사랑 10.9《남하 김석영 화백 8회 개인전》, 크로바백화점 전시실 10.15 정조 동상 제막 (위치: 효행공원 내) 10.28《김종섭 개인전》, 크로바백화점 12.4《수원 일요화가회 회원전》, 선화랑 12.22《수원 상업미술가 SID전》, 크로바백화점 전시실 12.23《수원미술교육자전》, 선화랑 12.29《기전수채화작품전》, 선화랑 판화모임 판 결성
1987	1.15《제8회 화홍서우회전》, 크로바백화점 전시실 2.26《제7회 시작회 작품전시회》, 크로바백화점 전시실 7.14《기 노철 선면 보은전》, 크로바백화점 전시실 12.1《제6회 성묵회전》, Y하우스 12.22《수성여중 화우회전》, 크로바백화점 전시실 수문연 시각예술위원회(~1988) 선화랑, 수원문화원전시장 조성 민중문화운동연합 결성
1988	4.5《미술인 5인 그룹전》(김성로, 김성배, 김철규, 이윤숙, 전원길) 그룹, 수원문화원 4.15《장영국》, Y하우스 6.3《경인수채화작가전》, 수원문화원 전시관 6.10《성백주 작품전》, Y하우스 8.26《시작85(경기대 회화과 재학생 모임)》 세 번째 작품전, 수원문화원 10.5《박영복, 이선열 초대작품전》, 크로바백화점 전시실 10.25《제7회 일구팔이일이회 미술작품전》, 수원문화원 11.5《경기조각회 창립전》, 수원문화원 전시실 11.16《서양화가 김교선, 장상숙 제2회 부부전》, 크로바백화점 전시실 11.21《경기미협회원전》, 선화랑 12.8 경기예술상 미술 김학두 12.16《제4회 화우회(수원여중 여고사 미술모임) 작품전》, 크로바백화점 전시실 12.23《수원 일요화가회》 제6회 작품전, 크로바백화점 전시실 수원미술동인 새벽, 수원사생회, 경기현대작가회 결성 (백일현, 김중, 박종현, 이미혜, 치은영, 김용희, 황민수, 임병숙, 허종수, 김철규, 이경근, 홍오봉, 김석환, 주영광, 장혜홍) 수리미술연구소 (경기도, 군포, 산본) 개설

1988	경기형상회 창립 (권대균, 권용택, 김수현, 김주영, 김영섭, 남부희, 류봉현, 박영복, 박유찬, 박충분, 백상일, 서해창, 이경근, 이상학, 이석기, 이선옥, 이은숙, 이혜경, 임병숙, 정란숙, 조성호, 조진식, 주운항, 최순용, 최현식, 한기백, 경인미술관) 수문연 나눔미술분과 조직 경기조각회 결성 (구자영, 곽동기, 김남옥, 김왕현, 박경자, 박신자, 배형경, 안병철, 양희태, 오의석, 우무길, 이은상, 이재옥, 전태영, 탁명옥, 허종수, 홍낙기, 홍창기, 수원문화원) 수원지역 미술학우회 결성 김성배, 김철규, 전원길, 이윤숙 기획 《새로운 전환》개최
1989	2.20 수원미협주관, 수원사생회 창립 《수원대 미술대학 서양화과 1기생 작품전,》 《활짝 열린 창전》, 수원문화원 4.11 《경기향토회화작가작품초대전》,수원 선화랑 5.29 《광교미술회(수원농림고 미술인)전》, 선화랑
1989	9.29 《미협 경기도지부 회원전》, (수원, 안양, 부천, 성남) 10.4 일요화가회,《꽃그림 회원전》, Y하우스 11.1 《제2회 덤불 초상회 회원전》, 크로바백화점 전시실 12.8 《성묵회 제8회 회원전》, 수원 정화랑 《김수현, 최현식전》 수원 선화랑 미술동인 새벽의 첫 전시《오늘의 이 땅》 정화랑 개관 11. 《시맥회 창립전》개최 (경수미, 박민경, 박용국, 안택근, 유미옥, 유동일, 이득현, 장은주, 최세경, 최지희, 하선화), 선화랑
1990	1.18 컴아트그룹 결성 첫 전시 《다섯칸》 (이경근, 황민수, 홍오봉, 김석환, 허정수), 수원 선화랑 4.20 신예작가설치전,《나·비·뿌·리》 (김성배, 이경근, 황민수, 김석환, 고성호, 김경한, 장지성, 허종수, 홍오봉), 수원문화원 5.29 미술동인 새벽, 《정치·정치‥정치···전》, 선화랑 (이주영, 황호경, 신경숙, 구본주, 이오연, 김영기, 차진환, 류우종, 주영광, 최춘일, 박경수, 권용택, 양해영, 박태균, 손문상, 이병렬, 서동수 등 33명)

1990	5 미협 경기도지부,『경기미술 창간호』발행 10.18《이석기 개인전》, 선화랑 11.3《수원미술동호인회 창립전》, 정화랑 (중견 이상의 수원지역미술인 모임) 11.3《제1회 경기미전 추천·초대 작가전》(장소: 수원 선화랑) 11.6《제2회 경기미술대전 추천·초대작가전》, 선화랑 12.21《화홍화우회 12회 회원전》, 수원정화랑 슈룹 컴·아트 그룹(이경근, 황민수, 홍오봉, 김석환, 허정수) 교감예술제 시맥회 (안택근, 이득현, 김유미, 유동일, 김태용, 김현권 이상달, 이혜자, 홍혜영) 수미회 (김학두, 조세증, 송준용, 박찬도, 이필윤, 홍유선, 이준서, 박기환, 김성윤, 윤재상, 김용근, 류선화, 오인환, 권대균, 류춘성) 수원구상작가회 (전신 경기구상작가회, 권대균, 강상중, 김수현, 김영섭, 김주영, 김철규, 남부희, 류삼열, 서해창, 성하영, 이석기, 이선옥, 이종관, 조완형, 조진식, 최현식, 한기백, 허만갑, 탁성욱)
1991	1.20《수원미술인협의회(위치: 신풍동 221-23), 창립전》 (이주영, 권용택, 서동수, 주영광, 황호형, 최춘일, 손문상, 이오연, 임종길, 조용상, 허종수, 신경숙, 신동호, 박은태, 류승우) 선화랑 3.24《사진써클 '연지곤지'》 창립 수원구상작가회 경기구상작가회로 개칭 (김학두, 권대균, 남부희, 김영섭, 김주영, 조완형, 이석기, 서해창, 조진식, 이종관, 한기백, 최현식, 강상중, 김수현) 4.9《수원서양화가 15인전》, 갤러리 등잔 4.23《수원미술인협의회 창립전》 (주영광, 권용택, 김영기, 이주영), 선화랑 11.4《남부희 개인전》, 선화랑 12.4 갤러리 이음 개관 수미협 주관으로《환경미술전》개최

1992	2.15《현대판화-드로잉전》, 수원 장안미술관 (컴아트그룹과 경기현대작가회 회원) 3.12《박영복 개인전》, 이음 갤러리 4.2《김교선 장상숙 2인전》, 수원 뉴코아 이벤트홀 4.11《시맥 92 기획전, 인간으로부터》, 이음 갤러리 4.16《김철규 수채화전》, 남갤러리, 《김주영 수채화전》, 선화랑 4.30《강승희 김찬일 2인 판화전》, 남갤러리 5.2《김주영 교사 첫 개인전》, 선화랑 5.16《경기대 동문 현대미술 12인전》, 이음 갤러리 5.23《수미협 제2회 정기전》, 선화랑 5.28《제2회 수원구상작가회전》, 뉴코아백화점 6.19《경기미술대전 입상작품전》.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전시장 7.1《서양화과 최희정 첫 개인전,》 선화랑 7.10 낮은 언덕 개관 7.17《이민 개인전》, 장안미술관 7.23 컴아트그룹 교감미술제 지상토론 9.14《제1회 수원예술제》,《제1회 수원미협회원전》(장소: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제1회 수원문협시·서·화전》 (장소: 경기도문화예술회관) 9.21 수원미술인협의회,《제2회 환경미술전》, 선화랑 9.23 서양화 전문 화랑 갤러리 수원 개관 9.23 시맥회 제3회 회원전《상황과 의식의 흐름》, 수원 장안미술관
1992	9.23《권용택 초대전》, 갤러리 이음 10.5《일구팔이일이 창립 10주년 회원전》,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대전시장 10.14《김성노 개인전》, 장안미술관 10.21《이선열 개인전》, 수원백화점 10.29《이승택 초대전》,《김 중, 김성노전》, 장안미술관 11.19《경기미협 회원전, 청년작가 초대전》,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오용길, 이일종, 이길범, 조성락, 홍사영, 강선구, 이선열, 김학두, 권용택, 김교선, 이상덕, 구자영, 김지봉, 홍승인, 장윤우, 이정렬, 이수덕, 이수자, 이완숙, 한갑수, 박홍규, 이남아, 이한산, 이숙연, 김벽학, 송순기, 윤츈수, 유봉현, 주운항, 김왕현, 기노철, 남궁원, 박기환, 이상직, 양은진, 김세규, 이강모, 정방진, 전남훈, 염조원) 11.27《이금숙, 인승애, 이현전 3인전》, 갤러리 이음 12.5《이종례(수원일요화가회 회원) 개인전》, 선화랑 《경기수채화협회전》 (김학두, 김주영, 신정무, 이상덕, 박상윤, 최영철, 김세중, 이선옥, 박성현, 허정문, 박상국, 김종렬, 김정호, 이인석, 김현숙, 홍사계, 김혜중, 최인수, 황정옥, 윤정년, 김혜진, 박경희, 한병희, 오희근, 이귀화, 이공자, 박기술, 정자근, 신명희, 오혜련, 심우채, 김정화, 정백훈, 김혜경, 경정해,

	오정식, 이연옥, 김진식, 곽영숙, 신경숙, 김인영, 김영란, 민노숙, 이원희, 정덕문, 정선영, 곽철홍, 임승희, 이진희, 이오연, 김미양, 고숙진, 민성동, 손순옥, 탁신문, 손옥련, 허승대, 홍성남, 정미숙, 우원향, 황은선), 장안미술관, 갤러리 낮은 언덕 개관
1993	2.19《김교선, 유럽여행 스케치전》, 갤러리 수원 2.22《김지식 개인전》, 갤러리 수원 4.9《아트아카데미회원전》(수원에 거주하는 순수미술인 모임), 수원 뉴코아백화점 9.8《민중미술가 김영기 개인전》 11《월북해금작가 이쾌대 유작전》,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컴아트 그룹,《장안문에서 천안문까지》
1994	갤러리 올, 성원갤러리 개관 갤러리 그림시 개관 4.6《서양화과 9인 초대전》, 갤러리 올 4.25 슈룹,《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수원 우리상회 6《설치미술전_부드러운 물》, 김성배, 이윤숙 기획, 경기도 문화예술인회관 8.10《물이보이는 풍경전》, 갤러리 울 9.29《현대회화 8인전》, 갤러리 그림시(김선교, 박신혜, 심홍재, 정옥화, 황은화, 권성택 등)
1994	10.6《이종례, 엄옥남 2인전》, 선화랑 10.13《컴아트 한, 중, 일 전시, 북경교감예술제》, 북경수도사범대학미술관, 중국 10.21 수원지역 여성미술인회《제14회 정기전, 자기...움직임》, 경기도문화예술인회관 10.22 경인지역 중견한국화가들의 모임《성묵회 제12회 회원전》, 평택문화회관 11.4《경기구상작가회 제4회 회원전》, 갤러리 울(안산올림픽기념관) 11.24《이선열전》, 수원 뉴코아백화점 12.1《수미회(수원지역미술교사모임) 제5회 회원전》, 선화랑 12.2《컴아트그룹 황민수 작품전》, 장안미술관 컴아트 그룹,《북경교감예술제》

1995	슈룹 조형연구소 개관 나혜석 추모예술제 4 1995 미술의 해 기념 《경기도내 미술동호인단체 연립전》 6《수원에서 조망하는 1995 한국현대공예전》 5.4《화가 박영복》, 진솔화랑 개관 5.11《김보중 작품전》, 갤러리 그림시 7.8 진솔화랑, 울갤러리, 경기서적 4층 복합문화공간 등 개관 7.13《이봉순전》, 갤러리 그림시
1995	10《1995 현대회화전》 10.18《권진식 개인전》, 경기도 문화예술인회관,《수원수채화가협회 제3회 회원전》, 갤러리 울 10.25《최문호 개인전》, 갤러리 그림시 11《오늘의 구상회화전》 11.1《권성택 개인전》, 갤러리 그림시《안병적 개인전》, 갤러리 그림시 11.22 슈룹 첫 기획전,《나는 어디에 있는가》, 슈룹조형연구소 12.13《윤여결 목판화전》, 갤러리 그림시 12.20 수원지역 젊은 미술인 11인전,《터-돋을·별전》, 수원 진솔갤러리
1996	1.31《안병덕 스케치》전, 진솔화랑 《슈룹 아트넷 열림전》, 슈룹 아트넷 3.27《김영섭, 김철규》, 갤러리 울 4.3《김수현 개인전》, 갤러리 그림시 4.10《이흥덕 개인전》, 갤러리 그림시 4.17 슈룹조형예술연구소 기획,《한국현대미술의 조망전》, 부산 다다갤러리, 경기도문화예술회관 4.24 경기구상작가회,《봄의 풍경》, 진솔갤러리 5 《나혜석추모 현대회화전》 5.29 수원환경운동센터 주관《전국환경미술제》, 경기도문화예술회관
1996	7.3《바다풍경》전,《김원기, 이윤숙전》, 갤러리 그림시 9.6《전국 환경미술제》 개막 (장소: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10.12《수원 200년 역사화전》(장소: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10.2《수원조각회 창립전》,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곽동기, 구자영, 김도근, 김래환, 김유미, 손선형, 신성실, 엄종명, 우무길, 윤상화, 이윤숙, 이칠재, 허종수, 홍낙기, 홍창기, 황병광 등 16인) 《김영섭 초대전》, 갤러리 울 10.30《김찬일 전》, 갤러리 그림시 《임인식전》, 수원 갤러리 울 11.6《정경애 개인전》, 갤러리 그림시

	11.13《세계 구족화가 정기 열람》전, 울 갤러리 12《나혜석탄생 100주년 기념 현대여성미술제》 12.11 화우회(수원 연무중교사 모임),《교사유화전 》 12.18《성묵회 회원전》, 갤러리 울 12.25《수원일요화가회 제14회 회원전》, 동수워 뉴코아백화점 《미술동호인 모임 색깔사랑》, (수원대학교 미술교육원) 수원조각회 결성 (곽동기, 구자영, 김래환, 김유미, 박근용, 박해오, 백종영, 엄종명, 우무길, 윤상화, 이강식, 이영섭, 이윤숙, 임광용, 최영, 허종수, 황병광, 이칠재, 홍창기, 박옥순, 박용국)
1996	미술소그룹 옴니버스 (경수미, 박종훈, 신경숙, 유미옥, 최세경, 오진순) 컴아트,《수원국제교감예술제》 《수원화성 전국사진촬영대회》, 한국사진작가협회 수원지부 수원화성 축성200주년 기념행사에 자매결연도시 일본 아사히가와시 사진연맹 회원과 중국 지난시 촬영작가회 회원들과 사진촬영행사, 동북아시아 사진교류회 모임결성
1997	5.22《김 중 네 번째 개인전》, 갤러리 그림시 7.11~16《제2회 수원조각가회 정기전》,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곽동기, 구자영, 박근용, 백종영, 엄종명, 우무길, 이강식, 이윤숙, 이칠재, 최영, 허종수, 홍창기, 황병광) 10.7《이윤석 여섯 번째 개인전》 10《제1회 수원나혜석미술대전》,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대,소전시실 10.21《박신혜전》, 갤러리 그림시 11.13《수원시립미술관 기금마련전》, 수원 모네갤러리 11.20 슈룹 기획,《회화, 조각, 도예, 설치 모듬전》, 갤러리 아트넷 50세 이상 미술인 모임《수미회전》, 동수원 뉴코아백화점 12.23《동양화가 이선우》, 아트넷 갤러리 생활 속의 미술회 (김선희, 권혜영, 김영란, 김옥향, 김혜경, 이강임, 유근선, 한향규) 수원 화성아트쇼
1998	1.6~12《수원교구 가톨릭미술가회 창립전》 (최종태, 추명희, 박상은, 엄종환, 이윤숙, 이재옥, 조숙 등), 천주교 수원교구청 2.23《김연진, 차우홍, 》갤러리 그림시 3.4《갤러리 그림시 개관 4주년기념전》, 구상회화 4.15《김수현 세 번째 개인전》, 갤러리 그림시 5.4《서양화가 김보중 개인전》, 갤러리 그림시 5.29《일구팔이일이회 소품전》, 갤러리 아트넷

	6.12《수원미술소그룹, 옴니버스 정기전》, 수원 갤러리 그림시 9.7《주홍 개인》전, 갤러리 그림시 9.16~22《제3회 수원조각회 정기전》, (박옥순, 곽동기, 구자영, 김유미, 김래환, 박근용, 박용국, 백종영, 엄종명, 우무길, 윤상화, 이윤숙, 이칠재, 허종수, 황병광) 11.2《황은화 개인전》, 갤러리 아트넷 11.12《권용택 개인전》, 갤러리 그림시 11.16《수원 수채화협 회원전》, 동수원 뉴코아 백화점 12.7 컴아트그룹,《98국제교감예술제》
1999	1.20 영통에 갤러리 사임당 개관 1.28《이윤기 첫 번째 개인전》, 갤러리 그림시 3.8《화홍 수채화회 4회 개인전》, 경기도문화예술회관 3.11《갤러리 그림시 재풀범 기획전》 3.17《색깔사랑 전시회》(수원대 사회교육원 서양화과 수료생 모임
1999	3.31《수원성북교회 손영섭 목사 그림 전시회》 4.17《제17회 성묵회전》, 경기도문화예술회관 4.22~27《미협 시지부 33번째 회원전》,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조각부문 구자영, 곽동기, 김도근, 우무길, 이윤숙, 홍낙기 등 출품) 5.1《나혜석 여성미술대전입상작 전시회》, 경기도문화예술회관 5.13《제4회 옴니버스 99전》, 갤러리 그림시 《제3회 경기미술 새로운 도약전》, 민예총 수원지부주최, 수미협 주관, 경기도문화예술회관 6.24《한국화가 6인 모임 회인(수원대 93학번)전》, 갤러리 아트넷 8.14《김 중 7회 개인전》, 갤러리 아트넷 8.26《수원조각회 전시회》, 경기도문예회관 9.27《김수현 개인전》, 갤러리 그림시 10.18《일구팔이일이회 정기전》, 뉴코아 동수원 《경기구성작가회 8회 정기전》, 경기도문화예술회관 10.19 수원미술전시관 개관 10.30《슈룹, 인간과 자연- 대단히 감사합니다전》, 군포시민회관 11.25 황민수 5회 개인전,《몽상적 묵시록전》, 갤러리 아트넷

2000	2.8《제3회 젊은 작가전》, 갤러리 그림시 《갤러리 쿠이 개관기념전》,갤러리 쿠이 개관 3.10《안산작가 10인 초대전》, 갤러리 그림시 3.20《김용란 작품전》, 경기도문예회관 4.10《수원소재로 한 작품》, 미협 수원지부 《이홍덕전》, 갤러리 그림시 4.24《김교선 초대전》, 갤러리 쿠이 4.26《김승호 개인전》, 갤러리 그림시 5.3 《김수현 개인전》, 갤러리 그림시 5.24《이춘영 개인전》, 갤러리 그림시 《김백선 개인전》, 수원미술전시관 6.5 《권해영 개인전》, 갤러리 쿠이 8.21《류승우전》, 갤러리 그림시 9.19 수미협 기획,《환경을 생각하는 그림전》, 수원미술전시관 10.4《신형옥 개인전》, 갤러리 그림시 10.5~11《수원조각가회 제5회 정기전》,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곽동기, 구자영, 김유미, 노현래, 박근용, 이윤숙, 황병광, 허종수) 10.23《서호수채화전》, 수원미술전시관 《성묵회》, 수원미술전시관 《심강 최기운 개인전》, 갤러리 그림시 《조용상 첫 개인전》, 수원미술전시관 11.6《사원사생회 회원전》, 수원미술전시관 11.15《한미진 도판전》, 갤러리 그림시 11.29《수원수채화협회 제8회 전시회》, 수원미술전시관 12.18《이해균 개인전, 〈빛과 시간속에서〉》, 경기도문화예술회관 12.20《수원미술한마음전》, 수원미술전시관 후상회(수원 여성 수채화 단체), 서호수채화회, 초록작가회(수원지역 초등교사 주축) 결성 《이윤숙 개인전, 대희년의 기쁨이여전》개최
2001	1.31《탁신문 개인전》, 수원미술전시관 2.5《화우회전》, 수원미술전시관 4.9《미협수원지부, 〈오늘의 수원〉전》, 경기도문예회관 4.28 나혜석 바로알기 제4회 심포지엄 4.30《오소백 가족그림전》, 수원미술전시관 6.11《다름과 닮음전》, (수원 중견작가) 9.25《갤러리 그림시 기획, 제6회 수원화성아트쇼》,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9.27~10.2《제6회 수원조각가회전》, 경기도문화예술회관 (구자영, 김도근, 김유미, 노현래, 박근용, 박용국, 안재홍, 안택근, 우무길, 이동우, 이윤숙, 이칠재, 황병광, 허종수) 10.15《수원 서호수채화전》, 수원미술전시관

	《갈매화우회 한국화전》(강남대 한국화 전공), 수원미술전시관 11.3~9《제38회 화성문화제 일환 드림퍼포먼스 아트 페스티벌》, 수원미술전시관 (이용덕, 박근용, 이윤숙, 박계훈, 안택근, 양태근, 장형택, 주동진, 최경식, 허종수, 임은영, 김영원 등) 11.5《자극적인 일상 - 틈전》, 수원미술전시관 11.15《수미회전》, 수원미술전시관 12.11《인권예술제》, 수원미술전시관 12.13《화묵회 창립전》(한국화 애호 초등학교 교사 모임), 수원미술전시관 12.28《구상회화 70인전(사단법인 민미협 수원지부)》, 수원미술전시관 컴아트 그룹《행위·영상·설치 프로젝트 시티수원 2001》 《자극적인 일상-틈》(황민수, 박근용, 김석환 등) 슈룹《내가 서있는 자리》
2002	7 수원월드컵경기장 조각공원 조성 (초대작가: 김세일, 노주환, 박성태, 박은선, 박헌열, 신은숙, 우무길, 이용덕, 이윤숙, 정현, 공모작가: 이환권, 김민수, 박나래, 강충모, 김경민, 김근배, 김상현, 김성숙, 김지영, 김창환, 김현기, 류 훈, 문병두, 민상동, 박경범, 박종재, 박찬걸, 서완길, 성백, 손종성, 손창수, 신치현, 심승욱, 엄익훈, 유승훈, 윤미숙, 이동호, 이문영, 이병구, 이지은, 정국택, 정규환, 정영자, 정학환, 차준홍, 천성명, 천종권, 최용선, 표찬용, 황연환) 8.29~9.4《제7회 수원조각가회 정기전》,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곽동기, 구자영, 김도근, 김래환, 김성기, 노현래, 박용국, 손선형, 안재홍, 안택근, 우무길, 이윤숙, 이칠재, 황병광, 홍창기) 12.10~19《5인5색전》, 수원미술전시관 (김도근, 박용국, 신원재, 이근세, 천성명) 안재홍 첫 개인전,《꿈꾸는 몸의 기억》
2003	4.1 수원미협《'2003 오늘의 수원'전》 4.25 나혜석 바로알기 심포지엄 "문화거리 지정 세제활용 필요" 4《지팡이와 방망이》, 수원예총 6.5~15《선생님, 조각이 뭐예요?》, 청소년문화센터 (수원대, 경기대 조각전공 학생, 졸업생, 교수, 지역작가 참여, 강상열, 강정임, 곽동기, 구자영, 김경호, 김도근, 김성기, 김운용, 김유미, 김희경, 문인수, 문혜자, 박광일, 박영순, 박옥순, 박용국, 배수관, 허용준, 손선형, 신현욱, 안재홍, 안택근, 안필연, 우무길, 윤윤중, 이동우, 이미연, 이소윤, 이윤숙, 이정근, 이종성, 이종안, 이진아, 이칠재, 이혜숙, 이호성, 임영옥, 정문경, 조윤석, 조은영, 최기석, 최우석) 10.13~19《제8회 수원조각가회》, 수원청소년문화센터

	(곽동기, 구자영, 김선, 김성기, 김유미, 박근용, 박용국, 손선형, 안재홍, 우무길, 이동우, 이칠재, 이윤숙, 홍낙기, 홍창기, 황병광) 슈룹 기획,《경중가인(鏡中佳人) -Outlook for the Future-》, 수원미술전시관 및 소나무갤러리 경수미 입체설치전《꿈꾸는 물고기의 자유로운 유영》 《김도근 조각전》 《이창세 조각전, 소망의 소리》
2004	5.13 수원시립미술관 건립 추진 본격화 10.19~25《제9회 수원조각가회 정기전》, 수원미술전시관 (곽동기, 구자영, 김선, 노현래, 박근용, 배수관, 손선형, 안택근, 우무길, 유용우, 유형석, 이윤숙, 이칠재, 전경선, 한상혁, 황병광) 독립작가연구회 결성 (수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독립 미술가들의 연구활동모임) 《해피수원아트페스티벌, 거리-예술과 만나다》나혜석거리, 수원예총 《이윤숙 개인전, 숨쉼》
2005	1.25《수원시 미술단체 첫 연합전》(~31일까지) 8.30~9.5《제10회 수원조각가회 정기전》, 수원미술전시관 (곽동기, 구자영, 김도근, 김선, 김병진, 김성기, 김유미, 노현래, 박용국, 배수관, 손선형, 안재홍, 안택근, 유용우, 유형석, 이칠재, 전경선, 손선형, 허종수, 황병광) 4 대안공간 눈 개관 10.29~11.11 조각그룹《야생동물들 기획전,》대안공간 눈 실내전시실, 잔디마당 (김고아남, 김남운, 류신정, 배성미, 배숙녀, 신성호, 양태근, 연기백, 이가람, 이성실, 이유미, 이윤숙, 임승오, 장욱희, 전경선, 전신덕, 정국택, 차기율, 최용선, 최일, 최현승) 《박용국》,《김도근》조각전, 《곽정호》조각전, 《박영순》조각설치전, 《전경선의 목조각전》, 《이기문 조각전》, 대안공간눈

2006	《예술컨버전스로 만나는 수원의 어제와 오늘》, 수원예총 7.27~8.2 《한중국제조각교류전-북경 798팩토리를 가다》, 중국북경 따산즈, 3818cool (한국 19명, 중국10명) 8.18~9.7 《야생동물들 수원가》, 대안공간눈, 장안공원 (류신정, 문병두, 박진범, 배숙녀, 신성호, 현현수, 양태근, 이가람, 이동호, 이승아, 이윤숙, 임승오, 전신덕, 정국택, 주송열, 차기율, 최용선, 최일, 한희철)
2006	《안택근 조각전, 인간의 자연 》 《김성래 조각설치전, 머묾, 떠남》, 《손선형 조각전》, 《이칠재 조각전》, 《배수관 조각전》, 《김성배 흑백논리 설치전》, 대안공간눈 한일교류 10주년 행사, 한국사진작가협회 수원지부
2007	2.1《수원미술단체 연합전》(~5일까지) 4.29 나혜석 기념사업회 '나혜석 바로알기' 심포지엄 《간판에 날개를 달자》, 빈집미술관 7.28~8.2 《동북아평화를 위한 한중현대미술교류전》, 중국심양 루쉰미술관
2008	5.13~19《제13회 수원조각회 정기전》, 수원미술전시관 (강성훈, 구자영, 김도근, 김래환, 김 선, 김운용, 김유미, 김혜영, 노현래, 박용국, 배수관, 손선형, 신원재, 안재홍, 우무길, 원용덕, 유형석, 이가람, 이동우, 이윤숙, 이정근, 이창세, 이칠재, 전경선) 5.20 《해피수원 예술제》(~26일 까지), 수원미술전시관 《예술, 세월의 흔적 그 속으로 간다》, 수원예총 《동북아교류 사진전》, (일본 호리, 후쿠다, 이나바 등 3인), 수원미술전시관
2009	4.3 《믹스 앤 맥스' 지역화가 초청 개관기념전》(~20일까지) 행궁동레지던시 프로그램 개설 《수원조각가회 정기전》, 청소년문화센터 전시실 《전유병, 남기성, 조성근》, 일본 동천갤러리 초대전

2010	2.17《함께하는 경기도미술관》 첫 순회전 수원미술전시관 (~28일까지) 4.2 《수원 미술 원로작가초대전》, 수원시가족여성회관 해피갤러리 《수원예술의 내일을 펼치다》, 수원예총 《이웃과 공감하는 예술프로젝트 행궁동 사람들》, 대안공간 눈
2011	5.26 수원 출신 미술사학자 오주석 심포지엄, 경기문화재단 다산홀, 수원예총 주관 6 START(Suwon Tomorrow Art)운영위원회 조직(권용택, 이석기, 남기성, 황은화, 이 섭, 김영환) 국제레지던시프로그램 '골목길-행궁동을 걷다', '어르신솜씨발굴프로그램', '들썩들썩 골목난장판' 《제7회 수원예술제, 현대사진과 만남전》, 44명 (각2점씩 출품)

■ 참고자료

- ○ 수원 역사 연표, 수원박물관, 2010
- ○ 경기도 근·현대 미술흐름사 주요활동 색인, 경기도의 힘 자료집, 경기도미술관, 2010
- ○ 경인일보 경기문화관련 기사 색인(1961~2002)
- ○ 경기도의 힘 자료집, 경기도미술관, 2010
- ○ 경기도 근현대 소집단 미술활동의 흐름 연구, 경기문화재단, 2004
- ○ 수원시사, 제9권 수원의 문화와 예술, 3부 시각예술, 1, 2, 4장,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등

| 저자 약력 |

최지연
사회학 박사수료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현)
E-mail : choi.jiyou@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청년 생태계조사 학술연구」(2017,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실태 및 욕구 조사」(2017, 수원시정연구원)

이정수
사회학 석사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원(현)
E-mail : jsr@suwon.re.kr